연구보고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Ⅰ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백혜정(한국청소년개발원・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길은배(한국체육대학교・교수)
윤인진(고려대학교・교수)
이영란(중앙대학교・전임연구원)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적응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것임.

-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소수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에 기초한 질적 연구였음. 그러나 현재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였고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어 그들에 대한 양적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양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음.

2. 연구 내용

-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이 포함되었음.
  -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현황 및 문제점의 파악
  - 외국의 사례연구
  -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 정책제언

- 외국사례로는 한 때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탈동독 청소년들과 미국의 이주난민 청소년들의 적응양식 및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독일의 경우, 서독정부의 탈동독 정책의 핵심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서독에서의 자립적인 삶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임. 탈동독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경우에는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 관·민 단체들의 상호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학교와 일상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잘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 또한 탈동독자를 탈출자나 이주자가 아닌 한 명의 연방시민으로 수용하는 서독사회의 개방성은 그들의 서독사회 적응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음.

- 한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한 파악과 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책, 자활공동체와 같은 자조적이고 집합적 적응양식의 도입,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이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분석되었음. 이러한 지원책들은 국내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것들로써,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변환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실례들을 제시하여 보았음.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 내에서 사회 및 심리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영역(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및 건강상태, 종교), 시간적 영역(남한 거주기간, 탈북시기 및 제 3국 거주기간), 탈북과정상의 문제영역(외상경험 및 죄책감의 정도), 기술적 영역(의사소통의 정도,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획득의 정도), 교육적 영역(하나원 및 하나둘학교에서의 교육여부, 남한에서의 정규교육 및 정규학교 이외의 교육여부), 사회적 영역(가족의 유무, 남한친구의 유무, 북한에서 온 친구의 유무, 후원자의 유무)과 같은 영역들에서 적응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가정하였음. 또한 각 영역에서의 적응 준비도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응(가정적응, 학교적응, 문화적응)과 심리적응(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음.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약 200명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 설문지 내용의 통계분석 결과, 개인의 남한사회 적응준비도, 사회적응 및 심리적응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성별, 연령, 및 건강상태, 남한 거주기간, 탈북과정상의 외상경험 및 탈북에 대한 죄책감의 정도, 남한 인과의 의사소통 정도, 하나둘 학교에 대한 만족도, 남한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크기, 남북한 친구들과의 친밀정도, 그리고 가족이외의 사회적 지지원과의 친밀정도에 따라 사회적응 및 심리적응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또한 개인의 가정적응 및 남북한 문화에 대한 적응 수준에 따라 심리적응의 수준도 달라졌음.

3. 정책제언

-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 특성화된 지원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정책으로의 전환
  - 정부 및 민간단체 간의 명확하고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
  -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 민간단체 및 개인 차원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타파를 위한 시민의식함양 운동의 전개

-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 개인적 특성 및 환경에 따른 맞춤형 지원의 추진
  - 단계별 적응프로그램의 마련
  - 전문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 건강 지원책 마련
  -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기술적 측면의 지원 강화
  - 남북한 양 문화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 제공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 7
1)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현황 ····· 7
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 ····· 7
3)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및 심리적 적응도 ····· 8
4) 정책제언 ····· 8
3. 연구방법 ····· 8

Ⅱ.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1. 국내입국 및 재외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 13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입국 현황 및 인구학적 특성 ····· 13
2) 재외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 ····· 16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입국경로: 변화적 추이 ····· 22

Ⅲ.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
1.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 과정 ····· 29
1) 적응이론 ····· 29
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 35
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서의 문제점 ····· 41
1) 개인적 측면 ····· 41
2) 사회적 측면 ····· 48
3) 교육적 측면 ····· 54
4) 시간적 측면 ····· 57
5) 기술적 측면 ····· 60
6) 탈북과정상의 문제 ····· 63
3. 국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정착지원 내용 ····· 67
1) 정부차원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정책 ····· 67

2) 민간차원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정책 ····· 81

Ⅳ. 외국사례분석
1. 통독 탈동독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사례 ····· 91
1) 독일의 이주 역사 ····· 91
2) 탈동독의 동기와 이주경로 ····· 94
3) 탈동독자들을 위한 서독정부의 기본정책 ····· 98
4) 탈동독 청소년들의 서독사회 적응실태 ····· 101
5) 서독정부와 민간단체의 탈동독 청소년 지원정책 ····· 123
6) 결론 및 시사점 ····· 127
2. 미국이주 청소년의 사회적응 사례 ····· 130
1) 미국의 난민정책과 프로그램 ····· 130
2) 미국의 난민 및 이민자 적응양식 ····· 134
3) 이주ㆍ난민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 137
4) 이주ㆍ난민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42
5) 시사점 ····· 148

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도 조사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분석틀 ····· 155
2. 연구대상 ····· 157
3. 측정도구 ····· 157
1) 적응준비도 ····· 157
2) 사회적응 ····· 158
3) 심리적응 ····· 159
4.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 160
5. 결과 ····· 160
1) 적응준비도 ····· 161
2) 사회적응 ····· 168
3) 심리적응 ····· 184
4) 결론 ····· 195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203
2. 정책제언 ····· 205
1)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 206
2)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 ··· 211
3) 정책제언 활용을 위한 로드맵 ····· 217
3. 향후 연구계획 ····· 218

참고문헌 ····· 221

부록 ····· 231

표 목차

<표 Ⅱ-1> 국내 입국 북한이탈 주민 현황 ····· 13
<표 Ⅱ-2> 국내 입국 북한이탈 주민의 연령별 현황 ····· 14
<표 Ⅱ-3> 국내 입국 북한이탈 아동·청소년(무연고 포함) 현황 ····· 14
<표 Ⅱ-4> 국내 입국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대 분포 ····· 15
<표 Ⅱ-5> 북한이탈 주민들의 탈북 횟수 ····· 25
<표 Ⅲ-1> 소수 집단 정체감 발달 모델 ····· 34
<표 Ⅲ-2>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의 유형 ····· 37
<표 Ⅲ-3>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별 HAZ ····· 45
<표 Ⅲ-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DSM-IV-TR 진단적 준거 ····· 64
<표 Ⅲ-5>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주요 정착지원 내용 ····· 69
<표 Ⅲ-6>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내용 ····· 71
<표 Ⅳ-1> 연령에 따른 이주자 현황 ····· 96
<표 Ⅳ-2> 서독 이주동기 ····· 100
<표 Ⅳ-3> 인종 및 민족집단별 특성, 1990 ····· 139
<표 Ⅳ-4> 국가별 이주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및 선호도 비율 ····· 140
<표 Ⅳ-5> 국가별 이주 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 ····· 141
<표 Ⅴ-1> 응답자의 연령대 및 성별 ····· 161
<표 Ⅴ-2> 응답자의 건강상태 및 종교 ····· 162
<표 Ⅴ-3> 응답자의 탈북, 입국 및 제 3국 거주 기간 ····· 162
<표 Ⅴ-4> 죄의식의 정도 ····· 163
<표 Ⅴ-5> 외상 경험자의 비율 ····· 164
<표 Ⅴ-6> 의사소통 및 정보획득의 정도- ····· 165
<표 Ⅴ-7> 각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 ···· 166
<표 Ⅴ-8> 하나원 교육 및 하나둘 학교에 대한 만족도 ···· 167
<표 Ⅴ-9> 교우 및 사회적 지지원과의 관계 ····· 168

<표 Ⅴ-10> 남한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69
<표 Ⅴ-11> 북한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70
<표 Ⅴ-12> 시간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 171
<표 Ⅴ-13> 탈북과정상의 문제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 172
<표 Ⅴ-14> 북한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탈북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 172
<표 Ⅴ-15> 기술적 적응 준비도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 173
<표 Ⅴ-16> 북한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탈북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 173
<표 Ⅴ-17> 교육적 적응 준비도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 174
<표 Ⅴ-18> 남한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역
적응준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75
<표 Ⅴ-19> 북한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역
적응준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76
<표 Ⅴ-20>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 177
<표 Ⅴ-21> 시간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 178
<표 Ⅴ-22> 탈북 과정상의 문제 및 기술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 178
<표 Ⅴ-23>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교육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 179
<표 Ⅴ-24>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 180
<표 Ⅴ-25> 가정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 181
<표 Ⅴ-26> 시간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 182

<표 Ⅴ-27> 가정적응에 영향을 주는 탈북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82
<표 Ⅴ-28> 기술적 적응 준비도 및 교육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 183
<표 Ⅴ-29> 가정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역 적응 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84
<표 Ⅴ-30>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85
<표 Ⅴ-31>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시간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86
<표 Ⅴ-32>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탈북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87
<표 Ⅴ-33> 기술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 187
<표 Ⅴ-34>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교육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88
<표 Ⅴ-35> 사회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상관계수 결과 ····· 189
<표 Ⅴ-36>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응 정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89
<표 Ⅴ-37>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91
<표 Ⅴ-38> 기술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 191
<표 Ⅴ-39>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탈북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92
<표 Ⅴ-40>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탈북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92
<표 Ⅴ-41>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교육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93
<표 Ⅴ-42>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94
<표 Ⅴ-43>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응 정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95

그림 목차

[그림 Ⅲ-1] 문화적응 이해의 틀: 문화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 ····· 30
[그림 Ⅲ-2] 문화적응의 유형 ····· 32
[그림 Ⅲ-3]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 모델 ····· 36
[그림 Ⅲ-4] 사회적응 과정에서 자신감의 변화 ····· 40
[그림 Ⅲ-5]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및 과정 ····· 68
[그림 Ⅲ-6]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 74
[그림 Ⅲ-7] 학력확인 인정과정 ····· 75
[그림 Ⅲ-8]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과정 ····· 76
[그림 Ⅲ-9] 자격인정신청절차 ····· 76
[그림 Ⅲ-10] 취업보호 신청 처리절차 ····· 77
[그림 Ⅲ-11] 기초생활보장 신청절차 ····· 78
[그림 Ⅲ-12] 민간차원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단체 형태 ····· 82
[그림 Ⅳ-1] 가족, DDR 사회화, 이주와의 상관관계 ····· 106
[그림 Ⅳ-2] 탈동독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의 배경 ····· 109
[그림 Ⅴ-1]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준비도와 사회 및 심리적응 간의 관계 ····· 156
[그림 Ⅵ-1]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력강화를 위한 로드맵 ··· 217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의 규모는 1999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응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1,383명이 입국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입국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5년 12월말 기준 총 7,074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다(통일부, 2005). 북한이탈 주민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단독 입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족을 동반한 다양한 연령층이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가족동반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층의 입국도 증가하였다. 2005년 한 해에만도 178명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입국한 것을 포함하여 현재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10-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2005년 12월 현재까지 총 844명에 이른다(통일부, 2005). 또한 20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규모는 2005년 한해에만 384명이 입국하여 2005년 12월 현재까지 총 1843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규모는 어느 연령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까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급증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인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사회적응 지원정책은 북한이탈 주민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실시되기보다는 북한이탈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일반화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을 마련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정책경향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그들의 연령이나 성별 등을 포함하여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자 적응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청소년이라는 특성상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주요 삶의 영역에서의 적응과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요건이 북한이탈 성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예를 들자면, 교육과 관련하여, 탈북 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며 그 기간 동안 교육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5). 또한 북한이탈 과정에서의 체포 불안 등에 따른 정신적 황폐화의 경험(강성록, 2003), 일부 여자 청소년들의 심각한 성적 유린 상태에 대한 무방비적 노출 등도 탈북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새롭, 2003). 이러한 북한이탈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윤인진, 2000a).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남한사회에서의 정착기간도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응 문제는 연령, 성별, 가족의 유무, 진학 여부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다. 한 예로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입국 현황을 보면, 99년 5명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10명, 2001년에는 29명, 2002에는 53명으로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길은배·문성호, 2003). 더구나 국내에 입국하여 사회적응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 사고, 이민, 불법 국외체류 등의 사안이 겹쳐지면서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숫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개인의 특성에 맞게 구안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지원정책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일부 민간단체들이 이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기는 하지만 열악한 재정구조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민간단체의 사업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예: 정병호·정진경·이향규, 2005). 그 결과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사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은 청소년이란 특수성과 북한이탈 청소년 규모의 증가추세를 고려해 볼 때 그들의 실정에 맞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새롭게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이 단기적이

고 일회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우리사회 내에 존재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남한사회 내의 또 다른 북한사회라고 하는 이중적 사회구조가 강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과 고립은 이들로 하여금 남한사회에 영구히 부적응하도록 만들며, 이는 개인의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어떠한 상태를 적응으로 볼 것인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북한이탈 주민들과 관련하여 윤인진(2000a)은 이들의 심리적 또는 내적인 욕구가 사회환경 또는 외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이 없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사회적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혜경과 김영란(2000)은 사회적응이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환경과 사회구조에 정상적으로 편입되어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요구되는 규범과 양식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남한사회의 제반 사회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자신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해 만족함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기영, 2001).

둘째,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이들의 현재 실태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에는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어떠한 특성을 지녔으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등 그들에 관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특성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북한 이탈자들에 대한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박선경(1998)의 연구를 시작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예: 김미숙, 2004; 박윤숙, 2006)는 현재까지 그리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소수

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질적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과정 상에서 어느 영역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진술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체 청소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양적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초기 연구가 이루어졌던 시기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였고 또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양적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부적응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그들 중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나 되며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 못지않게 그들에게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간단한 언급(예: 김형태, 2004)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러한 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양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뿐 아니라 남한사회 구성원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비롯한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적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남한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태도 등에 대한 연구, 더 나아가 두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이질성의 정도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선행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 1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양적 조사를 계획하였다. 이후 2~3차년도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남한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및 태도,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남한 구성원들에 대한 시각의 차이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이 두 집단 간의 이질성에 대한 질적 연구 및 양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3개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궁극적으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끌어나가고자 한다.

1)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현황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입국 현황 및 인구학적 특성 뿐 아니라 제 3국에 거주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현황도 살핀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국내 입국 경로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

문화 및 사회 적응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각 요인의 특성에 따른 적응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분석해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본다.

(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및 사회지원 내용들을 알아본다.

(3) 통독 전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 청소년들과 미국으로 이주한 난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본다.

3)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및 심리적 적응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이들의 남한사회 및 심리적 적응의 정도를 알아보고 적응정도에 대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사회적 영역, 기술적 영역, 시간적 영역, 교육적 영역, 개인적 영역, 탈북과정상의 문제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남한사회 적응은 가정적응, 학교적응, 문화적응으로 나누는 한편, 심리적 적응은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4) 정책제언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한다. 정책제언은 북한이탈 청소년들 지원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과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이다. 문헌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현황, 그리고 그들의 적응과 관련한 이론 및 연구결과들에 대한 검토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로 한때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에서 탈동독 주민들의 사례와 난민들의 이주가 비교적 많은 미국의 사례 분석을 포함하였다. 이 두 국가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거주지로 편입된 이들의 적응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한이라는 새로운 거주지에 편입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적응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각 영역에서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다양한 측정도구들 중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진 문항들을 선별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자의 규모는 200명 정도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의 8천 명에 육박하고, 이들 중 30%인 약 2천 여 명 정도가 청소년임을 가정할 때, 이들의 약 10%선을 설문대상자로 잡은 것이다.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외에도 전문가 자문이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접촉하는 과정, 연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정책적으로 도출하는 과정 및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Ⅱ.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1. 국내입국 및 재외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입국 현황 및 인구학적 특성

Ⅱ.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1. 국내입국 및 재외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입국 현황 및 인구학적 특성

전체 북한이탈 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로 비교적 적은 인원이었으나, 지난 200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7,687명에 이른다(통일부, 2006: 182). 특히, 2004년에는 총 1,894명의 북한이탈 주민이 입국하여 최대 규모를 보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 경향이 가족단위 또는 여성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자연히 북한이탈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하여, 2004년 9월 말 기준 20세 미만의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수는 890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최근 5년 동안 입국한 평균 북한이탈 주민의 약 17.9%에 해당한다. 아쉬운 점은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집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24세까지

<표 Ⅱ-1> 국내 입국 북한이탈 주민 현황(2005. 12월 기준)

(단위 : 명)

연도	91 이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합계
인원	625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7,687

※ 자료 : 통일부(2005). 통계자료(대북인도사업).
<http://www.unikorea.go.kr/index.jsp>

<표 Ⅱ-2> 국내 입국 북한이탈 주민의 연령별 현황(2004. 9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99	12	14	48	41	15	7	11	148
'00	14	48	73	100	44	19	14	312
'01	43	91	158	172	54	25	40	583
'02	55	154	332	368	129	61	40	1,139
'03	46	161	345	447	160	57	65	1,281
'04.9	52	200	398	520	203	64	76	1,513
계	180	478	976	1,158	442	219	230	3,683

※ 자료 : 통일부(2004).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계자료.

확대하거나, 탈북 당시 청소년이었던 연령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층의 비율은 약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초하여 청소년층의 수를 30%로 가정해 보면, 현재까지의 국내 입국 북한이탈 주민 7,687명 중 2,300명 내외가 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3>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 중 청소년층의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은 모두 737명이며, 그 중 무연고 청소년은 136명에 이른다. 이러한 무연고 청소년의 규모는 북한이탈

<표 Ⅱ-3> 국내 입국 북한이탈 아동·청소년(무연고 포함) 현황(2003년 기준)

(단위 : 명)

입국년도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무연고	합계
1999년		5	9	7	5	26
2000년		1	9	31	10	51
2001년	5	13	29	60	29	136
2002년	14	15	50	126	55	260
2003년	12	19	74	122	37	264
합계	31	53	171	346	136	737

※ 자료 :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2005). p. 69.

청소년 중 무연고의 비율이 22.5%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비율은 결코 적은 수치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개입은 일반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무연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Ⅱ-4>에서와 같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아동·청소년 중 무연고 청소년을 제외한 601명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중·고 학

<표 Ⅱ-4> 국내 입국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대 분포

(단위 : 명)

연령	입국년도					연령별 합계
	1999	2000	2001	2002	2003	
3세 이하	-	-	5	14	11	30
4세	-	1	2	5	4	12
5세	2	-	1	1	1	5
6세	2	-	2	4	6	14
7세	1	-	8	5	9	23
8세	2	2	4	11	7	26
9세	1	-	1	7	8	17
10세	-	1	10	4	12	27
11세	4	4	5	7	8	28
12세	1	1	4	10	13	29
13세	1	1	5	11	12	30
14세	1	4	6	13	14	38
15세	1	3	5	18	12	39
16세	1	2	8	18	15	44
17세	2	6	6	11	32	57
18세	-	6	13	22	14	55
19세	2	7	10	22	26	67
20세	-	3	12	21	24	60
합계	21	41	107	204	228	601

※ 자료 :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2005). 70쪽.

령기에 해당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학력격차 및 또래집단과의 문화 이질화 현상 등에 기인한 학교부적응 현상으로 우리 사회 적응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주로 성인 중심의 자립·자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중·고 학령기에 해당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국내 입국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대부분은 제3국 체류 경험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입국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와 이들의 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북한이탈 주민은 10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주재국 정부의 비협조와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된다면 단기간에 대규모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자연히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재외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

(1) 재외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

재외 북한이탈 주민은 대부분 신분상 불안으로 인해 은신해 있거나 거처를 자주 옮기고 있어 그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정확한 공식 집계보다는 현장 상황을 토대로 한 추산이 발표되어 왔다. 그 추산 규모는 발표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정부관계자와 민간단체 실무자 사이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재외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 또한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외 북한이탈 주민의 현황을 추정한

후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 중 청소년층의 비율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추정해 보는 것도 재외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외 북한이탈 주민은 중국, 러시아 외에도 태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에 거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탈북이 용이하고 조선족 동포로부터의 보호나 지원이 가능하며, 수심이 깊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두만강 지역이나 산세가 험준한 백두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지역에서 북한이탈 주민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이 아닌 지역, 즉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으로의 탈북 역시 1차적으로는 중국 지역에서의 거주 또는 경유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재중 북한이탈 주민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재외 북한이탈 주민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재외 북한이탈 주민의 추산은 주로 중국 지역의 북한이탈 주민 규모를 추산하는 것으로 그 과정이 편중되어 왔다. 통일부가 2005년 2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 주민의 규모는 중국 정부가 1만 이하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관련부처 추산은 2~3만 명, 그리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3만 명 정도로 추정[1]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 북한이탈 주민을 돕고 있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약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2]하고 있다. 추정 근거로 1998년 7월 윤여상(2002)에 의해 시도된 중국 현지조사 결과와 1999년 '좋은벗들'에 의해 실시된 중국 동북3성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실태 및 인권침해 양상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여상 등은 중국 내 북한이탈 주민의 대부분이 신분에 따른 위협과 언어소통, 친척원의 원조 등을 이유로 조선족이 집단 거주하는 연변자치주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판단 아래, 조선족 거주 지역의 취락 구조[3]와

1) 김귀근(2002. 3. 14). 조선일보.
2) 길은배·문성호(2003). 161쪽.
3) 조선족의 취락구조와 인구분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혜숙(1994).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연변대학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참조. 윤여상(1998a). 북한이탈주민 실태와 지원체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72쪽 재인용.

인구분포 상황[4]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중 북한이탈 주민의 수를 추산하였다. 농촌지역을 조사한 결과, 조선족 마을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 4~7명씩 북한이탈 주민이 은신하고 있으며 동일규모의 조선족과 한족 혼합마을의 경우에도 평균 2~3명씩 북한이탈 주민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모에는 농촌지역과 도심지역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토대로 윤여상은 북한이탈 주민의 규모를 대략 전체 조선족 인구 200만 명의 5% 수준인 10만 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좋은벗들'은 1998년 1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중국 동북3성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 실태 및 인권침해 양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지역은 동북3성 29개 시·현에 속한 총 2,479개 마을[5]로, 조사는 조사대상 마을 내 거주민 3~5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그 마을에 북한이탈 주민 관련 현황을 파악한 후 조사 마을 내 북한이탈 주민과 직접 인터뷰(총 872명)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가 진행된 2,479개 마을의 총 주민 수는 1,652,180명이며 조사된 북한이탈 주민의 수는 28,472명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비율은 총 주민수와 대비할 때 전체의 1.7%에 달하였다. 이 비율을 근거로 조사마을이 속한 29개 시·현(총 주민 수 1,181만 명)에만 분포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수를 최소 14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좋은벗들, 1999: 11-29). 또한 29개 시·현의 인구는 전체 동북3성 인구의 11.3%에 불과하며 중국의 동북3성 외 중국 관내 지역과 몽고 자치구에도 상당수의 북한이탈 주민이 있다는 점,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꽃제비 청소년의 숫자가 파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수를 3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이금순, 1999: 10).

이외에도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는 1999년 10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5개 조사반을 파견하여 1,383명의 북한이탈 주민을 직접 면담한 후 「중국 내 새터민 현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

4) 1990년 중국 제4차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 총인구수 2,097,902명 중에서 동북3성에 1,794,74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조선족 총수의 97.1%를 차지하고 있다(심혜숙, 1994: 58-59).

5) 연변 조선족 자치주 내 1,566개 마을, 연변을 제외한 동북3성 내 913개 마을.

주민의 규모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곽해룡, 2005: 35).

이상의 재중 북한이탈 주민 현황 조사에 기초하거나 2000년 이전에 비해 최근 상대적으로 탈북 숫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의 규모는 대략 10만 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그 중 청소년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2002년 6월부터 10월 사이 한국 정착을 위한 교육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한 260명중 20세 미만의 청소년은 109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길은배, 2002). 또한, 앞의 북한이탈 주민 현황 파악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북한이탈 주민의 탈북 경향이 가족단위와 여성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청소년층의 비율은 자연히 약 30% 정도까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입국 북한이탈 청소년층의 비율을 고려하여 재중 북한이탈 청소년층의 규모를 추산해 본다면, 전체 재중 북한이탈 주민의 약 30%인, 3만 명 내외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중 북한이탈 청소년 규모'를 유추해 내는 작업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중국 내 북한이탈 주민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에 따른 현상인지, 아니면 북한이탈 주민의 숫자는 늘지 않거나 혹은 감소하고 있는데 기존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 주민들이 꾸준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에 따른 현상인지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길은배, 2002). 특히 최근 2~3년 동안 한국 입국 북한이탈 주민들이 크게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행을 돕는 브로커 및 민간 활동가들의 활동과 대사관 진입 등 대규모 입국 방식의 개발, 그리고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들이 가족을 데려오는 방식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섞여 있다. 따라서 국내 입국 숫자만으로 재중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을 추산하기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2) 재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실태

최근에 발표된 조사 자료로는 한국정치발전연구회 연구원으로 있는 윤여상 박사가 1999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중국 동북 3성 지역을 중심으로

7회에 걸쳐 40명을 면담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다. 이 조사 역시 표본이 너무 작고 대부분 현지 활동가나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고아원, 또는 은신처 등에서 실시되었다는 제한성이 먼저 눈에 띄지만,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탈출 배경과 생활환경, 욕구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참고자료로 사용할 만하다.[6]

우선 표본부터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 청소년은 남자 21명(52.5%), 여자 19명(47.5%)이다. 이에 대해 윤박사는 "중국지역 성인 북한이탈자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청소년의 남녀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자의 착오로 보인다.

뒤에 서술하겠지만 남자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조선족 친척이 있거나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거처할 만한 곳이 없고 당연히 선교시설이나 NGO를 찾게 된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몸을 팔 수 있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자력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다. 이 조사의 경우 고아원, 은신처 등에서의 면담이 주를 이루었으므로 당연히 남자청소년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이존해 있는 경우는 12명(30%)이었다. 탈출 동행자를 묻는 질문에는 '혼자서'가 8명(20%), '부모와 함께'가 12명(30%), 탈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여자청소년들의 비율이 70%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7]

연령별로는 7세 이하가 4명(10.3%), 8-13세 21명(54%), 14-18세 17명(35%), 미기입 1명이었다. 출신지역으로는 함경북도가 24명(60%)으로 가장 많았으

6) 이하 조사데이터는 윤여상(2002). 재중 탈북청소년 인권 실태와 대처방안. 통일부 주최 제1회 북한인권전문가 워크숍(비공개)에서 재인용하였음.

7) 좋은벗들은 98년 11월부터 99년 4월까지 5개월간 중국 동북3성 2,479개 마을에 거주하는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내 탈북자들은 3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조사결과 식량난민중 75.5%가 여성으로 결혼형태의 거주가 51.9%를 차지하고 있었다(이 결과 역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좋은 벗들이 주로 조사한 곳은 동북3성의 거주지로, 여성의 경우 마을의 일을 한다든지 결혼을 하여 살고 있으므로 거주지에서 발견되기 쉽지만, 남성은 대개 산 속의 벌목장에서 일하거나 특별한 일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지에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들 탈북여성들은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로 중국 농촌총각들과 결혼해 살아가거나 생존을 위해 결혼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아이를 낳을 경우 고액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하며 살고 있다.

며 다음은 함경남도(17.5%)였다. 좋은 벗들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조사에서도 함경도 출신 청소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청소년들의 경우 성인보다 북한 내에서의 이동, 국경 월경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표본에 있어서도 국경인근인 함경도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다.[8]

조사결과를 통하여 탈북청소년 및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조사에 참여한 40명의 북한이탈 청소년 중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19명으로 47.5%를 차지했다. 한쪽 부모가 없는 경우는 4명(10%), 부모가 모두 생'친지와 함께'가 6명(15%), '친구와 함께'가 5명(12.5%), '형제와 함께'가 4명(10%) 순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부모가 없는 고아인 경우로, 이들 대부분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부모와 함께 탈출한 경우에도 체포의 위험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아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9]

탈출 목적과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47.5%인 19명이 '배가 고파서'라고 답변했으며, '부모가 없고 의지할 곳 없어서'가 5명(12.5%), '가족과 함께 탈출'이 5명(12.5%), '잘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5명(12.5%), '돈을 벌기 위해서'가 3명(7.5%), 그리고 기타(3명) 순이었다. 청소년들에게도 '굶주림'은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북-중 국경을 넘어온 직후 잠을 어디에서 잤는가?' 라는 질문에는 볏짚 속, 강둑, 아파트 계단, 창고 등 비주거 형태로 보낸 경우가 14명(35%)으로 가장 많았고, 친척이나 조선족 집이 11명(27.5%), 교회가 4명(10%), 토굴·천막이 2명(5%), 밭 등 야외가 2명(5%), 기타 7명(17.5%) 등으로 답변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북한이탈 청소년 중 약 60%이상이 특별한 거주지가 없이 방

8) 압록강의 수심은 두만강보다 훨씬 깊어 평안북도를 통한 탈북은 어렵다.

9) 실제 한 번 탈북한 청소년들의 경우 송환되어 간다 하더라도 억압적인 체제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해 재탈북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북한에서는 '927그루빠'라는 것을 조직하여 별도의 수용소를 만들고 꽃제비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집단 수용하고 있지만, 그 곳에서 식량과 의복을 지급하여도 대부분이 기를 쓰고 그곳을 탈출하려 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역전 앞에 있는 8층 건물을 927수용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불을 찢어서 밧줄을 만들어 8층에서 타고 내려와 도망가는 정도라고 한다.

랑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족 친척의 집에서 잠을 잤다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조사 당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 거의 모든 탈북청소년들이 유랑 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조사에 응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는 고아원이나 은신처에 거주하고 있어 대단히 운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욕구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국내외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사는 이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80%(3명)가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2.5%(5명)이었다.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에는 전도사(목사)가 50%, '돈 많이 버는 것(상인)'이 17.5%,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7.5% 순이었고, 현재 소망을 묻는 질문에는 '공부를 하고 싶다(65%)', '가족을 만나고 싶다(10%)'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입국 경로 : 변화적 추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국내 입국 경로는 일반 북한이탈 주민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 경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 속에서 청소년 특성과 관련된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재 북한이탈 주민이 중국과 러시아 등 체류 국가를 떠나 한국이나 본인의 희망국가에 입국하는 방법으로는 관련국가 및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공식적 협조를 받는 방법과 여권위조와 밀입국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비공식적 방법이 있다. 국내외 북한이탈 주민 지원 NGO들 중 일부는 위의 방법을 상황에 따라서 혼용하는 방법으로 탈출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한국행은 1994년 러시아 지역 북한 벌목공들이 UNHCR의 협조 하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국한 이후 공식적 방법을 사용한 입국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공식적 방법에 의한 입국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전체 입국자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국제적 이슈가 되는

매우 제한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북한이탈 주민들의 한국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한 입국도 계속적으로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탈 주민의 비공식적 입국은 주로 중국에서 여권을 위조하거나 밀항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다. 현재는 중국을 벗어나 인근 국가로 진입할 경우에는 남한으로의 공식적인 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한 입국의 비공식적 방법은 중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이동이 어렵거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갖지 못할 경우, 또는 비공식적 방법이 성공 가능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통일연구원, 2003: 104).

이러한 입국 방법과 함께 최근 우리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입국 경향에 대한 변화적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통일연구원, 2003 ; 곽해룡, 2005 ; 길은배·문성호, 2003). 첫째, 무엇보다도 북한이탈 주민의 연령층이 다양화되어 유아와 청소년층 그리고 노령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층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국내 입국 북한이탈 주민 중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탈 주민의 연령층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된 데에는 최근 들어 가족단위 및 여성의 입국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가족단위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 증가이다. 가족단위 탈북은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그리고 유아 북한이탈 주민의 증가를 가져와 우리사회 적응에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족단위의 입국자 증가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셋째, 해외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재외 북한이탈 주민의 현지 체류기간이 점차 장기화되면서 국내 입국 북한이탈 주민의 현지 체류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현지 체류경험과 기간은 남한 입국 후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탈북과 입국 목적의 변화 추세이다. 최근 입국 북한이탈 주민과 중국,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의 상당수는 기존의 탈북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후반 급격히 증가했던 북한이

탈 주민의 탈북 사유는 대부분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식량구입과 경제적 빈곤의 해결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탈의 상당 경우는 단순히 식량구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한 이주의 성격이 많으며, 특히 정치적 망명자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탈 주민의 탈북 및 한국 입국 과정에 대한 주요 특징적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 한국 입국 전 체류 국가를 모두 선택하는 다중응답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8.2%가 중국을 선택하여 가장 높았고, 응답자 중 1개국만 거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은 46.9%로 조사되었다. 또한, 2개국 체류 27.5%, 3개국 체류 17.0%, 4개국 8.2%, 5개국이 0.4%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53.1%의 북한이탈 주민이 2개국 이상의 나라를 걸쳐 국내에 입국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탈북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 탈북이 77.2%로 가장 많았으며, 2회 탈북은 15.0%, 3회는 4.3%였으며, 4회 이상은 3.4%에 불과하였다(<표 II-5>). 이는 응답자의 2/3는 단 1회의 탈북 경험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약 96%가 2000년 이후에 입국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 탈북 횟수도 적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 주민의 제3국 체류기간은 평균 41개월로 나타났다. 조사된 데이터를 6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분류하면, 6개월 내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이 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5~60개월 만에 입국하는 북한이탈 주민은 129명으로 2순위, 43~48개월 만에 입국한 이들은 114명으로 3순위, 7~12개월은 96명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1년 미만 입국자의 경우는 남한거주 가족 및 입국 조력자의 지원을 받아서 단기간에 입국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5년 정도의 현지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 입국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여기에 사용된 통계수치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2005)가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를 위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입국한 자 중에서 13세 이상 국내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새터민 5,177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표 Ⅱ-5> 북한이탈 주민들의 탈북 횟수

횟수	명	비율(%)
1	1,032	77.2
2	201	15.0
3	57	4.3
4	17	1.3
5	8	0.6
6	6	0.4
7	5	0.4
8	5	0.4
9	2	0.1
10회 이상	3	0.2
계	1,336	100

※ 자료: 북한인권정보센터(2005).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p.34

결론적으로, 분석된 자료의 패턴을 살펴볼 때, 탈북 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입국하지 않으면 제3국 체류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2002년과 2003년 입국자 중에는 42개월에서 66개월 정도를 제3국에서 거주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입국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입국자가 가장 많았으며, 78개월, 84개월 등과 같이 장기간 제3국에서 체류한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이 많은 것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6개월 내외의 제3국 체류 경험자는 대부분 한국 내 가족, 친지 및 전문 브로커 등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국내 입국이 가능했기 때문이나, 그렇지 못한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중국 또는 베트남, 태국 등지의 제3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국내 입국을 모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체류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할 때, 국내 입국 북한이탈 청소년의 전망은 재외 북한이탈 주민의 전체규모와 이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재외 북한이탈 주민의 전체적인 규모는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탈 주민의 재외공관 진입 사태 이후 중국 당국의

단속강화로 월경자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단속이 약화되고 북한이탈 주민의 지원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형성될 경우, 한국 정부와 미국 등이 북한이탈 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 북한이탈 주민의 증가와 더불어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측은 북한의 북한이탈 주민 배출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정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난 해결과 체제 변화가 없다면 탈북 사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Ⅲ.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

1.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과정
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서의 문제점
3. 국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정착 지원 내용

Ⅲ.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

1.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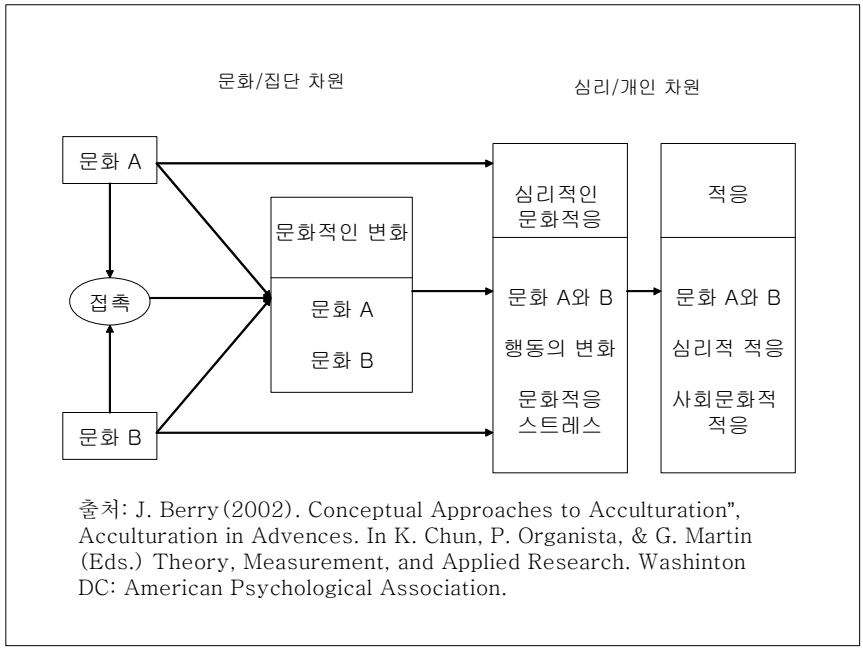
1) 적응이론

적응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 환경에 순응하기에 이르는 과정', 또는 '생물이 환경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형태, 습성을 변화시키는 현상'이다(이희승, 1994).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학자들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넓은 의미에서 적응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예로써, Lazarus(1976)는 적응에는 두 가지 차원의 과정, 즉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적응이란 한 개인이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적 의미로서의 적응은 한 개인이 그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은 사회적 환경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욕구좌절이나 불안,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비로소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적응이 그리 간단하기만 한 과정이 아니어서 개인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까지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다양한 적응양식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개인이 기존의 문화에서 나와 새로운 문화로 편입되는 과정에서의 적응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둘 이상의 문화가 서로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화의 과정을 문화적응이라고 한다(Redfield, Linton, & Herskovits, 1936). 문화적응 또는 문화변용(acculturation)은 주류 집단의 가치관, 규범, 언어, 행동 등을 포함하는 문화적 형태의 습득 내지는 동화로 정의내릴 수 있다(Gorden, 1964). 또한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자신이 속했던 사회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또 다른 사회로 들어가는 경우, 집단적인 문제(생

태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변화)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의 문화적응이란 한 개인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집단에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변화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Gibson, 2001). 이 때 개인은 일방적으로 한쪽 문화를 수용하고 다른 문화를 버린다기보다는 두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양쪽 문화 모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Gibson(2001)은 심리의 변화과정이 문화적응과정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인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하나의 심리적 과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문화적응에 관해 심리학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Berry는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문화적응을 문화적(집단) 차원과 심리적(개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그림 Ⅲ-1]참조). 그는 그 중에서 개인의 태도나 행동, 특성의



출처: J. Berry(2002).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Acculturation in Advences. In K. Chun, P. Organista, & G. Martin (Eds.)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Washin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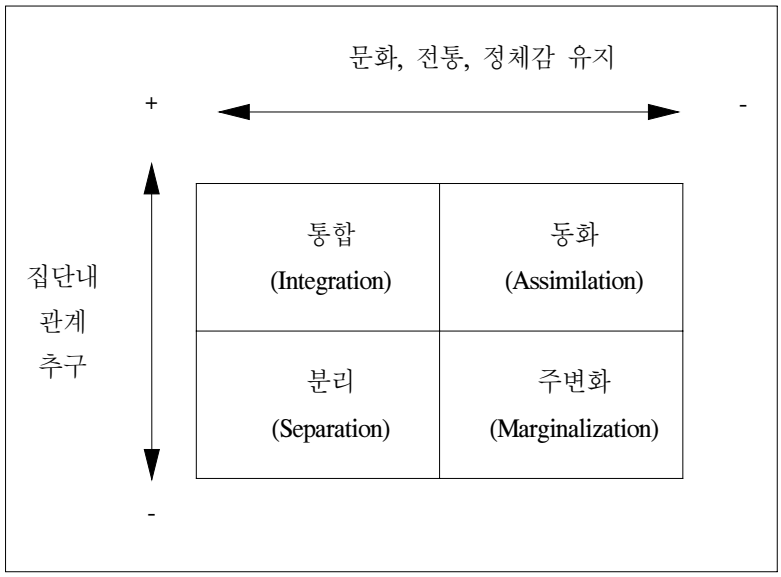
[그림 Ⅲ-1] 문화적응 이해의 틀: 문화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

변화를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심리적 차원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현상이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Berry, 1994). 첫째는 행동적 변화로서 이는 종종 개인의 가치관, 태도, 행동 등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두 번째 현상은 흔히 문화충격(culture shock)이라고 일컬어지는 문화적응적 스트레스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 개인은 정신건강이 취약한 상태에 이르러 혼란, 불안, 우울 등을 겪기도 하며, 신경성 질병, 소외감, 정체감 혼란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개인은 결국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불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개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다양하다(Berry, 1990). 예로서 내적인 요인으로는 개인이 경험한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들 수 있으며 외적인 요인으로는 소수집단에 대한 주류집단의 태도를 들 수 있다. Berry와 Kim(1988)은 그의 연구에서 두 문화 간의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주류 문화에 대한 괴리나 소외감을 덜 느낄수록, 그리고 주류집단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도가 클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이주민들의 문화적응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인 그들뿐 아니라 주류문화에 속해있는 기존 집단원들의 노력과 지원도 동시에 필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Berry와 그의 동료들(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2002)은 한 개인이 일련의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적인 성향과 반응 양식에 따라 문화적응의 유형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아래 두 개의 문화가 접촉하면서 개인이 겪는 문화적응 유형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구분을 위한 두 가지 기준 중 첫째는 개인이 속해 있던 이전 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도이며 둘째는 새로 경험하게 된 문화 집단에 접촉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이다.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구별된 네 가지 유형은 각각 통합형(integration), 동화형(assimilation), 분리형(separation), 주변화형(marginalization)으로 명명되었다.

통합형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는 동시에 새로



[그림 Ⅲ-2] 문화적응의 유형

운 정착 사회와도 충분히 접촉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와 기존의 사회에 대해 통합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을 견지하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사회적 체험을 개인 성숙을 위한 기회로 활용한다. 동화형은 이전 문화에서 비롯된 전통이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착사회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서 인격적 성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분리형은 외부세계와 정착사회 문화와의 연결은 거의 없고 자기 고유 집단의 주체성만을 유지하면서 정착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상태를 고수한다. 마지막으로 주변화형은 자신의 고유 집단과 새로운 정착 사회 모두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뜻한다. 주변화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외부 세계에 대해 적대적 태도, 소외 상태, 자아정체감 상실 등의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Ⅲ-2]와 같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러한 문화유형의 형성은 일련의 적응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성향과 반응 양식에 따라 결정된다. Berry는 문화유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적응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문화적응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접촉이전시기(precontact phase)로 실패, 좌절, 삶의 질 향상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동기나 전쟁위협, 가난, 인구과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새로운 문화권으로의 이주를 결심하는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접촉시기(contact phase)로 이 시기에는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여 문화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시작됨으로써 개인은 새로운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인 갈등기(conflict phase)는 이주자들을 받아들인 사회가 변화의 압력을 가해 문화적 압력이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시기로 개인의 정신건강이 취약해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위기기(crisis phase)는 갈등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긴장과 갈등이 계속됨으로써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상태가 지속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후회와 좌절, 자살, 공격적 행동, 가정불화, 술과 약물의 남용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응기(adaptation phase)는 갈등기와 위기기를 넘기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게 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Berry(1965)가 문화적응에 있어서 일련의 공통적인 단계를 거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Atkinson과 그의 동료들(Atkinson, Morton & Sue, 1998) 역시 문화적응 단계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며 소수 집단의 정체감 발달 모델(MID, 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Model)을 제안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수 집단의 정체감 발달은 <표 Ⅲ-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5단계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볼 때 다섯 단계를 거치는 동안 개인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자기 자신, 그리고 같은 소수민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점차 변화해 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주류 집단에 대한 태도변화는 U자 모형으로 높은 평가–비하–선택적 높은 평가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집단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주류 집단에 적응하는 중간 단계에서 주류하는 과도기적인 단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Ⅲ-1> 소수 집단 정체감 발달 모델(MID, 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Model)

MID 모델 단계	자신에 대한 태도	같은 소수 민족에 대한 태도	다른 소수 민족에 대한 태도	주류 집단에 대한 태도
1단계 순응	자기 비하	집단 비하	차별적	높이 평가
2단계 불일치	자기 비하와 자기에 대한 높은 평가사이의 갈등	집단 비하와 집단에 대한 높은 평가 사이의 갈등	소수문화위계에 대한 우위적 관점과 공유된 경험의 감정 사이의 갈등	집단 비하와 집단에 대한 높은 평가 사이의 갈등
3단계 저항과 흡수	자기를 높이 평가	집단을 높이 평가	다른 소수집단 경험에 대한 공감과 자문화중심주의 감정의 갈등	집단 비하
4단계 자기반성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근거에 관한 관심	불평등한 평가의 본질에 대해 관심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인종중심적인 관심	집단비하의 근거에 대한 관심
5단계 통합적인 명료화와 인식	자기를 높이 평가	집단을 높이 평가	집단을 높이 평가	선택적으로 높이 평가

출처. Atkinson, Morton, & Sue (1998)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p. 35.

그러나 Atkinson 등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모든 개인이 이 다섯 단계를 모두 거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전의 단계를 꼭 지나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다섯 단계간의 경계도 분명하다기 보다는 다소 모호하여 한 개인에게 두 단계 이상이 혼합하여 나타날 가능성도 다분히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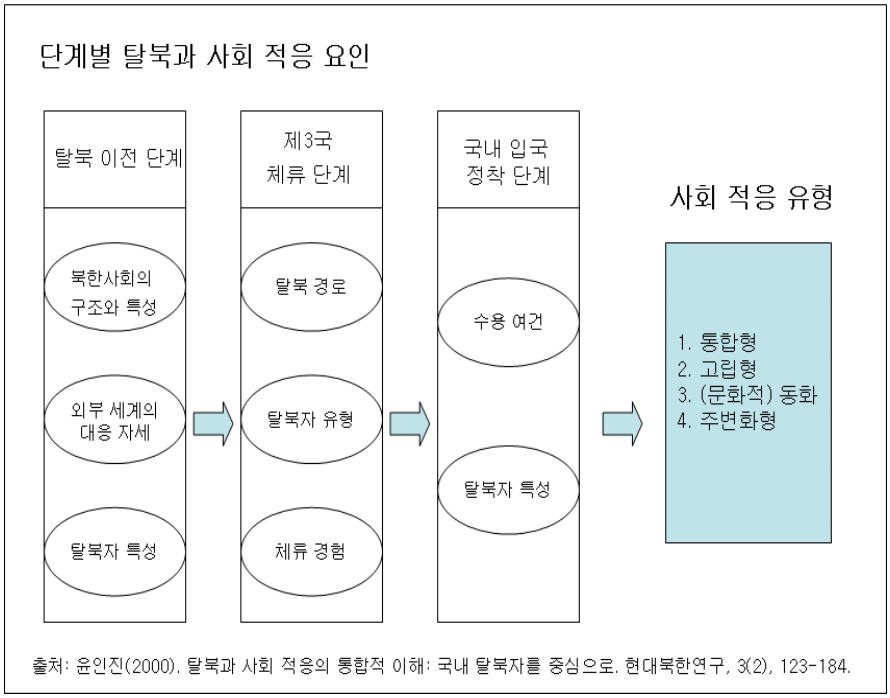
가 이러한 문화적응의 단계를 제시한 것은 개인의 문화적응을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며, 따라서 각 단계에 맞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현재 문화적응 과정상에 있는 개인들이 속한 적응단계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개인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북한이탈 주민들은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태어나고 일정기간의 생활을 한 후 남한이라는 이질적인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들은 남한사회에서 소수 집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새롭게 경험하는 다양한 자극과 환경에 대해 변화하고 적응할 것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윤인진(2000a)은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III-3]). 그에 따르면 탈북은 탈북 이전단계, 제3국 체류단계, 그리고 국내 입국·정착단계로 나뉘어 질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의 경험이 사회적응의 유형과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적응을 물리적(경제적)적응과 정신적(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적응정도를 바탕으로 네 가지 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각 단계별 경험들은 다음과 같다(윤인진, 2000a). 제 1단계인 탈북 이전단계에서는, 탈북의 규모와 동기에 있어서, 북한 사회의 구조와 특성, 외부 세계의 대응자세, 탈북자의 특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두 번째 단계인 제 3국 체류단계에서는 탈북경로, 탈북자 유형, 체류 경험 등이, 세 번째인 국내 입국·정착단계에서는 남한사회의 수용 여건과 탈북자의 특성이 북한이탈 주민들의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듯 윤인진은 각 단계별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Gibson(2001)도 서구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주민들의 문화적응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주이전 상



[그림 Ⅲ-3]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 모델

황을 아는 것이 중요다고 지적하였다. 이주 이전의 상황에는 그들의 모국에서의 사회적 배경, 교육수준, 도시 및 서구 문화를 접해본 경험, 그리고 모국을 떠나게 된 동기 등이 포함된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적응 정도는 물리적(경제적)적응과 정신적(심리적) 적응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윤인진, 2000a). 여기서 의미하는 물질적 또는 경제적 적응이란 "남한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 기술, 직업 등을 획득하는 것"이다. 한편 정신적 또는 심리적 적응은 "남한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사회에 귀속되어 있으며 사회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윤인진, 2000a). 완전적응이란 이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적응을 이룬 상태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가지 측면에만 적응한 부분적응과,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적

<표 Ⅲ-2>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의 유형

		정신적 적응	
		성공	실패
물질적 적응	성공	완전적응 (통합)	부분적응 (고립)
	실패	부분적응 (문화적 동화)	부적응 (주변화)

출처: 윤인진(2000a).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2)**, 123-184.

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적응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두 영역의 적응정도를 바탕으로 분류된 네 가지 적응유형을 가정할 수 있다. 윤인진이 가정한 네 가지 적응유형은 통합형, 고립형, (문화적)동화, 주변화형이다(<표 Ⅲ-2>)[11].

그에 따르면 통합형은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모두에서 적응한 상태로 완전 적응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에 고립형과 문화적 동화형은 부분적응으로 어느 한 측면에서만 적응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립형은 물질적 측면에서는 잘 적응하였으나 정신적 측면에서 적응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문화적 동화형은 그 반대의 경우, 즉 물질적 측면에서의 부적응과 정신적 측면에서의 적응상태를 의미한다. 부적응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변화형은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모두에서 부적응 상태를 보이는 유형이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에 비추어 볼 때 윤인진(2000a)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완전적응유형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북한 이탈자들이 부적응, 즉 주변화유형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부적응의 결과로 북한 이탈자들은 종종 일탈을 경험하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또한 그에 따르면

11) 이는 저자도 그의 논문에서 밝혔듯이 Berry(1987)가 구분한 네 가지 유형인 문화적응 유형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부적응 다음으로 일반적 유형은 고립형으로 북한이탈 주민들 중 많은 수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거나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한 공포, 남한 주민들의 편견이나 차별 등을 이유로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기영(2001)은 윤인진의 북한이탈자 사회적응의 기준이 성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남한사회 적응의 중요한 두 가지 차원으로 학업부문에서의 적응과 일반 사회문화적 적응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성인 북한이탈자들에게 경제적 적응이 사회적응의 중요한 요소이듯,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비롯하여 학업성취가 주가 되는 학업의 장에 적응하는 것이 사회적응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문화 적응의 둘째 요인으로는 남한 청소년 하위문화에 대한 적응, 즉 남한 청소년들과 무리 없이 어울리며 동질감을 느끼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덧붙여 가족이라는 일차적 집단 내에서 긍정적 관계의 지속여부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관련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윤인진이 언급한 측면과 달리 이기영이 지적한 사회적응 요소에는 중요하면서도 궁극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적응에 관한 언급이 빠져있음은 아쉬운 일이다. 또한 저자가 제시한 사회적응 요인에 비추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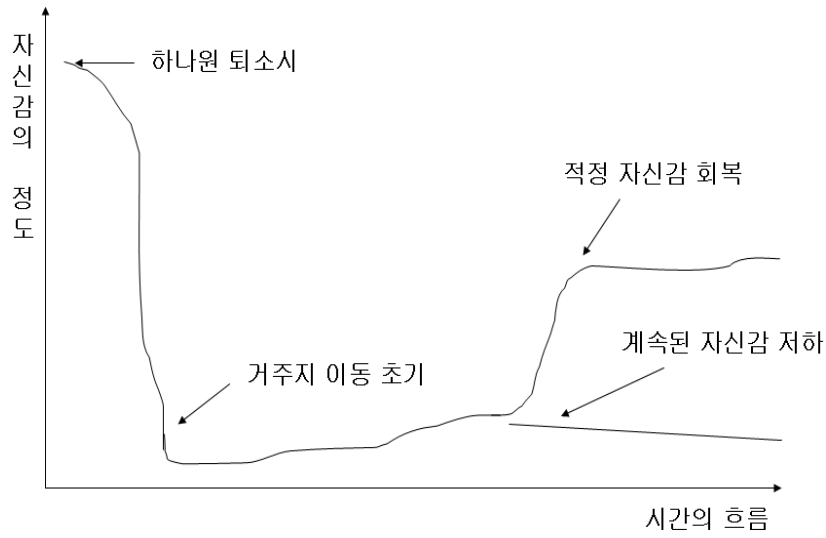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영(2001)의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다양한 부적응 요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업부진, 진학 및 진로설정에 대한 막연함, 비정규 교육기관에 다님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 남한 청소년들과 관계 형성에서의 어려움, 남한청소년 놀이문화와의 괴리, 신체적 열등감 등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부적응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교사와의 관계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심한 갈등이나 반항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장창호(2001)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하나는 남한 거주지에서 직접 생활하기 이전의 시기로 북한에서의 생활, 중국 등 제 3국에서의 생활을 거쳐 입국 후 하나원의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 순간까지를 포함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시기로 주거지에서의 초기 상황과 적응, 초기 대응에 따른 인과적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각 시기가 나름대로 특징적 변인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입국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예로써 북한에서의 생활 중에 경험한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식량난 등이 이후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량난에 시달린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의 또래에 비해 신체적으로 왜소하며 이는 그들이 남한사회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의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 3국에서의 경험 중 적응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심리적 불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로 이동한 후에는 주거지의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적응과정 속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겪기도 한다. [그림 Ⅲ-4]는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보이는 자신감의 변화양상이다(장창호, 2001). 장창호는 [그림 Ⅲ-4]에서 보이는 자신감의 정도가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상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림에서 말하는 거주지 이동초기는 하나원 퇴소 후 1~2주가 지난 시기이며, 적정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일반적이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2~3년까지도 자신감의 저하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 유형 및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유형은 적응정도에 따라 완전적응, 부분적응, 부적응으로 나누



출처: 장창호(2001).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5, 203-235.

[그림 Ⅲ-4] 사회적응 과정에서 자신감의 변화

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사회적응과 심리적 적응이 대표적이다. 사회적응에는 학교 및 교우 생활에 있어서 원활함의 정도 등이 포함되며 심리적응에는 남북한 사회 및 자신에 대한 만족정도 등이 포함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로 이주하기 이전의 모든 경험들과 남한사회에서의 경험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들의 전반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적응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모두 완전적응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다양한 적응정도를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서의 문제점

1) 개인적 측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신체적 특성, 종교 등을 포함하였다. 각 세부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령

일반적으로 서구사회에 이주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 Haines, Rutherford, & Thomas, 1981; Meredith, Wenger, Liu, & Harada 2000)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소래(1997)의 연구에서도 30세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30세 이하의 집단이 30세 이상의 집단에 비해 더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적응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거나(박윤숙, 2006), 오히려 낮은 연령이 사회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인 경우(김형태, 2004)도 보고되었다. 박윤숙(2006)은 14-24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원이 많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이나 연령에 따른 남한사회 적응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9-24세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명자·김동민·권해수·이소영·이희우(2003)의 연구에서도 또한 연령에 따른 문화적응 정체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우택·유시은·조영아·엄진섭·서승원·홍창형(2005)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한사람 이해에 어려움이 많으나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나 경제 및 주거 불만족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주민 중 성인을 위주로 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남한사회 적응 및 만족도에 미치는 연령의 영향이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김형태(2004)는 16-23세 사이의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9세 이하의 연령집단에서는 22%만이 사회적응을 하였으나 20세 이상인 경우에는 75%가 사회적응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응이 빠르고 용이하다는 기존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이는 저 연령층의 북한이탈 주민들이 더 많은 문화 충격과 정신적 혼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선한승, 1995)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21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우택(1997)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기존의 서구사회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전우택(1997)은 의사소통 가능과 풍부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성숙이라는 두 가지 점들을 들어 설명하였다. 의사소통의 가능이란 이민자들이 낯선 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언어적 어려움이 적음을 의미한다. 서구사회 이민자의 경우는 대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로 이주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언어습득이 빨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응의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이주와 같은 경우는 같은 언어의 사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적기 때문에 낮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남북한의 대치상태에서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이주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은 연령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상의 어려움 등이 겹치게 되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삶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건강적 어려움을 다루는데 미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erry(1987)도 연령대가 높은 이주자라 하더라도 다양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만족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연령의 이주자가 높은 연령의 이주자에 비해 적응수준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 및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

수록 사회적응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개인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는 상황의 특수성상 오히려 연령이 높을수록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이 빠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성별

서구사회에 정착한 이주자들의 적응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성별이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Gibson, 2001). 미국으로 이주한 소비에트 유태인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Birman & Tylor, 1994)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는 미국문화에, 남자는 러시아 문화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에서의 남녀의 차이는 청소년 집단에서도 보이고 있다. 청소년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적응과정상의 어려움을 덜 겪는다고 보고하였다(Gibson, 1997; Waters, 1996).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들도 남한적응에 성차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진경(2002)이 14-62세까지의 북한이탈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 주민들은 성역할 측면에서 남한사람들에 비해 더욱 정형화된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남자들은 여자보다 보수성이 더 강하며, 북한문화를 더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윤여상(2001)은 그의 연구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문화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전우택 등(2005)의 연구에서는 남한사회 적응 초기에는 여성들이 더 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북한에 동조하는 의식도 강하며, 정신신체 건강만족도도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적응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년 후에는 정신신체 건강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여자는 남한사회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반면 남자들의 의식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남녀 간의 변화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 부부간의 갈등을 포함하여 북한 남녀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남한사회 적응에서의 성차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김형태(2004)는 여자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심리적응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북한이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서구이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박윤숙(2006)은 남한사회 적응에서의 성차는 존재하지만 그 차이는 적응정도의 차이라기보다는 적응유형의 차이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심리적 부적응 유형에서의 성차를 언급하였는데, 남자의 경우는 일탈행동이, 여자의 경우는 우울이 가장 주된 부적응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명자 등(2003)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정체감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의 적응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서, 적응유형과 관련하여 여자청소년들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우울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일탈행동이 주된 유형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응도 수준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적응의 어려움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별과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적응 수준의 차이와 더불어 적응 유형의 차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신체적 특성 및 건강상태

신체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낮으며(박경애, 2002; 신혜숙·백승남, 2003), 열등감을 갖는(Marlene & Kelly, 2004)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신체상의 부정적인 경향은 사회적 여건상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서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되풀이해서 보고되고 있다(곽금주·문은영, 1993; 임인숙, 2004). 한편 신체 성숙 속도에 따른 적응수준에 있어서도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이춘재·오가실·정옥분, 1991), 남학생 집단에서는 신체적 성숙이 빠른 집단이 늦은 집단에 비해 자신감 및 생활사태 대처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여자의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집단에서만 성숙이 빠른 집단이 보통 집단에 비해 정서적으로 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신체적으로 왜소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표 Ⅲ-3>). 북한에서는 1990년에 들어서면서 식량 배급량이 줄어 거의 모든 계층 주민들의 영양상태가 극히 취약한 상황이다(임원혁, 1998). 예로써,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럽연합(EU)은 1998년 가을, 북한 내 8개 지역에서 7세 미만의 어린이 1,8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62%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장기적인 영양부족으로 발육부진 상태에 있으며 16%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였다(연합뉴스, 2000년 북한연감, 2000). 또한 8세 정도의 남자아이로 보이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는 조사결과 15세 소녀(고등중학교 3학년)로 밝혀지기

<표 Ⅲ-3>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별 HAZ*

	남아			여아		
연령(세)	N	HAZ	SD	N	HAZ	SD
0-5	2	-.43	1.35	1	-.23	.
5-10	19	-1.02	.92	22	-.75	.99
10-12.5	22	-1.27	.96	17	-1.24	1.50
12.5-15	24	-1.86	1.19	28	-1.46	1.36
15-17.5	38	-1.65	1.39	31	-1.35	1.14
17.5-20	47	-1.32	1.00	32	-1.25	.94

* HAZ: Height-for-Age Z-score: 나이 대비 신장 표준편차 점수
출처: 박순영(2005). 성장발육-생물인류학적 연구.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 투코리아: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243-259).** 서울:한양대학교출판부.

도 하였다(윤여상, 1998b).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육은 상당히 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윤영(2005)은 북한이탈 아동들과 같은 연령의 남한아동을 비교해 보면 신장은 최소 3cm에서 최대 30cm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순영(2005)은 남한의 아동 및 청소년의 표준신장과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신장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십대 청소년들에게서 남북한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한의 청소년들이 북한이탈 청소년에 비해 더 빨리 사춘기에 이르는 것으로 인한 성장속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은 남한 청소년의 평균 신장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있다. 신체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신체적 왜소는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등을 불러일으켜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장창호(2001)는 그의 연구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또래에 비해 작은 키와 덩치는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심리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이기영(2002)도 그의 연구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발육부진과 영양결핍 등으로 인해 남한 또래에 비해 신체적으로 왜소하며 거기서 비롯된 위축감이나 열등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건강상태는 왜소한 체격과 더불어 적응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신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소래(1997)는 18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 14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민의 건강상태는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Lee(1993)의 연구결과나 난민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Hermansson, Timpka, & Thyberg, 2002)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북한 청소년들의 신체적 왜소함은 남한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체격의 왜소함은 여자보다는 남자들에게 더욱 민감한 요인이라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신체적 왜소함은 남자 청소년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양호하지 못한 건강 상태를 가진 집단은 건강이 양호한 집단에 비해 남한사회의 적응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 종교

전우택(1997)은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 중 종교를 갖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적응도 및 신체 건강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흥미롭게도 종교를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월수입이 더 적으면서도 신체 및 정신적 만족도와 건강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우택은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있어서 종교가 남한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길은배·문성호(2003)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 중 비교적 사회적응을 잘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길은배·문성호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종교활동 그 자체의 영향보다는 종교단체 안에서의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도움이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한편 최승주·전우택·정우진(2005)은 남한에 정착한 지 24~60개월 된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49명을 대상으로 종교와 우울정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종교활동 여부 및 종교 성향이 그들의 우울증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수(2003)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종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종교에 대한 갈등과 동요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종교를 남한사회 적응의 저해 요소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탈 주민들은 북한이탈 이후 남한사회에 정착하기가지 종교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의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도움이 크게 작용하는 남한사회 정착 초기에는 종교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면 종교로 인한 갈등과 동요

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종교가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며 종교의 도움은 특히 정착 초기단계 적응에 결정적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일정시간이 흐른 후에는, 깊은 신앙심이 없는 경우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사회적 측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측면으로 가족, 남한 및 북한출신 친구, 후원자 등 사회적 지지원을 포함하였다.

(1) 가족

한 개인에게 미치는 가족의 영향은 실로 지대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특히 부모의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는 부모-자녀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가족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로써, 가족과 함께 남한에 입국한 청소년들은 단독 입국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도 있고, 외로움이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적을 수도 있다. 윤인진(2000a)은 북한이탈자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요인은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인 북한이탈자의 경우 배우자는 정신적 안정을 높이며, 남한에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적, 심리적으로 빨리 안정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족의 기능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 가족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guyen(1982)은 동남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민가정 안에서의 세대 간 분리[12]가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Mirsky(1997)는 구소련에서 서구사회로 이주해온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민자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민자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질수록 그들의 적응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연구 방법에 따라 다소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홍순혜·정익중·박윤숙·원미순(2003)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있어서 부모의 존재를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관되게 부모의 보호를 받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친척이나 후원자 등 부모외의 보호자 아래 있는 청소년들보다 남한 친구가 많았으며, 수업시간의 집중도도 높았고, 남한사회 지식을 더 즐겁게 배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이소래(1997)의 연구에서도 남한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이다. 낮은 스트레스에 대해 이소래는 가족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또 다른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가족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기영(2002)은 그의 연구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심각한 갈등이나 반항 등을 거의 표출하지 않고 있으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할만한 근거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질문에 응하기 싫다거나,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부담을 느낀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렇듯 부모에 대해 잠재되어 있는 갈등이나 반항은 있으나 그러한 것들이 겉으로 심하게 표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기영은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탈북가족 내에 존재하는 강한 가부장적 권위이며, 다른 하나는 부모가 "목숨 걸고 우리들을 남한

12) 세대 간 분리란 부모와 함께 이주한 청소년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부모보다 더 빨리 적응하고 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으로 데리고 왔다"는 청소년 자녀들의 인식이다. 이러한 특징은 청소년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강화시켜 겉으로 나타나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반항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장창호(2001)의 연구에서는 이기영의 연구에서 보다 가족의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 듯 보인다. 그는 가족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생활 적응에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부정적인 요소로는 세대 간의 갈등이나 부부 간의 갈등을 꼽을 수 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방식이나 생활규범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겪는 부모와의 갈등을 의미한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경우, 그들이 자율성을 요구하는 수준은 높아지는데 비해 부모는 그 수준을 받아들이지 못해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위적인 아버지와 상대적으로 평등을 요구하는 어머니 간의 갈등은 가정불화를 일으킴으로써 청소년 자녀들이 그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형태(2004)는 가족요인이 제 3국에서의 경험과 상호작용하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 및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북한을 이탈하여 제 3국에 머물 때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제 3국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서로에게 지지원이 되어 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지만,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는 가족 모두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가족 안의 갈등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가족, 특히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식처 및 지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반면에 남한사회에 대한 가족원들 간의 적응 수준에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남한사회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 후원자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거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거주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후원자는 사회 적응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후원자는 성인의 사회적응에도 긍정적이지만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그러다. 대개의 경우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서구사회 이주민과 달리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에는 가족이나 아무런 연고도 없이 단신으로 남한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단독으로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후원자는 과연 이들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함께 온 청소년의 경우와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홍순혜 등(2003)은 부모외의 보호자 아래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부모의 보호아래 있는 이들에 비해 남한사회의 적응 수준에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가 다른 어떤 형태의 보호자보다 청소년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모든 연구결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소래(199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제공자로서 양부모를 선택하여 응답한 경우가 친부모나 직장 동료 등 다른 이들을 사회적 지지제공자로 선택하여 응답한 경우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가 원가족과 단절된 북한이탈 주민에게 새로운 가족관계와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를 기꺼이 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형태(2004)는 부모와 떨어져 그룹홈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응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그룹홈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정서적인 지지원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 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윤숙(2006)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보호자 유형에 따른 적

응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후견인 보호 집단의 정서적 적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보호자 없는 집단의 정서적응이 높으며 부모보호 아래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적응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부모보호 청소년들이 후견인 보호청소년들이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 수준 및 남을 놀리는 등의 소극적 일탈 행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종합해 보면, 보호자나 후원자가 있는 것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보호자가 없이 생활하는 경우에는 후원자의 역할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편, 부모가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인다는 결과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후원자가 대체할 수 없는 가족이나 부모 고유의 역할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3) 친구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또래는 서로에게 사회적 지지원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정보 제공자, 역할 모델, 강화자 등 실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친구를 사귐으로써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심리적 지지를 받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장창호(2001)는 북한이탈 후 청소년들은 가정을 제외한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려우며 소속감의 결여는 소외감으로 연결되어 심리적 부적응을 낳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소외감은 같은 북한출신 친구들이나 남한 친구들을 사귀고 또래 집단에 속하게 됨으로써 극복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초기에는 같은 북한 출신의 친구를 사귀며 후기에는 남한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남한 친구를 먼저 사귀기도 하는 등 이러한 친구 형성 과정이 모든 사례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이탈 청소년 중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김미숙, 2004) 학교적응에 가장 도움을 주는 요인은 친구와의 우호적인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57.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비율은 특히 중학생의 경우는 약 72%에 이르러 다른 어떠한 응답비율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학교적응에 있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나 교사보다는 친구들의 영향이 더욱 중요해짐을 시사한다 하겠다.

친구관계는 남한사회 적응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교적응에 있어서 우호적인 친구관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과는 달리 학교 내에서 친구관계를 맺는 것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예: 박선경, 1998). 이러한 경향에 대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꼽은 이유로는 뒤늦은 진학으로 인한 동급생들과의 나이차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남한 청소년들의 편견,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문화차이 등이 포함되었다(박선경, 1998; 이기영, 2002; 장창호, 2001). 특히 동급생과의 나이차이로 인한 교우관계의 문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었다.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탈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또래친구들과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일부의 경우, 특히 무연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소외감 및 열등감,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한 또래와 패싸움을 하는 등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한범·이우영·이금순·전효관, 2003; 길은배·문성호, 2003).

김형태(2004)는 정서적 지지원으로서의 친구관계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가족 또는 가족 이외의 지지자가 있는 상태에서 남한친구나 북한출신 친구 중 적어도 어느 한쪽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면 심리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에서나 가족 이외의 정서적 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남한 친구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부적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회 부적응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는 남한친구와의 관계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만을 고려했을 때는 남한친구와의 관계가 가족이나 북한출신 친구 등 그 어떤 지지원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지지원으로서의 친구는 남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원으로서의 친구는 북한출신친구와 남한친구, 모두 포함되지만 남한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심리 및 사회적응에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남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그중에서도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 시기보다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3) 교육적 측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측면으로 남한입국 후 거치게 되는 하나원 및 하나둘학교에서의 교육여부와 거주지에 정착한 후 다니는 학교교육의 여부를 포함하였다.

(1) 하나원 및 하나둘학교에서의 교육

현재 북한이탈자들은 하나원의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있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원 안에 있는 대안학교의 성격을 지닌 하나둘학교를 다닐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북한이탈자들은 하나원에 머무는 12주 동안 약 500 시간의 남한적응 교육을 받는다. 이들이 받는 하나원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그 외에 6~8개월 정도 직업훈련을 받기도 한다. 하나둘학교 역시 심리치료와 문화적응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남한사회를 집적 보고 경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장창호(2001)의 연구에 따르면 하나원의 기본 교육기간을 교육대상자들은 무척 길게 느끼며 조기 퇴소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조기 퇴소

한 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적응과정에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장창호는 교육대상자들이 충분히 적응교육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원의 시설, 교육기간, 학습내용, 강사, 인적 자원과 대상자들 간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북한이탈자들의 적응과정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따른 차이는 길은배·문성호(2003)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길은배·문성호(2003)는 하나원에 대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로는 교육 내용이나 구성, 그리고 자원봉사자나 민간단체의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적합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원에 대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요약하자면 실제 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하나원 안에서 본 한국 사회와 밖에서 경험한 한국사회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원 및 하나둘학교의 교육이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은 하나원에서 경험한 교육내용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나원 및 하나둘학교에서의 교육내용이 실제 남한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일수록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수준은 높아질 것이며 적응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2) 거주지 정착 후의 학교교육

북한 이탈주민들의 학교교육이 남한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중 이소래(1997)는 남한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낮음을 보고하였다. 학교교육 경험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는 이유에 대해 이소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남한에서의 정규교육 경험은 학연을 중시하는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배경을 획득하게 되어 남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지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남한에서 학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직업인으로서의 준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직업이 있는 이주자들이 그렇지 않은 이주자들에 비해 더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일련의 연구결과(예: 이소래, 1997; Nwadiora & McAdoo, 1996)와도 일맥상통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남한에서의 정규교육 경험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학교 적응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남한생활을 시작한지 6개월에서 2년 6개월 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연령에는 100%가 학교에 다니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는 38%만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경 외, 2005). 이렇게 청소년들의 낮은 재학비율은 이들의 학교적응이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에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경(1998)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북한 간의 학습방법과 교수법의 차이로 인해 남한에서 학교공부에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에서 새로운 교과목을 접하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과목은 영어, 역사, 컴퓨터, 국어 과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영어와 사회 및 역사 과목을 어려워한다고 보고한 장창호(200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장창호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보이는 학습의 어려움은 남한생활 초기에 두드러지며 학습회복 시기는 개인의 학습의지와 주위환경, 심리적 안정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김미숙(2004)은 초·중학교에 다니는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 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넘는 이들이 대학교 이상의 진학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수학의 기초학력 점수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획득 준거인 60점 미만인 학생들은 국어의 경우 약 29%였으며 수학의 경우는 약 74%에 달했다. 특히 기초학력 점수에 미달인 학생들은 초등학교(국어, 수학 각각 18%, 67%)보다 중학교(국어, 수학 각각 43%, 82%)에서 그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에서의 학력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학교에서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학업성적으로 남한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학력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학교적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정도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볼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공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학업성적이었다. 이들의 학습 어려움은 특히 남한생활 초기에 두드러지며, 학습 어려움의 극복은 개인의 특성 및 주위환경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학습회복을 위해서는 개인 및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습 어려움의 극복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 성적을 포함, 학교생활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학교적응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남한사회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학교경험은 학력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새로운 배경을 획득하고 남한의 또래 문화를 접할 기회를 얻게 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학교성적과 무관하게 학교교육 경험 자체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4) 시간적 측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측면으로는 탈북시기 및 탈북 후 남한입국 전까지 제 3국에서의 거주기간, 그리고 남한 거주기간을 포함하였다.

(1) 탈북 시기 및 제 3국에서의 거주 기간

김형태(2004)는 제 3국에서의 경험을 개인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연구의 대상자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가족이 없거나 제 3국에서의 경험이 부정적이었던 경우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한에 더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저자는 제 3국에서의 경험과 가족요인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앞의 가족요인에서도 언급했듯

이, 가족과 함께 북한을 이탈하여 제 3국에서 머물 때에는 가족이 있는 경우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지만, 국내에 들어오고 난 후에는 가족의 존재가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제 3국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가족이 함께 탈출한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는 점은 장창호(2001)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가족이 함께 북한을 이탈한 경우보다 혼자 이탈한 경우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 3국에서의 무절제한 생활과 절도 및 범죄행위의 경험 등을 지적하였다. 가족이 함께 제 3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현지에서 교육을 받거나 보살핌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혼자 온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3국에서의 이러한 무절제한 생활이 지속될 경우에는 남한에 와서도 질서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올바른 학습 및 생활습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창호(2001)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 3국에서의 경험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부정적인 요인은 바로 중국 공안(경찰)에 잡혀 송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신매매에 대한 두려움, 언어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이후 남한 생활 적응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다른 연구들(예: 윤인진, 2000a)에서도 충분히 언급되었다. 특히, '꽃제비'로 불리는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제 3국에서의 생활은 영양상태가 매우 나쁠 뿐 아니라 정신적 피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들이 이후 성인이 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될 정도라고 하였다(윤인진, 2000a). 장창호(2001)가 지적한 또 다른 부정적인 요인은 제 3국에 있으면서 남한에 대한 불확실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갖는 것이다. 그로 인해 남한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갖는 경우, 남한행을 결심하고 결행하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한에 정착한 후 다른 현실을 경험함으로써 남한생활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장창호(2001)는 제 3국에서의 경험이 남한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으로 중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시장경제를 익힌다는 점과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제 3국 경험의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 윤인진(2000a) 역시 일치하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본주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생활양식, 경제 제체, 가치 체계 등을 학습하고 경험해 보는 것은 이후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남한 사회에 적응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받는 탈북자의 대부분이 동유럽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 외교관, 외화벌이 요원 출신들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일찍부터 자본주의 체제에 부분적으로나마 노출되어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제 3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남한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도 있고 적응의 어려움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제 3국에서의 경험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되며 특히 외상경험[13]이 높을 것으로 보여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남한 거주기간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회에서의 정착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안정 및 문화적응에서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예: Koser, 1997). 장창호(2001)는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생활 초기에 더 많은 부적응을 겪는다고 주장하며 부적응의 기준으로 불안 및 소외감,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우선 불안 및 소외감 영역을 보면, 초기에는 남한에 대한 정보부족 및 제한된 인간관계, 문화나 언어적 차이 등으로 인해 소외감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을 사귀고 특정 집단에 강하게 소속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보부족으로 인해 시작된 남한거주 초기의 불안은 이후 친구관계나 학업

13) 외상경험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언급은 다음 절에서 계속될 것이다.

등에서의 부적응이 지속되면서 후기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정착 초기단계에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초기의 불안이 후기 불안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자신감 영역에서는, 남한에서 실제 거주지로 이동한 초기에는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나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과 남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회복된다고 하였다.

전우택(1997) 역시 성인 북한이탈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적응수준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그중에서 남한정착 후 두 번째 해에는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아 남한정착 후 두 번째 해를 적응상의 위기기간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초기 2년까지의 생활적응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우영·이금순·서재진·전현준·최춘흠(2000)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정착 후 2년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남한사회에 익숙해지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며 4~5년 지나서야 비로소 남한사람들과 친숙해진다고 하였다. 이장호(1996) 역시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기간과 적응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착기간이 4~5년 정도 지나야 적응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전우택을 비롯하여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착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연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의 연구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한정착 후 두 번째 해를 위기기간으로 보며 정착기간이 4~5년이 지나야 적응단계에 이른다는 견해는 장창호(2001)의 연구에서 부적응이 지속되면 초기 불안이 후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연합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기술적 측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측면으로는

의사소통 및 북한 사투리 사용 등의 언어문제와 남한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의 습득정도를 포함하였다.

(1) 의사소통

북한이탈자들은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서 장애요인 중 하나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들고 있다(임민순, 1998). 남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의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사소통의 기회 및 빈도가 줄어듦으로써 북한이탈 주민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며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들에게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남북 간의 언어 이질화에 따른 문제이다. 즉, 사용하는 단어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차이, 북한 사투리 및 억양의 사용, 외래어나 한자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언어 사용 및 이해에 문제를 갖는 것이다(길은배·문성호, 2003; 김형태, 2004; 박선경, 1998; 장창호, 2001). 이러한 언어적 문제로 인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주변사람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박선경, 1998; 장창호, 2001). 또한 언어 및 의사소통의 문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 수업내용 이해에 대한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등 학교적응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2004; 박선경, 1998). 특히 김미숙(2004)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북한 사투리 사용 등 '말씨가 다른 것'에 대한 고민이 학교성적 다음으로 가장 고민되는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길은배·문성호(2003)는 북한말투의 어색함과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남한 청소년들의 놀림감이 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검정고시 과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언어 문제는 비단 학교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길은배·문성호(2003)는 경우에 따라 언어문제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남한의 표준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적응력을 높이는 과정과 결과라고 할 수 있다(장창호, 2001).

(2) 정보

장창호(2001)는 제 3국에 있으면서 남한에 대한 불확실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그로 인해 남한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갖는 경우, 남한에 정착한 후 다른 현실을 경험함으로써 남한생활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 정착한 이후 정보부족이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기영(2002)의 연구에서는 정보의 부족 및 부정확성으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길은배·문성호(2003)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차적 상담자인 그들의 부모는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남한의 교육 및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학지도를 맡고 있는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경우나 일부 종교인들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진학 문제에 대해 올바르고 깊이 있는 상담을 해줄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진학 및 직업 진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보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정보의 부족은 남한사회에 대한 몰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은 경제적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 길은배·문성호(2003)는 경제적 적응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북한이탈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이들에 비해 남한사회 적응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에는 정착 초기단계에서 은행의 개념과 사용방법, 본인들의 노력과 경쟁을 통한 경제원 획득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음을 볼 수 있다.

불충분하고 잘못된 정보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는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윤숙(2006)의 연구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가지는 지지망의 정보적 지지는 적극적 일탈행위 및 소극적 일탈행위의 감소를 가져오며 문화적응 및 가

정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래(1997)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로 나누어 유형별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상관을 보았다. 그 결과 정보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정보적 지지가 많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소래(1997)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즉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 이주 후 기존의 지식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축소됨으로써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적 지지는 새로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전략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과 대안을 갖도록 하고 개인의 스트레스 요인을 보다 현실적이고 덜 위협적인 수준으로 재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때문에 많은 양의 정보적 지지는 개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낮춘다는 것이다.

6) 탈북과정상의 문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탈북과정상의 문제는 탈북과정에서 겪은 외상경험과 그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symtoms; PTSD)의 여부 및 정도를 의미한다. PTSD는 "충격적(외상) 사건에 노출된 이후 나타나는 전반적인 불안장애(Dumas & Nilsen, 2003)"를 의미한다. 충격적 사건에는 학대, 자연재해나 전쟁, 사랑하는 사람의 심각한 상처나 폭력에 의한 죽음 등을 포함한다. 물론 외상적 사건의 경험이 반드시 PTSD의 발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표 Ⅲ-4>는 PTSD에 대한 DSM-Ⅳ-TR의 진단적 준거이다. DSM-Ⅳ-TR에 따르면, PTSD의 임상적인 증상을 크게 3가지, 즉 주입적인 증상, 회피증상, 과잉각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Dumas & Nilsen, 2003). 주입적인 증상은 PTSD의 핵심적 증상으로 심상, 사고, 지각들을 통한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주입적인 고통의 회상을 의미한다. 예로써, 외상에 대해 반복적인 악몽을

<표 Ⅲ-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DSM-Ⅳ-TR 진단적 준거

A. 다음의 두 가지가 나타날 경우 외상적 사건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실제 죽음이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처, 또는 자기나 타인의 신체적 보전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직면하게 된 사람
   (2) 개인의 반응은 강력한 두려움, 무기력, 또는 혐오스러움을 포함한다(어린이의 경우 이것이 비조직화되거나 동요된 행동에 의해 대체되어 표현될 수 있다).
B. 외상적 사건은 다음의 방식들 가운데 한 가지(이상)로 지속적으로 반복 경험된다.
   (1) 심상, 사고, 또는 지각을 포함하여 순환적이고 집중적으로 사건이 회상된다(어린 아이들의 경우 외상의 주제나 국면들이 반복적인 놀이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2)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꿈을 꾼다(어린이의 경우 내용도 알 수 없는 싸움하는 꿈을 구기도 한다).
   (3) 외상적 사건이 마리 재현되는 듯한 행동 도는 느낌(깨어있을 때 발생하거나 흥분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포함하여 경험을 되살리는 감각, 환상, 망상, 그리고 플래쉬백 삽화를 포함)을 갖는다(어린 아이들의 경우, 외상의 구체적인 재상영이 발생할 수 있다).
   (4) 외상적 사건의 어떤 측면을 상징화하거나 모방하는 내·외적 단서에 노출될 때 강력한 심리적 고통
   (5) 외상적 사건의 어떤 측면을 상징화하거나 모방하는 내·외적 단서에 노출될 때 생리적인 반응
C. 다음의 세 가지(또는 이상)에 의해 나타나듯이, 외상과 관련된 자극(외상 이전에는 존재 하지 않았던 것)의 지속적인 회피와 일반적인 반응성의 무감각을 경험한다.
   (1) 외상과 관련된 사고, 느낌 또는 대화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2) 외상을 회상시키는 활동, 장소, 또는 사람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3) 외상의 중요한 측면을 재생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보인다.
   (4) 중요한 활동들에 대한 흥미나 참여의 획기적인 감소를 보인다.
   (5) 타인으로부터 분리 또는 소원함의 감각을 갖는다.
   (6) 제한된 범위의 감정(예를 들어, 사랑하는 감정을 가질 수 없음)을 갖는다.
   (7) 앞이 차단된 미래에 대한 시각(직업, 결혼, 아이, 정상적인 생애주기를 가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갖는다.
D. 다음의 두 가지(이상)에 의해 지칭되듯이, 증가된 각성의 지속적은 증상(외상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경험한다.
   (1) 수면에 들거나 수면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2) 성미가 급하거나 분노가 폭발한다.
   (3) 주의집중이 어렵다.
   (4) 과도한 경계심을 품는다.
   (5) 지나치게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
E. 혼란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준거

B, C, D의 증상). F. 혼란은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디스트레스나 사회적, 직업적, 그 밖의 기능화의 중요한 분야의 손상을 유발한다. Specify if: Acute(급성): 만약 증상이 3개월 미만 지속될 경우 Chronic(임상):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Specify if: With Delayed Onset: 만약 증상이 스트레스 인자 이후 최소한 6개월 이후 시작될 때	

출처: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rth Edition, Test Revision(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꾸는 것을 들 수 있다. 회피증상은 외상을 둘러싸고 있는 기억이나 정서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증상이며 회피증상의 일종인 기억의 제거는 나이 어린 아이들보다는 청소년과 성인들에게서 빈번히 나타난다. 과잉각성은 수면에 대한 어려움, 과민성, 제한된 관심과 주의집중, 위협에 대한 지나친 경계, 그리고 비정성적인 놀람 반응 등을 포함한다.

탈북자들은 북한 내에서 뿐 아니라 탈북과정이나 제 3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많은 외상적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 그들의 정신건강에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전우택, 2000).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외상경험과 외상증상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 예를 들어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체포와 송환에 대한 불안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체포에 대한 불안에 인신매매의 불안이 더해져 이중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예: 윤인진, 2000a; 이기영, 2002; 장창호, 2001; 전우택, 2000; 조한범 등, 2003). 또한 이들의 영양 상태는 최악에 가까우며 극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인해 죽음을 가볍게 여기거나(윤인진, 2000a)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김윤영, 2005) 등 정신적 피폐가 심각하다. 그 결과,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불안감으로 인해 타인에게 자신을 잘 개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이기영, 2002).

한편 이소래(1997)는 탈북과정에서의 협박이나 쫓김 같은 심리적 외상의 경험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실제로 북한이탈 주민들의 심리적 외상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에 상관이 없었음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탈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 특히 심리적 문제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전우택, 1997)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상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적 경험을 다루기는 하였으나 외상적 경험이 PTSD로 이어지는지의 여부 및 PTSD의 정도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에 비해 강성록(2000)은 탈북자 외상척도를 개발하여 95명의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PTSD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외상경험은 탈북과정에서보다 북한 내에서의 경험이 더 충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의 내용은 공개처형, 고문, 구타, 처벌 등으로 외상적 사건의 정도가 심각하였다. 또한 외상척도에 따른 PTSD를 보인 사람은 전체 95명 중 26명으로 약 27%의 유병률을 보였으며 외상경험이 많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PTSD 발병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PTSD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불안과 우울수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다.

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희우(2004)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외상경험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북한에서나 탈북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상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할수록 불안, 우울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성록(2000)의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조영아·전우택·유시은·엄진섭(2005)은 2001년 탈북주민연구에 참여했던 200명 중 2004년 실시한 추적조사에 응한 15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상경험과 우울 간의 흥미로운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2001년에는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았던 반면, 2004년에는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남한사회 정착 초기에는 외상을 덜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우울 정도를 보였던 반면, 정착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서부터는 많은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더 높은 우울정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들

은 탈북과정에서의 외상경험은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우울을 덜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이는 외상경험을 많이 하는 것은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금명자 외, 2004; 강성록, 2000; Cheng & Kagawa-Singer, 1993)와는 다소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북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심각한 외상을 경험함으로써 PTSD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의 노출을 꺼리는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이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 PTSD의 정도 및 그로 인한 남한사회 적응 수준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국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정착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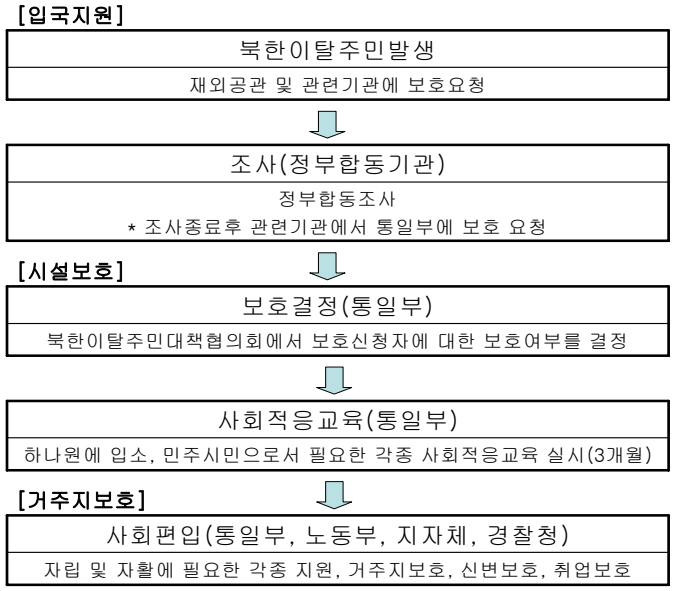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정착지원은 크게 정부차원의 지원과 민간차원의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제 3국에서 보호신청이 있은 직후부터 시작되며 민간차원의 지원은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에 정착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정착지원 내용을 정부와 민간차원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1) 정부차원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정책

(1) 정착지원체계 및 과정

현재 정부는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자립기반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정착을 목적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통일부, 2006).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

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체계는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입국조치, 초기 자립지원, 사후관리 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길은배 ·문성호, 2003). 먼저 입국조치를 살펴보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은 본인의 보호신청이 있을 경우 현지 공관 등이 임시보호조치와 함께 국내입국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입국 후에는 보호결정을 한 후 대성공사에서 탈북동기 및 북한에서의 행정 등과 관련하여 대략 1개월 이내의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후에는 사회적응 교육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하여 3개월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취적(就籍), 정착지원금, 주거알선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초기 정착지원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는 크게 정착지원과 신변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교육과정 수료 후 그들의 희망과 임대주택 사정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배정받은 후부터 시작된다. 정착지에서는 노동부의 취업보호담당자,



출처: 동승철(2005). '새터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그림 Ⅲ-5]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및 과정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 등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사회·종교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학교편입 및 공납금지원, 자매결연 등과 같이 다양하고 지속적인 거주지 편입 정착지원과 각종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신변보호는 출신신분별로 군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분리담당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체계 및 과정은 [그림 Ⅲ-5]와 같다.

이상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표 Ⅲ-5> 참조), 북한이탈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표 Ⅲ−5>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주요 정착지원 내용

구분	항목	내용
정착금	기본금	국내입국자 모두에게 1,000만원 기본금 지급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1,540만원의 장려금 지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의 가산금 지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000만원 지원금 지원
취업	직업훈련	무료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취업보호제)	새터민을 채용한 사업장에 급여의 1/2을 24개월간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46개 고용안정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알선 역할 담당
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급여 지원(月 약 36만원)
	의료보호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 의료 혜택
교육	대학 특례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등록금 지원	중・고 및 대학교 등록금 지원
정착도우미	-	새터민 1세대당 2명의 민간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생활 지원(전국 1,200명)
자격인정	-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전부 또는 일부 인정

출처: 통일부 비공개 자료

한 지원정책이 특별히 표면화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원 정책 중 비교적 청소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많아 보이는 지원 정책만을 선별하여 살펴보았다.

(2) 정부의 정착지원내용

① 사회적응교육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은 1999년 7월 하나원이 개소된 이후부터 2005년 12월까지 총 6,18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통일부, 2006). 2001년 8월 이전까지는 3개월 과정으로서 정서순화 및 심리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훈련 등을 500시간에 걸쳐 편성, 실시하였다. 이후 2개월간 336시간을 실시하였으나 2004년 10월부터 다시 3개월로 연장하였다.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북한이탈 주민들을 민주사회에 적합한 기본소양을 갖춘 바람직한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 주민은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교육받게 된다. <표 Ⅲ-6>에서와 같이 하나원의 주된 교육내용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남북 간의 언어 · 사고 ·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 원활한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및 직업 기초능력 훈련 등을 포함한다. 또한 남한가정 체험, 역사유적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남한인들과의 접촉기회도 제공되고 있다. 특히 취업연계교육, 사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교육,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교육 등이 강화되었으며, 2005년 8월부터는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업기초능력 훈련과 진로지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탈북과정 및 제 3국에서의 은신 도피 생활에서 악화된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으며, 하나원 내의 '하나의원'에는 현재 5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과거 성인남성이 주를 이루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여성 및 아동, 청소년의 입국도 크게 늘어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표 Ⅲ-6>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내용

구분	대상자 현황	교육내용
정서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해소	탈북, 제 3국에서의 은신 및 도피 생활 중에 생긴 어려움 및 입국 후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상태 불안	인성 및 적성 검사를 통한 개별 심리상태 파악 및 심리안정 및 순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적 이질감 해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상존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이론교육 및 현장학습 등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실시
진로지도 및 기초 직업훈련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전 기간 동안 진조지도 필요	전산·운전·요리·봉제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기능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점 편성 및 운영
특화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탈북여성	학습지도, 여성 상담 등
휴일 프로그램 문화재 답사	남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민간담체 주도의 현장탐방 등

출처: 조상호(2003).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정착센터 프로그램 개발.** 정부출연용역보고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여성단독 입국자의 경우에는 2002년 9월 이후 분원에서 이들을 위한 심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시행하고 있다. 아동의 경우에는 교육기간 중 하나원 인근에 위치한 삼죽 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음으로써 정규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2001년 2월부터 별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으로써 하나원내 대안학교 성격인 하나둘학교를 설치, 운영하였다(통일부, 2006).

하나둘학교는 하나원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민간단체인 '남북문화통합연구원'이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아동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긴급구호'차원에서 운영하여 왔다. 하나둘학교는 초기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응을

하도록 하기 위해 영어와 컴퓨터 등 기능적인 교육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중심의 교육은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체제로 인한 학습상의 어려움, 중국 등 제 3국에 체류함으로써 생긴 교육 공백, 그리고 피폐해진 심신을 바로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급을 유치반, 초등반(8-14세), 청소년반(15-20세 전후)으로 나누고 심리치료와 문화적응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내용을 전환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입학식과 졸업식을 통하여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게 하고, 실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를 통하여 남한 사회를 직접 보고 경험하도록 유도하였다. 청소년반을 중심으로 기본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남한학교 진학에 필요한 기초 교과목 학습, 남한문화 적응에 필요한 체험학습, 자치활동 등을 포함하였다. 남한문화 적응에 필요한 체험학습으로는 등반과 농촌에서의 민박 등을 포함시켜 화려하고 도식적인 남한사회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경찰서와 병원, 은행, 우체국, 시장 등을 경험함으로써 남북한 사회와 문화를 비교하고 토론할 기회도 제공하였다(길은배·문성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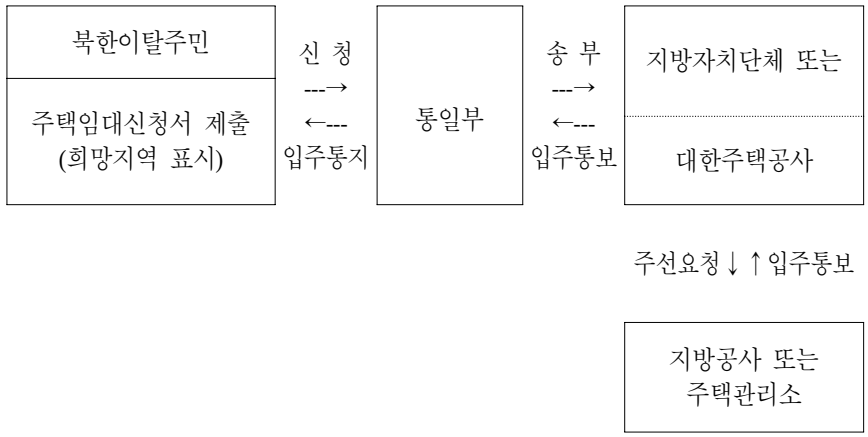
그러나 2005년 5월말로 남북문화통합연구원이 운영해왔던 하나둘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4년 4개월 만에 종료된 상태이다. 현재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계약직 1명과 자원봉사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초등 및 유치반 과정은 삼죽 초등학교에 위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정병호 외, 2005). 성인들과는 달리 남한 교육제도에 적응하여야 하는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문화통합연구원의 하나둘학교 교육프로그램 중단이후 전·후임자간의 긴밀한 연계가 없다면 몇 년간에 걸쳐 축적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경험과 데이터 및 인적 연계망이 단절되어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발전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다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②정착기반지원

정부는 사회적응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착금 지원방식은 2004년 12월에 수립한 자립 및 자활 중심의 종합대책에 맞추어 지급방식 등이 기존의 방식에서 일부 변경되었다. 정착금은 기본금과 가산금, 장려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2005년 현재 기본금은 1인 세대 기준 1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초기 지급금 3백만 원(1인 세대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는 2년에 걸쳐 총 23회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가산금은 노령자, 장애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려금은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립 및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각 최고 1,5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통일부, 2006).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에도 정부가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금액과 관리 방식은 일반 북한이탈 가정과 약간 다르다(길은배·조성호, 2003).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4천만 원 이내의 정착금을 분할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력이 낮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한겨레학교 등 후원회 지정을 통하여 그 정착금을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이들이 20세가 되면 그 관리권을 돌려받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연령 및 세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85㎡ 이하의 임대주택 제공과 함께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방거주자에게는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통일부, 2006).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20세가 넘어야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한겨레학교 등 후원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부적응 등을 이유로 거주 시설에서 이탈할 경우 마땅히 거주할 공간이 없어 또 다른 사회 부적응 문제를 낳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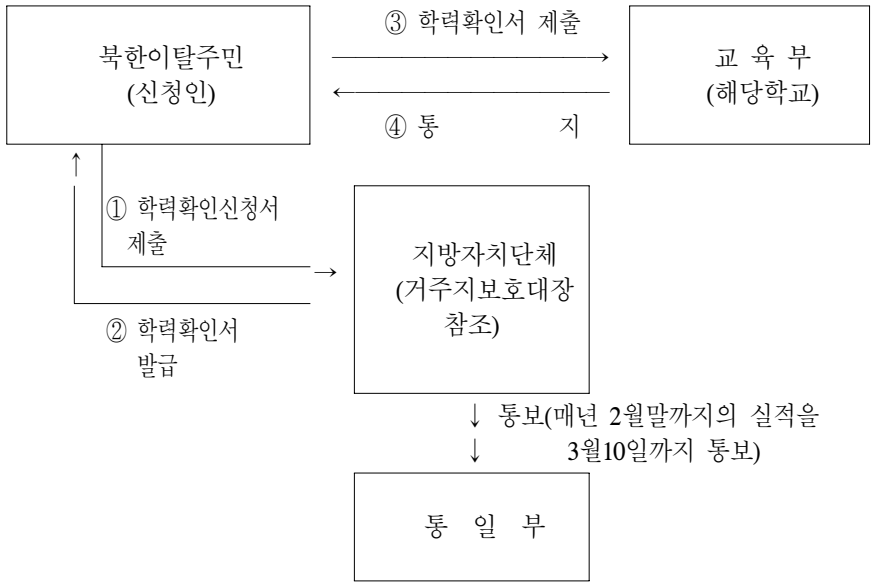


출처: http://www.dongposarang.or.kr (2006년 7월 22일 검색)

[그림 Ⅲ-6]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③교육 지원 및 학력 · 자격 인정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지원도 꾸준히 강화하였다. 정부는 북한에서 취득하였던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하여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편 ·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며 중 · 고등학교 및 국 · 공립대학교에 편 · 입학한 청소년들에게는 학비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정부와 학교가 각각 학비의 반액씩을 지원해주고 있어 사실상 이들이 대학진학을 할 경우 그에 따른 학비부담은 거의 없는 편이다.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은 연령제한이 있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편 · 입학하는 경우는 만 25세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편 · 입학하는 경우는 만 35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전문대 이상의 학교 지원기간은 편 · 입학한 후 4년(단,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계통은 6년)에 한한다. 2005년도에는 총 475명의 대학생이 6억6천만 원의 학비를 지원받았다(통일부, 2006). 학력인정 및 편 · 입학 지원 정책은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정책 중 비교적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은 정책이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길은배 · 문성호, 2003).



출처: http://www.dongposarang.or.kr (2006년 7월 22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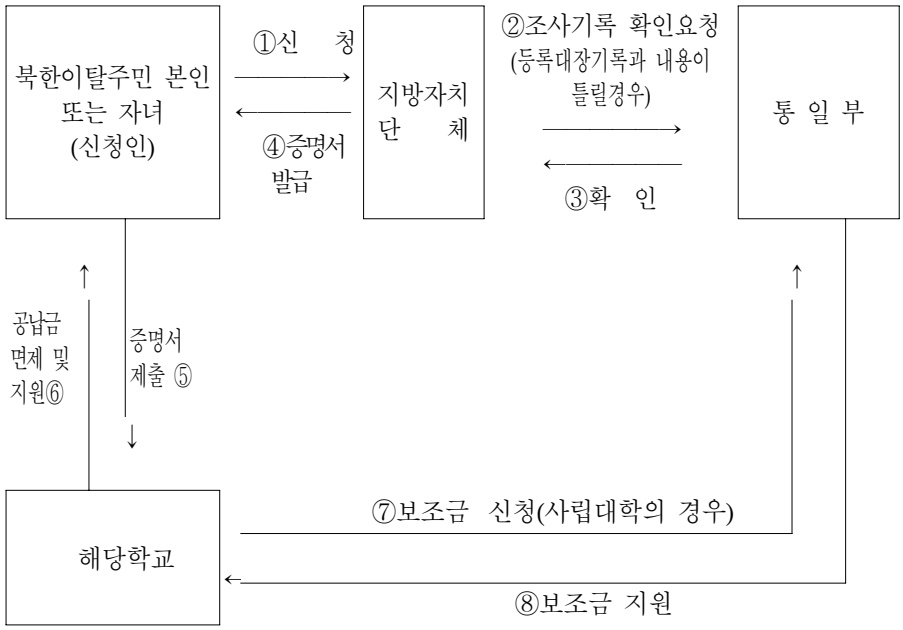
[그림 Ⅲ-7] 학력확인 인정과정

④ 취업 지원

현재 북한 이탈 청소년들 중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약 38%정도이다(정진경 외, 2005). 학교에 다니지 않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취업 및 그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포함하여 북한이탈 주민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격증과 관련하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남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자격인증에 필요한 보수교육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통일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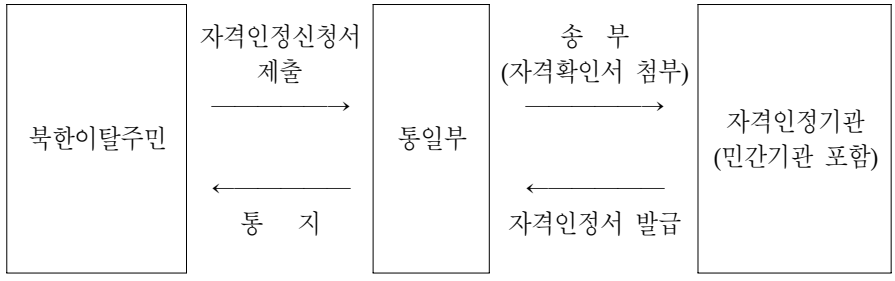
직업 훈련 및 취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노동부 산하 각 지방 노동청과 지방 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창구를 개설



*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경우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발급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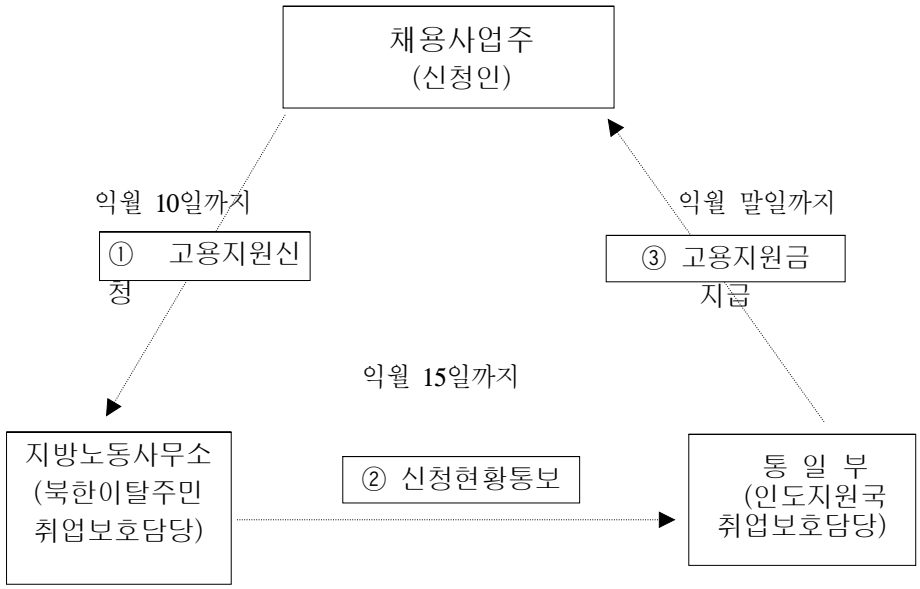
출처: http://www.dongposarang.or.kr (2006년 7월 22일 검색)

[그림 Ⅲ-8]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과정



출처: http://www.dongposarang.or.kr (2006년 7월 22일 검색)

[그림 Ⅲ-9] 자격인정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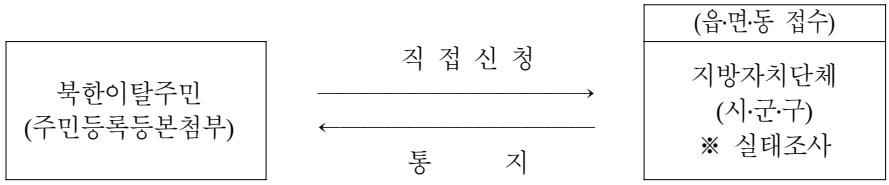


출처: http://www.dongposarang.or.kr (2006년 7월 22일 검색)

[그림 Ⅲ-10] 취업보호 신청 처리절차

하고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거주지역' 인근의 직업훈련기관을 안내하며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련기간 중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에는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통일부, 2006).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전문 진로상담요원의 지도로 개인의 적성,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사회에 진출한 후에는 노동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를 통해 직업훈련기관을 알선받아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통일부, 2006). 그러나 직업훈련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직종에 대한 직업



출처: http://www.dongposarang.or.kr (2006년 7월 22일 검색)

[그림 Ⅲ-11] 기초생활보장 신청절차

훈련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길은배 · 문성호, 2003).

그 밖에도 2000년부터는 북한이탈 주민 및 15세 이상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반(70만원 이내)을 2년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북한이탈 성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기술력이 낮을 뿐더러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 조항에 따라 청소년들에 대한 도움은 미미한 형편이다(길은배 · 문성호, 2003).

⑤ 국민기초생활보장

북한이탈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2000년 10월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정해진 보호대상 여건과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5년의 범위 내에서 생계비 등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통일부, 2006). 이 정책은 북한이탈 무연고 청소년들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월 평균소득이 1인 기준으로 57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재산 가액이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을 제외하고 1-2인의 경우 실거래가 3,3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북한이탈 무연고 청소년들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다.

⑥ 거주지 보호 및 신변보호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활동 강화를 위해 1999년 8월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등 행정적 지원과 지역사회관련 정보제공,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다(통일부, 2006). 현재 전국적으로 182명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다. 거주지에서는 정부 이외에도 사회·종교 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각종 생활상담 취업·결연 등 분야별로 특화된 다양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는 약 700여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이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위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⑦ 민간단체와의 연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3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접촉창구역할 및 민간단체의 통합·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 밀집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자방자치단체와 민간자원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2003년 전국적으로 13개가 결성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특화된 사회적응 정착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안내 및 적응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확대, 종합사회복지관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등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착도우미제는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 초기 지역정보제공, 생활안내 및 상담, 복지관과의 연계 등 초기 정착생활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활동수준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⑧ 청소년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시설로는 한겨레학교와 무지개청소

년센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겨레학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화차이에 따른 남한사회 부적응과 학력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개교한,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학교이다. 2005년 7월에 경기도교육청과 안성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을 인가받아 안성에 세워진 한겨레학교는 현재 학교법인 전인학원이 운영하며 중·고등학교 각 학년 1학급씩 모두 6학급 규모(각 반 20명씩 총 120명 정원)이다. 학생은 12~19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 무연고 청소년 및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학력과 학령의 차이가 심한 경우 등 남한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한겨레학교 학생은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반학교와는 달리 1년에 3학기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한겨레학교는 시작에서부터 잡음이 있어 왔다. 지역주민과 북한이탈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민간단체의 반대는 둘째로 하더라도 120명 정원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는 2005년 9월 개교 당시 25명의 학생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학교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겨레학교의 효과는 학교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 무지개청소년센터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6년 4월에 서울 종로구에서 개소하였다.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이들 중 과반 수 이상이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원 퇴소 후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 및 지원체제가 미흡하고 그나마 민간지원 단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무지개청소년센터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센터는 전국 거주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조사, 북한이탈 청소년 학력 · 신체 · 정서발달 등 종합적 측정 및 평가 등을 통한 사례관리, 진로진학지도체제 구축, 문화통합교육 및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하나원 · 한겨레학교 · 민간 대안교육단체 등 기존의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뿐 아니라 이주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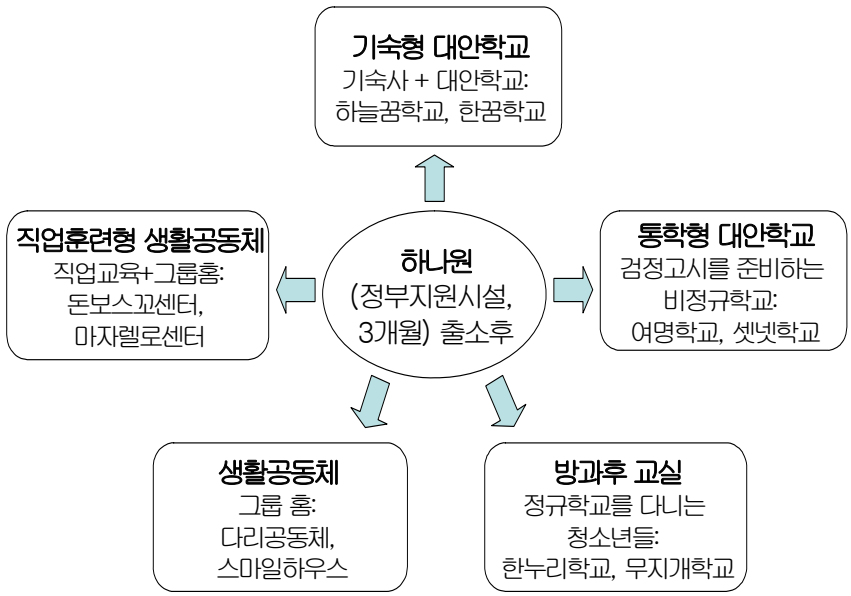
자의 자녀, 결혼이민자 자녀 등을 포함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무지개청소년센터 역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시범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활동상황이나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민간차원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정책

현재까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에서 정착단계까지 거의 모든 부문을 국가가 전담하고 있으며 일부분에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각 단체의 성격에 맞게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과 관련된 주요한 지원사업 역시 대부분 정부,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사업은 문화체험, 학습지도, 자매결연 등 부차적인 영역에 집중되어 왔다(강권찬, 2005).

그러나 국내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정착 지원에 있어서 종교 및 시민단체, 지역 내의 사회복지관, 전문가 집단 등 민간차원의 활동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민간단체의 활동은 지방에서도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무연고 청소년 탈북자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이들과 공동생활을 하며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와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착을 돕는 민간단체들로는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과 대안학교, 적응프로그램 실시단체 등이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들로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남북문화통합교육원(한누리학교), 다리공동체, 돈보스꼬센터, 마자렐로센터, 북한인권시민연합, 여명학교, 셋넷학교, 자유터학교, 피난처, 하늘꿈학교, 한꿈학교, 한빛복지관(하누리학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민간단체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형태는 다양하다(정진웅, 2005). 그중에서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흔한 형태는 공릉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무지개학교나 한빛복지관이 운영하는 한누리학교와 같이 방과 후 교실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외부의 지원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재정, 시설, 인력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그 규모나 교육내용에 있어 제한



[그림 Ⅲ-12] 민간차원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단체 형태

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다리공동체와 공릉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스마일하우스는 그룹 홈 형태의 생활공동체이다. 남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행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인 돈보스꼬센터나 마자렐로센터의 경우는 직업훈련과 생활공동체가 결합되어 있는 직업훈련형 생활공동체 형태로 운영된다[14]. 통학형 대안학교로는 여명학교가 있다. 또 근래에 들어 종교단체의 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기숙학교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대표적인 학교로는 하늘꿈학교와 한꿈학교가 있다.

각 민간 단체들은 그룹 홈, 대안학교, 검정고시준비, 방과후 교실, 무연고 청소년 보호시설(쉼터) 등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강조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

14) 천주교 살레시오 수도회에서는 북한이탈 여자청소년을 위해서 그룹홈 형태로 생활하면서 남한의 여자청소년과 섞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마자렐로센터를, 북한이탈 남자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역시 같은 형태의 돈보스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만 대부분 학력증진, 상담 및 심리치료, 남한문화체험, 검정고시 대비, 사회적응력 제공 등의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예절이나 대인관계기술의 습득, 여가문화의 습득, 진로탐색교육, 사회생활 체험과 봉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정진웅, 2005). 이러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능력을 길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검정고시나 대학입시를 대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즉, 입시나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남한의 공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과목들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셋넷학교의 교과내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철학 등의 기본 학습과목과 상담 및 예술 학습 체험과목, 현장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꿈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수학 등 7개의 정규과목과 성경, 중국어, 일본어, 컴퓨터 등 8개 특기과목이 수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룹 홈 형식의 다리 공동체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도우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거의 모든 단체들이 정규 교과과정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만일 사정에 의해 이를 담당할 교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라도 검정고시 대비교육을 시키고 있다. 혹 자체적인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의 검정고시학원에라도 다닐 것을 강하게 권유한다. 즉 거의 모든 단체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로 하여금 남한의 교육체계로 편입하는데 또는 사회진출에 필요한 학력을 갖추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정진웅, 2005). 이는 북한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학력의 차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 민간차원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리공동체

통일부산하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다리공동체는 현재 안산시 본오 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현재 16명의 탈북청소년과 실무자 6명 등 22명이 공동생활하고 있다. 다리공동체는 원래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떠돌아 다니며 살고 있는 탈북청소년들, 소위 말하는 '꽃제비'들을 데리고 와서 보살피는 곳이다. 중국에서 직접 데리고 온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가족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곳으로 이곳에 머무는 청소년들은 대개 인근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학습이 부진한 이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도우미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2)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학력 향상 프로그램[15]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학력향상 프로그램은 가정방문 학습지도 프로그램과 한겨레 계절학교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정방문 학습지도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국어·영어·수학·컴퓨터와 그 외 취약과목을 주1회 이상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겨레 계절학교는 매년 1월과 8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3주 동안 현직교사와 자원봉사자 등이 기초학습능력이 요구되는 전국의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합숙하면서 이들에게 기초과목 지도와 특별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2006년 1월에는 정교사 15명, 보조교사 4명, 학생 23명 등이 모여 제10회 한겨레 계절학교가 실시되었다. 수업은 영어(14시간), 국어, 수학(각 12시간), 영어(14시간), 과학, 역사, 사회, 민주시민(각 10시간), 특강(4시간) 등 총 94시간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특별활동은 미술반, 영화감상반, 태권도반, 노래부르기반, 탈춤반 등이 각각 총 12회, 18시간씩 진행되었으며[16] 그 외에도 자차활동, 개인 상담 및 진로상담

15) 출처: http://www.nkhumanrights.or.kr(2006년 7월 22일 검색)

16) 특별활동은 모든 활동을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활동을 하나씩 선택하여 참여하는 방식이다.

등의 활동도 이루어졌다.

(3) 셋넷학교[17]

2002년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응 주말학교로 시작한 셋넷교실은 교회 의 지원으로 설립된 똘배학교를 거쳐, 2004년 9월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공동체인 셋넷학교로 전환하며 교회의 지원에서 벗어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셋넷학교는 홀로 남한에 온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생활공동체였던 '늘푸른학교'와 남한 청소년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주말에 모여 공동 문화체험 행사를 운영했던 '셋넷교실'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통학형 대안학교로 개편한 것이다.

셋넷학교의 교과내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철학 등의 기본 학습과목과 상담 및 예술 학습 체험과목, 현장 체험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넷학교 역시 다른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검정고시에 통과시키기 위한 정규교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문화예술교육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교육이나 체험학습이 교과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 학교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학생은 16-24세의 청소년 약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로 19-20세의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셋넷학교의 교사는 교장을 포함한 상주교사 2명과 대학교수, 은퇴자, 대학 1학년생까지 다양한 이력을 가진 44명의 자원교사들이 있다.

(4) 여명학교[18]

여명학교는 남한 내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연령 및 문화적 차이로 학업과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문화 적응, 지식 습득의 기회 및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4년 9월 관악구 봉천동에 설립된 도시형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이다. 상가건물 3, 4층을 개조하여 학교 건물로 사용 중인 여명학교는 기숙학교가 아닌 '도시형 대안학교'

17) www.34school.net (2006. 7월 24일 검색)
18) 출처: http://ymschool.org (2006년 7월 22일 검색)

로서 일반학교와 같이 거주지에서 통학을 하고 있다.

여명학교는 16세 이상 25세 이하의 남녀 북한이탈 청소년을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따라 중등과정, 고등과정, 예비대학반으로 편성되며 각반 10명의 정원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학교 3년의 중등과정이 1년으로, 3년의 고등과정은 2년으로 압축되어 진행되며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한 검정고시 및 지식 교육이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남북한 비교학습을 통해 각 과목마다 남북의 지식을 비교, 연구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교과 수업 이외에도 성경 과목이 주당 한 시간 진행되며 토요일은 격주로 연극이나 뮤지컬 관람 등의 문화체험, 야외체육 시간이 있다. 또한 매월 둘째 금요일에는 한국은행, 삼성 SDS, 삼성전자, SKT 등의 기업체를 방문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여명학교는 18명의 교사가 재직하고 있으며 2005년 4월 현재 24명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다.

또한 여명학교 내에서는 북한이탈 청ㆍ장년층을 위한 자유터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자유터학교에서는 영어와 중국어 등 대학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을 야학 형태로 운영하며 월 1회 이상 문화체험, 노동,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5) 하늘꿈학교

하늘꿈학교는 2003년 3월 설립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기숙하며 공부하는 도시형대안학교이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하늘꿈학교에서는 고려신학대학원의 도움으로 기숙사를 제공받아 30명의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곳에서 대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서울 송파에 위치한 하늘꿈학교로 올라와 별도로 대학 특례입학 전형시험을 준비한다. 2004년 4월부터 운영중인 '대학진학반'은 영어와 논술, 수학 중심의 심화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천안과 서울에 4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주중에는 각 교과목 수업과 특성화 수업을 비롯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주말에는 사회참여와 봉사, 나눔의 시간 등의 현장학습을 한다. 하늘꿈학교

의 가장 큰 장점은 교사와 학생의 일대일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 학교의 학생은 모두 20여명이며 교사 또한 학생 수와 같은 20명이다.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인 교사들은 학생들과 일대일로 만나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멘토'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6) 한꿈학교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꿈학교는 2004년 6월에 개교한 기숙형 기독교 대안학교이다. 한꿈학교의 수업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등 7개 정규과목과 성경, 중국어, 일본어, 컴퓨터 등 8개 특기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꿈학교는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종교활동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한꿈학교 역시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다른 대안학교들처럼 검정고시 중심의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꿈학교의 특징이라면 영어와 제 2외국어 등 외국어 교육을 중시하며 학습의 일환으로 매월 현장 실습교육과 방학을 이용한 해외 어학연수 및 봉사 활동 및 국내 농어촌에서의 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7) 한누리 학교

남북문화통합연구원은 양천구 신월동에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학교 형식의 한누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 2월에 문을 연 한누리학교는 기초 학습과 숙제 지도,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배경과 욕구를 가진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제공은 정부보다는 민간단체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열악한 재정과 지속적 인력수급의 문제 등으로 인해 영세한 규모의 '긴급구호'차원의 보호와 교육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형편이다(정병호 외 2005). 앞으

로도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는 계속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련 사업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Ⅳ. 외국사례분석

1. 통독 이전 탈동독 청소년들 사회적응 사례
2. 미국이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사례

Ⅳ. 외국사례분석

1. 통독 이전 탈동독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사례

1) 독일의 이주 역사

독일역사는 소위 이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독일어를 사용해오던 독일어권 민족의 이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부유럽에 위치한 독일은 지리적으로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이웃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국경과 민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독일어권 민족의 이주역사도 유럽의 역사처럼 때로는 격동적으로, 때로는 강제적으로, 때로는 반인류적으로까지 진행되었고, 현재까지도 이주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 이주사의 생생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정부가 '이주(Migration)'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파란만장한 독일민족의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

우선 독일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주민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자. 첫째, 구독일제국의 영토에 거주했으나 2차 대전 이후 국경선 변경으로 인해 추방당한 독일인들을 추방자(Vertriebene)로 부른다. 둘째, 1989년 동구유럽의

19) Esser에 따르면 이주현상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발적인 결정에 따른 이주로서 추방이나 탈출과는 반대의 유형, 둘째, 지배국가가 흔히 식민지로 일컬어지는 피지배 국가에 자국민을 보내어 이주시키는 경우, 셋째, 주거지의 삶의 양식이 변화하거나, -종교적 핍박 등의 이유로 변화에 대항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동일한 민족이나 부족(ethnie), 사회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이주가 있다(Esser, 1980: 25). Esser의 유형 이외에도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박해로 국경을 넘는 이주,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추구하려는 경제적 이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주의 유형에는 'push-이주'와 'pull-이주'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한다. Push-이주는 이주의 목적이나 영향력, 결과가 이주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반면, pull-이주는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타지에 정착하는 양상을 띠는 부정적인 이주유형이다. 전자의 경우는 일자리를 찾아 자발적으로 외지로 떠나는 경제적 이주가 대표적이고, 후자의 경우는 추방이나 시민권, 국적박탈의 경우가 해당 된다(Goldbeck, 1994: 49-50).

사회주의 정권 몰락이후 동유럽에 살던 독일계 혈통을 지닌 동구 유럽인들이 독일로 이주한 경우를 '동유럽 출신 이주자(Aussiedler/Einsiedler)'라고 한다.[20] 셋째, 합법적 절차를 거쳐 동독정부의 승인을 받아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주민을 '동독출신 이주자(Übersiedler)'라고 부른다. 넷째, 동독정부의 승인 없이 국경이나 제 3국을 통해 서독으로 넘어 온 경우를 '탈주자(Flüchtlinge)'라 부른다. 한편 합법이든 불법이든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정착한 동독주민들을 '동독출신 여행자(Ausreisende)'로 부르기도 한다(Bundesminister des Innern 1982: 7). 이외에도 구동독에서 사회주의 체제에 반대하여 정치범으로 수용되었다가 구동독 정부에 의해 서독으로 추방된 경우, 2차 대전 종전 이후 전쟁포로로 독일에 귀환하지 못한 경우, 전쟁 중 독일민족이라는 이유로 전쟁 중 구금, 억류되어 있던 민간인의 경우, 대부분 동유럽과 러시아 지역에 머물던 이들의 자녀세대가 다시 독일로 귀향하려는 경우 등이 있다(이영란, 2005).

통일 이전 탈동독자들에 대한 정책은 1945년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탈동독자를 위한 서독의 지원정책은 통일 이전의 서독 연방정부 업무 40여 년사에서 중요한 행정업무가 된지 이미 오래이다. 이런 이유로 서독사회에서 탈동독자 문제는 하나의 특별한 사회문제라기보다는 분단 이후 서독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회문제로 보았고, 탈동독자를 수용하는 서독시민들의 개방성 역시 서독사회에 넓게 퍼져 있었다. 특히 독일통일 이전부터 진행된 탈동독자들의 서독이주, 독일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독일어권 후손들의 독일이주 등은 '독일인 이주연구(Immigrationsforschung von Deutschen)'라는 독창적인 학문영역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성인 위주의 이주민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 2의 사회화의 개념이나 '사회적응(Soziale Anpassung)'의 개념을 이미 기존의 사회화 과정이 끝난 개인이 다른 사회에 가입 내지는 편입되는 과정으로 한정해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은 탈동독 청소년 연구에도 해당한다. 탈동독자의 서독사회 적응실태는 소위 성인의 사회화,

20) 동유럽 출신 독일민족(Aussiedler/Einsiedler)의 독일이주는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진 후 1990년대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루었다.

즉 아동기와 청소년기라는 1차 사회화를 끝낸 성인 탈동독자의 재사회화가 주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더불어 부모의 결정에 의해 부차적으로 동반된 자녀세대, 즉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는 성인의 재사회화에 비해 그 개념도입이나 실태를 적용해서 파악하는데 전반적인 어려움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탈동독을 주관한 부모와 함께 서독으로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탈동독 청소년들의 서독 적응과정은 부모세대의 서독사회 적응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전제 아래 부분적으로만 연구되었을 뿐이다. 탈동독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부모와 함께 서독으로 이주하는 탈동독 청소년이 급증하기 시작한 1985년이 지나서야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어 왔으나 1989년 베를린 장벽 개방과 통일이라는 독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학문적 관심이 '통일독일 사회'와 '통일독일 청소년'으로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부가적 연구가 지속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내에서도 통일 이전 서독에 정착한 탈동독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곤한 상황이며, 더군다나 탈동독 행렬이 이미 17년 전에 종료한 현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연구 자료는 더욱 더 희박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탈동독 청소년의 서독사회 적응을 살펴보는 것을 근간으로 하였으나 부족한 연구 자료로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탈동독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내용은 서독 내무부의(Bundesministerium des Innern) 정기 간행물과 통계자료, 탈동독 청소년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질적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청소년 사회화'와 '서독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탈동독 청소년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갔다. 또한 서독에 정착한 탈동독 청소년의 적응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탈북 청소년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구동독과 북한에서 서독과 한국으로 각기 정착한 청소년들이 일련의 공통점을 갖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탈출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 두 집단의 이주과정은 매우 상이하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분단이라는 국가적 상황만 같았을 뿐 분단의 역사나 과정, 통일로의 길이 전

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탈동독자와 탈북자들 역시 이주경로에서부터 동기, 정착과정 등 두 집단 간의 공통점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기 사례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탈동독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가 구동독 정부에 서독이주신청을 한 후 수년의 대기기간을 모든 것이 거쳐 서독으로 넘어온 이른바 '합법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주과정이나 정착에 있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매우 '원만한' 이주과정과 정착과정을 거쳤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생사를 걸고 때로는 식구들과의 생이별이나 죽음의 위험조차도 불사했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험은 전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주동기와 경로, 탈출과정, 정부의 탈북자 정책 등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끼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라는 세대적 특성과 연관되는 공통점을 탈동독 청소년의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아래의 질문들을 토대로 탈동독 청소년의 서독사회 적응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DDR[21]에서 청소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단적 사회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 집단적 사회화는 이주신청과 대기기간, 서독사회 정착과정에서 탈동독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들을 미쳤는가?
2. 탈동독 청소년들의 서독사회 적응과정은 가정, 학교, 또래집단 등 청소년의 일상영역에서 어떤 특징을 보여 주는가?
3. 서독정부의 수용정책과 사회지원체제는 어떠하였는가? 제도적 차원과 민간적 차원의 협력은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탈동독 청소년의 서독사회 적응과정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가?

2) 탈동독의 동기와 이주경로

1949년 동독과 서독이 건국된 이후부터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까지 두

21) 이 글에서 DDR은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민주 공화국의 약자로서 독립된 주권국가인 동독을 의미한다. 반면 BRD는 Bundesrepublik Deutschland로서 독일 연방 공화국, 즉 서독의 약자이다. 동서독의 개념이 사라진 지 16년째를 맞는 지금 구동독과 구서독의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구동독을 DDR로, 구서독을 단지 서독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독일 간의 이주는 대부분 동독주민들의 서독이주라고 할 수 있다. 시기별로 간단하게 살펴보자. 이주유형은 강제추방, 불법탈출과 합법이주로 요약되는데,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인 1961년 8월 13일까지 동독주민들의 서독이주 유형은 불법이주인 '탈출(Flucht)'이었다. 이 기간에는 내독간의 국경통행 제한에도 불구하고 3백 20여 만 명에 달하는 동독주민들이 대규모로 탈출했으며, 주요 탈출경로로는 베를린을 들 수 있다. 당시에는 전차나 기차 등의 공공교통이 동서 베를린을 왕래했고, 삼엄한 통제 속에서도 허가증만 있으면 서베를린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던 상황이어서 동독주민들의 탈출도 가능하였던 것이다. 탈출의 주요동기는 계획경제의 실행에 대한 불만과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불안은 대량탈출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 위기를 감지한 사통당 지도부는 장벽을 설치하여 국경을 전면 폐쇄시키는 긴급한 대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기에 이르렀다. 즉 사통당 지도부는 당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독사회의 위기를 타파할 개선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장벽설치라는 극단적인 처방으로 동독사회의 불안을 억압적으로 무마시켰던 것이다. 동시에 베를린 장벽을 반파시즘의 보호 장벽으로 명명하며 분단을 고착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동독 재건시기가 끝난 1970년대에 들어 울브리히트와 호네커 정권은 계획경제의 공고화에 따른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동독사회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였다. 1970년대는 동독주민의 서독이주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시기로서 1971년부터 1979년까지 131,000명이 서독으로 이주했으며 그중 65%에 해당하는 85,000명이 합법이주를 하였다. 합법이주는 일반적으로 동독정부에 출국신청서를 제출한 후 평균 3년 정도의 대기상태를 거쳐 서독으로 이주하는 절차를 거쳤다. 현재까지도 남북한에는 존재하지 않은 동서독의 합법이주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특징은 무엇일까? 이 이주형태는 동독주민이 동독정부에 서독이주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이주루트를 통해 이루어진 자발적인 이주였다. 1967년 2월20일 개정된 DDR의 국적법 10항에 따르면 "DDR의 시민이 DDR 이외의 지역으로 이

주하기를 희망하거나,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Gräf, 1987: 79). 이 조항은 전쟁이후 냉전 분위기를 화해시키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의지로 이루어졌는데, 유럽안보 협력위원회 회의(Konferenz fü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 KSZE)에서 전쟁종결 이후 유럽에 친지나 가족들이 서로 헤어져 있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만남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결과이다. 이 합법이주는 1970년대 초 빌리브란트의 동유럽 화해정책을 통해 물꼬를 트기 시작했는데, 당시의 수혜자들은 서독에 연고가 있고 직장을 퇴직한 60세 이상의 연금자가 대부분이었다. 이 시기에 불법이주, 특히 젊은 세대의 이주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전쟁 이후 1950, 1960년대의 국가재건 시대가 끝나고 1970년대부터 산업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동독사회가 의식주 위주의 필수품 충족과 함께 제도적 차원에서의 사회주의 공고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력과 행정력이 결핍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사회복지를 위한 과다지출은 동독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이주자들의 사회·인구학적인 유형이 변화하는 시기이다. 이전까지 연금자를 중심으로 이주가 이루어졌다면, 이후로는 젊은 세대의 합법적인 서독이주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동독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어온 채 쌓여갔고, 그에 따라 청년세대의 사회주의에 대한 실망과 불안이 탈정치화를 낳았다는 점이

<표 Ⅳ-1> 연령에 따른 이주자 현황

년도	25세 미만	25-65세	65세 이상
1955	52.5%	43.5%	4.0%
1965	10.4%	38.1%	51.5%
1974	15.1%	45.6%	39.3%
1985	34.9%	52.5%	12.6%
1989	45.7%	51.3%	3.0%

출처: 연방 통계청 베를린 지부 1990

다. 둘째, 라디오와 TV 등 서독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된 자본주의의 실상은 DDR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삶의 수준과 자본주의의 풍요, 자유에 대한 동경을 찾도록 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서독에 정착한 DDR 청년세대는 정치적 억압과 박해를 피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주요 이주동기로 꼽았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204,000명의 동독주민이 서독에 정착했는데, 이는 1970년대의 평균수치의 4배를 능가하고 있다(이영란, 2005).

동독주민들의 서독불법이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를린 장벽 건립 이전과 같은 대량탈출행렬이 다시 시작된 것은 1989년 헝가리의 국경이 개방되기 시작되면서부터였다. 단지 몇 개월 만에 400,000만 명이 넘는 대량 탈출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베를린 장벽 개방으로 이 탈출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1990년 7월 1일 동서독의 화폐통합이라는 통일의 출발과 함께 서독으로의 이주는 탈주가 아닌 국내이사로 간주되면서 동독주민들의 대량탈출 물결에 종지부를 찍었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노동시장과 경제상황의 위기, 대량해고가 속출하면서 더 나은 생활수준과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한 동독주민들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사는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Ⅳ-1>는 연령에 따른 서독이주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Ⅳ-1>에 따르면 1985년에 이르러 25세 미만의 청소년 및 청년 이주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서독사회에 정착한 18세 미만 탈동독 청소년의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서독으로 건너 온 가족이주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세대 경우는 단독이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동독주민들의 탈동독은 1945년 동서독의 분단 이후 시작되어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될 때까지 45년 동안 약 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탈동독자와 탈북자의 이주 동기와 유형, 정착과 적응과정은 동서독과 남북한의 분단의 역사가 상이한 만큼의 큰 차이가 존재한다. 1990년 초부터 시작된 북한주민들의 탈북 이유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기아에서 탈출하기 위한 '생존형' 동기가, 현재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생계형' 동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적, 물질적 빈곤이 북한이탈의 주요 동기임

은 자명한 사실이다. 반면 동독주민들의 탈동독은 시기마다 이주동기와 유형이 다르지만 정치적 억압, 자유의 제한,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물질적 빈곤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즉 북한이탈자들이 내세운 기아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생존적 이유'와 탈동독자들이 내세운 권위주의적 정권으로부터의 탈출과 자유의 획득, 나아가 물질적 풍요라는 '이념적 이유'는 탈북자와 탈동독자 사이의 상이한 이주동기와 함께 남한과 서독사회에 적응과정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3) 탈동독자들을 위한 서독정부의 기본정책

독일 기본법에 따르면 독일인은 "독일국적 소유자, 1937년 이후의 독일제국지역 후손들, 독일혈통을 가진 자와 그 배우자"로 명시되어있다(Haberland, 1983: 108). 따라서 서독에 도착한 탈동독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왔든지 서독 기본법에 의해 내국인으로 간주되었으며, 서독주민들과 똑같이 연방주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았다.[22] 일단 서독에 도착한 탈동독자는 서독정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 이 신고는 탈동독자들이 서독정부의 정착지원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대부분의 탈동독자들은 기센(Giessen)과 베를린-마리엔펠트(Berlin-Marienfeld)에 있는 연방 수용소에서 신고와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은 구두 또는 필기로 진행되었다. 탈동독자들이 서독 도착 후 연방 수용소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3일 정도였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후 탈동독자들은 자신들의 거주 희망지역을 기준으로 각 연방주로 분산·수용되어 새 삶의 터전을 시작하였다. 1985년 상반기에 도착한 탈동독자들의 경우를 보면 21.3%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22)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북한 역시 대한민국에 속하며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셈이다. 즉 국내법상으로는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유엔가입국으로서 국가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의 위치 때문에 탈북자들은 국제법상 북한주민이 되는 것이다. 동독을 탈출해 온 탈동독자들에게 독일연방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며 적극적인 수용정책을 펼친 서독정부와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외공관의 정책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이영란, 2005).

서, 19%가 서베를린으로, 16.3%가 바덴뷔텐베르크주에서, 13.6%가 바이에른주에서, 10%가 니더작센주 등에서 새 둥지를 틀었다(Gärter, 1990: 18-19). 탈동독자들은 연방주에 도착해 각 주에서 마련한 주중앙수용소에서 3일 정도 머물다가 이후에는 잠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때까지 이주민을 위한 기숙사나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임시 주거지에서 살았다.

탈동독 주민들은 개인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임시 주거지에서 평균 1년 정도 머무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각종 자격증 심사와 인정증명서 발급 및 농업 · 자영업 희망자를 위한 장기저리의 융자금 제공"에서부터 "의료보험 및 각종 사회복지수당" 및 "이주민의 사회·심리적 정착을 위한 지원" 등에 이르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았다(윤인진, 1999: 521). 임대주택이나 복지주택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주거지원, 주택마련비용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금, 월세 보조금, 실업급여, 교육보조금, 직업재교육, 직업부가교육 등 정착을 위한 도움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모든 업무를 위해 주정부와 각 도·시의 행정기관,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등 다양한 민간단체들은 체계적이고 일사 분란하게 상호 협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주정부의 이주민 담당자, 이주민 단체의 대표자, 종교단체 대표자, 민간복지단체들의 대표자, 사용자총연합회 대표자, 독일노조 연맹대표자"로 구성된 이주민 자문위원단이 정착지원을 총괄하고, 종교단체, 사회자선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이주민 후원단체들이 자문단과 함께 업무를 분담, 조정, 보완하면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윤창규, 2001). 이처럼 관·민 단체와 후원회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탈동독자들은 서독사회에 대한 정보나 구직 등 실질적인 정보에서부터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만남과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였다. 탈동독자에 대한 서독정부의 정착지원 중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일회적인 정착금 제도가 아닌, 장기간의 저이자 융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탈동독자들의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경제생활을 고무시켜 서독사회의 경제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이면에는 DDR의 학력과 직업경험 등이 서독사회에서 인정되고, 부족한 경우 직업부가교육이나 직업재교육 등을 받게

함으로써 이들을 차별 없는 경제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있다.

서독정부의 탈동독자들에 대한 서독사회 정착지원의 또 다른 특징은 연금수급권(Fremderentegesetz)과 부담조정법(Lastenausgleichsgesetz)에서 볼 수 있다. 연금수급권은 동독주민이 연금수령연령의 상태에서 서독으로 이주해 온 경우 동독지역에서 획득한 연금을 서독정부가 인정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연금수급권은 노령의 동독이주자들에게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23] 부담조정법은 "국제정치질서의 재편에 따른 개인의 피해를 사회정의의 원칙에서 전(全)국민이 공동 부담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서독에 정착하는 모든 독일계 이주민들을 이방인이 아닌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수용한다는 정책이다(윤창규, 2001: 58). 이 법안은 500여 만 명의 탈동독자들 뿐만 아니라 독일계 혈통의 후손들 역시 독일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서독사회의 탈동독자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첫째, 탈동독자들은 서독사회 편입, 즉 제도와 조직이라는 사회시스템에 보다 용이하게 가입하게 되었다. 둘째, 탈동독자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특히 1984년 이후 서독에 정착한 탈동독자들의 경우, 정착기간 평균 1년 이후에 서독시민의 평균에 준하였으며, 대부분 서독생활에 만족감을 보여주었다. 셋째, 자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표 Ⅳ-2> 서독 이주동기

이주민 서독 이주 동기	비율 (%)
의사표현의 자유	71
정치적 억압	66
제한된 여행 가능성	56
심각한 배급 상황 때문에	46
미래전망이 불투명해서	45
서독에 친지가 있어서	36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28
직장발전의 가능성이 없어서	21

중복대답 가능
출처: Köhler & Ronge, 1984: 1282쪽

지원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탈동독자 스스로, 또한 서독시민들 역시 이들을 독일연방국가의 한 명의 당당한 시민으로 간주하였다. 물론 이 이면에는 경제적인 안정이 큰 역할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이영란, 2005).

4) 탈동독 청소년들의 서독사회 적응실태

이주자들은 새로운 삶의 터에 정착한 이후 일련의 적응과정을 보인다. 이 과정은 자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서독사회 시스템에의 적응, -서독의 실상을 이주이전부터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상이한 사회 및 문화 환경에 대한 충격, 변화된 문화에 대한 수용과 저항, 독일연방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등으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부모세대 탈동독자들은 서독에 오기 이전부터 서독의 대중매체와 서독에 거주하는 친지, 비공식적인 경로 등을 통해 서독에서의 자유의 개념, 자본주의적 풍요와 그 실상을 비교적 상세하게 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주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의지와 동기, 이주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경우였다. 이 사실은 이주 신청자 대부분이 자유의 억압과 미래에 대한 불안, 풍요한 생활수준의 동경이 이주동기의 1순위로 언급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주자 대부분은 자본주의의 특성과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적응과정에 큰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Pratsch/Ronge, 1985a, 1985b). 이러한 사실 이면에는 이들을 구동독에서 가졌던 직업경력과 전공, 이와 연관된 직장을 갖게 하거나 직업부가교육을 통해 차별과 편견 없이 경제활동 인구로 수용한 서독사회의 개방성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부모의 서독 선택으로 서독으로 넘어 온, 즉 선택의 자유 없이 동반되어 온 자녀세대의 사회적응은 부모세대의 사회적응만큼 무난하였는가? 탈동독 청소년 세대의 서독사회 적응은 첫째, 부모의 서독이주 신청 이후 대기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둘째, 부모의 서독정착 과정이 어떠했고,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DDR 시기보다 향상되었는지, 셋째, 학교생활과 또래

23)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단기간의 하나원 교육 이후 일시적인 정착금을 받고 자본주의사회에 '버려지는' 현실과는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집단 문화에 잘 적응하였는지,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이 이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탈동독 청소년의 서독사회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주신청 이후 서독이주에 대해 부모와 함께 심리적 준비를 했는가?,
○ 부모의 이주동기를 이해했는가?,
○ DDR에서 어떤 사회화 과정을 경험했는가?
○ 이주신청 이후 학교와 소년단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 소년단을 위주로 하는 또래집단과의 단절을 경험했는가?
○ 이 단절기간 동안 부모세대의 보호와 관심을 충분히 받았는가?
○ 서독 사회에서의 학교생활과 또래문화의 경험은 어떠한가?
○ 서독정착 이후 DDR과 어떤 감정적 연계를 보이는가?
○ 서독정부와 사회단체의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DDR 사회화의 영향은 서독사회 적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탈동독 가정의 환경과 부모세대의 서독이주 만족도는 어떠하며 그 배경 원인은 무엇인가 ?

위의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DDR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청소년의 사회화가 청소년들에게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DDR 청소년의 일상은 학교와 소년단이라는 공적인 차원에서 보내는 활동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공교육 차원의 사회화는 가정의 사회화와 견주어 볼 때 압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나 가정환경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또래집단과의 만남과 공동체적인 활동이 이들의 인성형성에 더 큰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따라서 탈동독 청소년들은 DDR의 사회화로 인하여 서독의 개인주의적 사회환경과 사적인 차원의 또래집단 문화에 대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서독행이 자발적 선택이었던 반면 DDR 교육에 동화되어 있던 자녀세대의 서독행은 대부분 선택의 여지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서독사회 정착 이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갈등 역시 충분히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성인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이 서독에 정착했을 때의 연령이 대부분 9-15세 사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 1차 사회화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된 청소년들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은 성인의 그것보다 훨씬 용이했고, 나아가 새로운 1차 사회화의 과정 역시 비교적 순조로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두 가지 견해는 서독적응에 문제가 있던 경우와 원만한 적응을 했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그 차이가 금방 드러난다. 독일 연방정부 통계에 의하면 서독에 부모와 함께 정착한 탈동독 청소년 90%이상이 서독사회에 별 문제없이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Bundesminister des Innern, 1986, 1988). 서독사회에의 적응에 문제를 보인 경우는 이주대기기간 동안의 부정적 경험을 하였거나, 부모들의 보호와 관심이 결여된 경우, 또는 DDR 사회화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갈등이 있었던 경우가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반면 원만한 적응을 한 경우는 대기기간 동안 부모의 지속적 관심과 보호, 가족위주로 진행된 서독이주로의 심리적 준비, 서독정착 이후 원만하게 진행 된 부모의 서독사회 적응과 향상된 생활환경이라는 공통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첫째, DDR 사회화와 DDR 교육의 특징,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교육이 탈동독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서독 정착과 적응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둘째, 원만한 적응을 하고 있는 탈동독 청소년의 학교생활, 또래집단문화, 미래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진술을 사회·심리학적 시각으로 분석해 보고, 적응의 이면에 있는 내면세계를 파악해 봄으로써 탈동독 청소년의 적응상태를 다각적으로 추적해 보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프로그램 및 사회단체들의 역할과 내용을 살펴보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대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1) DDR과 청소년 세대의 사회화

근대 사회학 창시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뒤르크하임(Dürckheim)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이 사회적 구조와 가정 간의 연결고리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교육(Erziehung)을 아동과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화(Sozialisierung)'의 사회적 연결(gesellschaftliche Vermittlung)이라고 역설하였다(Dürckheim, 1922, 1971). 즉 사회화란 관습, 도덕, 가치관, 규범 등의 형성이 가정과 공교육에서의 통한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 개인은 사회에서 통용하는 행위양식을 습득하고, 책임감을 맡으며, 인성을 키워나가면서 자신을 사회에 가입시키게 된다. 사회에로의 가입은 사회로의 종속이나 순응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일차적인 필요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이며 결과적으로는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응으로 나아가게 한다.

1차 사회화 장소인 가정과 2차 사회화 장소인 학교에서 받은 교육과 학습의 결과가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나 통용되겠지만, DDR 사회는 하나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DDR 정권은 가정을 사랑과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닌 사회주의 인성을 싹트게 하는 일차적인 사회주의 교육공간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와 사회는 교육과 노동을 제공하여 개인을 완성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발전시키는 이차적인 공간으로 정의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은 사회주의적 인성교육의 일차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고, 교육은 사상적, 이론적으로 사회주의를 합리화해서 사회주의 인성을 지닌 국가의 미래 구성원을 양성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가족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사통당의 경제 및 사회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들 중의 하나'(Lindenberg, 2004: 327)였다. 이와 같이 DDR에서 가족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출산이 장려되었으며 가족복지정책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DDR 정권노선에 호응하지 않는 대다수의 동독가정은 직장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회주의 노선에 상응하는 외면적인 의무만 채우고,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이에 상치하는 모든 행위들, 예를 들면 서독 대중매체 접하기,

서독물건 구입하기, 국가노선에 대한 비판 등을 서슴없이 해왔다.[24] 사통당의 의지와는 반대로 가족은 DDR 사회에서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피할 수 있었고 개인이 보호되는 유일한 피난처 역할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25] 따라서 가족은 교회와 함께 동독사회에서 유일했던 자유공간이었고, 정치적 권력과 감시를 피할 수 있었던 일종의 '틈새' 공간으로서 DDR 정권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도 가능했던, 나름대로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던 곳이었다. 이렇게 DDR 가족정책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동독 대다수의 가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가족은 이제 DDR 정권이 고무시키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영역인 동시에 DDR사회에서 유일하게 '감시되지 않은 사적

24) 특히 1980년대에 들어 서독대중매체의 영향이 동독사회에 증가되어 동독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일상에서 서구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사회주의 의식이 대중적으로 붕괴되는 시기였다. 사회주의 이념이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증대, 그에 따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약화, 여가문화의 확산, 특히 사랑, 성, 취미, 오락 등 삶을 즐기려는 성향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탈전통적인 가족모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주의적인 삶과 비공식적인 영역에서의 개인적인 삶이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욕구와 자아발견, 개인적 자유의 공간을 찾는 경향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DDR 사회에서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누구나가 볼 수 있었던 서독 TV와 라디오의 대중화는 사회주의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환상을 송두리째 깨뜨렸으며, DDR 정치노선에 많은 의문점과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사회주의와 당에 대한 충성심은 옛말이 되었고, 대다수의 동독주민들은 가족이라는 유일한 사적인 공간에서 서독제 물건을 이용하고 TV를 보면서 DDR 정권에 대한 불만을 쌓아갔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DDR 사회에서 개인의 생활은 서로 어울려(nebeneinander) 살아가기 보다는 제도 안에서의 공식적 생활과 가족 안에서의 사적인 생활이 각각 따로(voneinander) 분리되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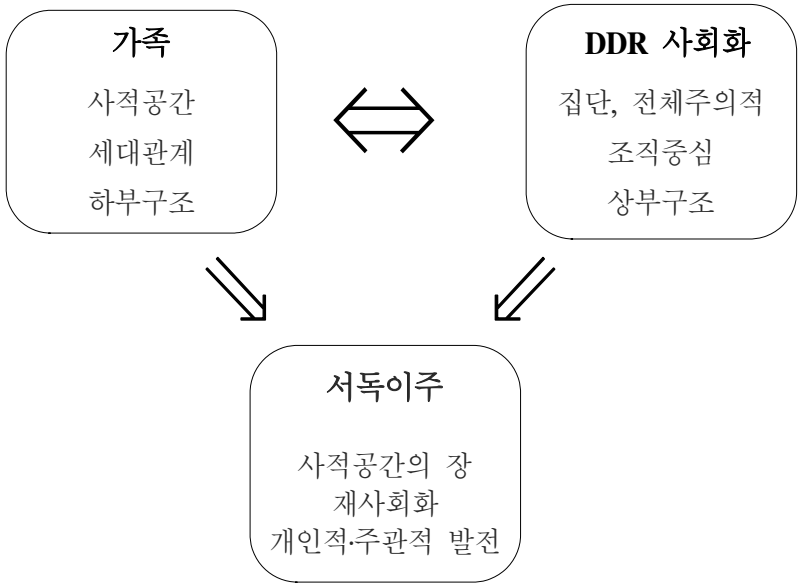
25) 고일렌(Geulen)은 DDR 사회에서의 동독주민의 유형을 다음과 같은 다섯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1. 국가노선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반대계층
2. 국가노선에 반대는 하되 대항에는 소극적인 반지지 계층
3. 단지 DDR 사회의 특권을 기회적으로 이용하려는 계층
4. 생각 없이 DDR 사회에 동조하는 계층
5. 사회주의적 확신을 가지고 DDR 국가노선에 적극 찬성하는 계층(Geulen, 1998)

실제로 서독이주를 결심한 동독주민들은 소수였으나 DDR 정권 노선에 심적으로는 반대하는 동독주민들은 대다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 2번에 해당하는 가족들 중에는 이주신청을 거쳐 서독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3, 4의 경우에도 사상적 확신이나 정권에 대한 확신보다는 DDR 사회에서 보다 편하게 살아가는 기회주의적 계층들로 '변화보다는 안주'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영역'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사통당 지도부는 이 사적 영역을 탐색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고 비밀경찰의 비공식적인 협력자들은 자신들의 위임자에게 무엇보다도 사적 영역에 관해 보고하였다(Lindenberg, 2004: 327)." 이처럼 가족은 동독사회에서 사적인 장소이자 감시되지 않는 휴식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서 "동독사회의 반세계(Gegenwelt zur Gesellschaft)"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Gysi, 1990: 34).

대부분 이주자들의 가정환경은 반DDR 입장을 뚜렷이 견지하고, 나아가 최후의 방법으로 DDR을 떠나 서독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경우이다. 부모세대와 DDR 국가 간의 갈등은 뚜렷한 이주동기를 부여하며, 국가와의 갈등을 겪은 이들은 이주신청 이후 대기기간동안 당하는 많은 굴욕적 감시와 통제, 어려움과 불이익을 기꺼이 수용하여 서독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꿈을 키웠을 것이다. 즉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서독이주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서독상은 서독정착 이후 많은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이영란, 2005). 그러면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도 과연 부모의 그것



[그림 Ⅳ-1] 가족, DDR 사회화, 이주와의 상관관계

과 상응하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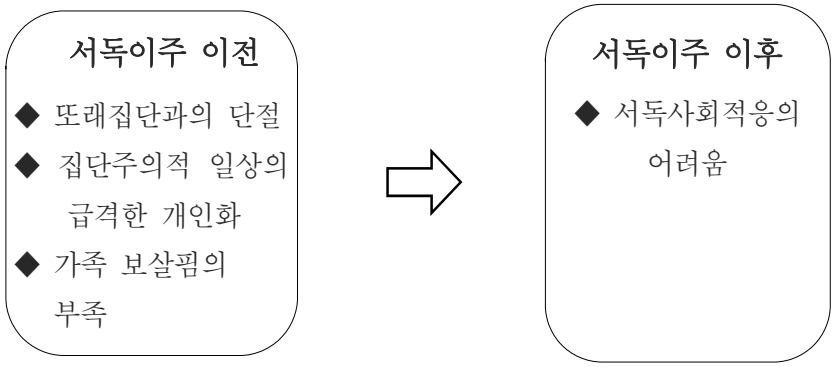
[그림 Ⅳ-1]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 청소년들의 사회화 환경은 가족의 사회화와 DDR의 사회화가 상호보완적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환경이었다. 국가의 사회화는 가족의 사회화보다 청소년에게 더욱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시켰다. 이주를 준비하는 부모와 이에 대한 선택이 없는 자녀세대의 갈등은 잠재되어 있다가 서독이주 이후 학교나 또래집단에서 적응의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극대화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이 사실은 국가적 차원의 사회화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학교와 소년단의 사회화 영향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금방 수긍이 간다. 사회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요인이었던 DDR 교육정책의 특징은 국가 청소년 양성, 사회주의 인성 양성으로 요약된다. DDR 교육정책의 핵심은 청소년의 거의 모든 일상 전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여 사회주의를 고취하는데 있었다. 이 중에서도 소년단 활동은 DDR청소년들의 일상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취미, 여가, 체육 등 학교생활 이외의 모든 것을 담당했던 기관이었다. DDR의 교육정책은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양상을 띠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학교가 지식의 전달과 습득의 장소였다면 소년단은 청소년의 사회주의 교육과 인성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이었다. 청소년의 방과 후 여가활동, 취미 및 특기활동 등은 대부분 이 소년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학교단위, 지역단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되었다(이영란, 2004: 181). 누구나가 참여했던 이 소년단 활동을 통해 동독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을 이루었으며, 동독 청소년의 소년단 활동은 그들의 일상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직사회(Organisierte Gesellschaft)였던 구동독 사회에서는 공교육과 소년단 활동을 통한 국가의 역할이 부모의 역할만큼이나 청소년 세대의 사회화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DDR 청소년은 국가적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양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족이 사회주의 통합당의 감시와 통제를 피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성인들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반면,

학교와 소년단은 가족의 분위기와는 전혀 반대로 국가청소년과 사회주의 인간을 만드는 집단적 양성소로서 집단적 사회화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던 곳이다. 이 사실은 DDR 청소년의 일상이 학교와 소년단 생활이 전부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중선동적이었던 DDR의 국가지배와 교육체제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규격화된 규범과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교육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교육기관은 예외 없이 국가의 충실한 파수꾼의 역할을 한 것이었다.

이처럼 학교와 소년단으로 형성된 또래집단과의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던 DDR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주결정 이후 학교와 소년단으로부터 압력과 박해를 경험하였을 것이다. 부모세대가 DDR 정권과의 갈등을 점점 첨예화하여 이주라는 마지막 남겨진 선택을 함으로써 국가에 대해 노골적인 반항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대기기간동안의 어려움과 고난을 자발적으로 수용했다면, 청소년 세대는 너무나도 '국가적인 청소년(Staatliche Jugend)'으로서 제도적인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주신청 가족의 자녀'라는 꼬리표만으로도 학교와 소년단으로 대표되는 이들 일상세계의 전 영역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던 것이다. 이주가정의 자녀로 낙인찍히게 된 청소년들은 학교와 소년단 활동에서 공개적으로 비판과 회유를 받아야 했고, 차별이나 불이익도 받았으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동범위가 가족이라는 미시적인 게토(Ghetto)로 자의든 타의든 한정되게 되었다. 공교육과 또래집단의 활동이 이 세대의 인성형성과 사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차단과 손실은 그 연령대에 상응하는 사회적 일상의 사회화를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9세에서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자아를 생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이 상황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부모의 관심과 심리적 보호를 얼마나 받았고, 이주에 대한 타당성과 준비를 부모와 자녀세대가 얼마나 같이 했느냐이다. 즉 동독탈출에 대한 부모와 자녀들 간의 대화 여부, 탈동독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모세대만큼의- 심리적 준비 여부, 이주신청 이후 청소년 일상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대처, 부모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 등이 그것이다. 이주결정에서부터 서독정착까지 자발적으로 동참을 한 청소년의 경우는 새로운 사회 환경의 적응에 매우 적극적이고 신속한 적응양상을 보여주었다(Vollbrecht, 1993:73). 반면에 이주 이전에 가족 간의 문제가 급증했거나, 이주신청 이후 학교와 소년단에서 비판과 박해 등을 경험한 경우나 또래집단으로부터 단절되어 혼자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던 경우 등은 서독정착 이후에도 적응에 있어 많은 문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의 양상은 대체적으로 가족관계의 악화, 서독 학교적응의 실패, 또래집단과의 단절 등으로 나타났다(Goldbeck, 1994: 127). [그림 Ⅳ-2]는 이 문제의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88년과 1989년 "탈동독 청소년의 적응불안과 병리적 현상"이라는 주제로 수행된 연구에서 적응문제를 보인 190명의 탈동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158명이 수면장애를 경험했고, 104명이 돌출행동을 보인 적이 있으며, 31명이 극도의 소심함, 13명이 언어장애를 보인 적이 있다고 하였다(Agoma, 1989). 이외에도 신경쇠약, 손톱을 깨물거나 울음, 가벼운 틱장애, 열등감 등의 증세도 보고되었다. 이 현상들은 구동독에서의 이주 준비과정에서부터 서독사회의 정착에 이르기까지 수 년 동안 지속된 청소년 세



[그림 Ⅳ-2] 탈동독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의 배경

대의 감정적 부담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547명의 탈동독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3/4에 해당하는 410여 명이 서독으로 이주할 의향이 전혀 없었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단지 부모의 결정으로 서독으로 온 것이다. 이 중 81%가 새로운 서독생활이 마음에 든다고 대답하면서도 동시에 89%가 향수병을 앓고 있다는 모순적인 대답을 하였다. 이 중 다만 18%만이 구동독으로 귀향하고 싶다고 대답했으나, 39%는 만약 현재 구동독에 있다면 서독으로 이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Agoma, 1990). 이 경우는 자신의 자아정체성 속에서 DDR 특유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DDR을 떠난 사실을 자아손실로 간주하여 서독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탈동독 청소년들의 영역별 적응 특성

DDR 사회의 일방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적 차원의 사회화가 청소년들을 국가 청소년과 사회주의 인성으로 양성시키는데 주력했지만, 아직 1차 사회화가 종료되지 않은 시기에 서독사회에 정착한 청소년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이 더 수월했던 면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사회적응과 연령 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특히 학교문화와 또래문화로 대표되는 이 세대의 공통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심의 유사성은 서독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청소년 세대의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특성이 서독이주 이후 학교생활과 또래문화, 서독사회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태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① 학교생활

학교는 청소년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공간으로 성인세대의 직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토대가 되는 장소이니만큼 학교의 적응이 이들의 서독사회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서독에 정착한 탈동독 청소년은 동서독 교육체계와 수업양식, 교과내용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적응했을까?

지식의 습득과 전달의 장소라는 점은 동서독 학교 모두에 해당하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서독의 학교가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시민교육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동독의 학교는 집단적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주의의 합리화를 가르치는 곳이었다는 점이었다. 정치적 사회화가 시작되는 시기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들을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은 아동기가 주입식으로 사회에 길들여지는 시기라면 통상 15세를 전후로 하는 청소년기는 개인의 의식적인 가치관과 판단에 의해 정치적 성향을 구분 짓기 시작하는 시기로 본다는 점이다. 탈동독세대의 자녀들 역시 연령에 따라서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데, 15세 미만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DDR 사회화의 영향이 아직 정치적 차원, 즉 의식적인 합리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서독사회 적응에 있어 부모세대 보다는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앞 장에서 언급한 DDR 정권의 국가적 사회화와 가족 간의 모순적 상황은 서독사회의 적응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아직 정치적, 사회적 의식과 자아가 성장하지 못한 시점에서 새로운 사회로의 이주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과정을 경험하도록 만들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의 변화를 살펴보자. 동서독의 상이한 학교체제 때문에 탈동독 청소년들은 우선 제일 먼저 학교진학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DDR 학교체제는 6살 때 8년 동안의 의무교육 과정인 기초학교(Grundschule)를 시작하고, 기초학교 졸업 후에는 2년 과정의 중등학교(Polytechnische Oberschule)나 4년 과정의 인문고등학교(Erweiterte Oberschule), 3년 과정의 직업학교(Berufsschule)에 진학할 수 있었다. 중등학교와 직업학교 졸업 후에는 준비반을 거쳐 전문기술학교(Fachschule)나 직업기술학교(Betriebsakademien)에 진학, 졸업 후 기술고사(Fachabitur)를 거쳐 전문대학(Fachhochschule)으로 가거나 숙련기술 교육을 받았다. 인문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종합대학(Universität)입학을 목표로 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26] 모든 학교체제는 국가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26) 반면 서독은 기초학교 4년 이후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2년 동안의 적응기간을 더 갖는 경우도 있다- 직업학교, 실업학교(Realschule), 인문학교(Gymnasium)로 진학하는데, 의무교육기간인 8년을 마치면 기초학교졸업장(Hauptschule)이 수여되며, 숙련기술을 익히는 전문기술학교, 실업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인문학교 졸업 후 종합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1989년을 기준으로 보면, 당시 직업교육 졸업생은 전체 취업자의 90.3%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전문대학 졸업생을 포함한 숙련노동교육 졸업자는 60.6%, 대학 졸업자는 8.1%를 기록하고 있다(박명선, 1996: 886-887).[27] DDR의 -대학교로 진학하게 될 인문 고등학교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대다수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중등학교에 입학한 후 숙련 기술인이 될 것인지, 기술 관리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인 부모와 함께 서독에 정착한 탈동독 청소년의 대다수는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으며 이들은 독립된 중등학교 과정이 없는 서독의 학교체제에서 직업학교, 실업학교, 인문학교를 선택해야만 했다. 많은 탈동독 학생들은 실업학교를 가장 선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 학교 중 중간 수준의 단계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 듯했다. 특히 학교과목 중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외국어 과목, 즉 영어인데, DDR에서 러시아어를 제1외국어로 배웠기 때문에 영어라는 과목은 매우 생소했을 것이다.

그러면 탈동독 청소년이 서독학교 체제를 보는 시각은 어땠을까?

> 서독학교에서 받았던 놀라움은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였어요. 서독 학생들은 DDR처럼 선생님을 어려워하지 않고 선생님들도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사제 간의 관계가 매우 느슨하다고 해야 할지... 이 곳에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좀 떠들거나 해도 선생님들이 별 말씀도 안하세요. 그런 일은 DDR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요. 물론 이런 일은 중학생 반에 가면 좀 더 심해요. 16세 이상의 나이 든 학생들은 좀 더 조용하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서독 애들은 자기의 생각을 주저 없이 말하는 것이 눈에 띄어요. DDR에서는 우선 선생님이 오

27) 구동독의 교육정책 핵심은 사상과 실력을 겸비한 이상적인 사회주의 노동자와 미래 국가주역의 양성이었기 때문에 사통당 정책에서 교육제도는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가장 많은 국가예산과 노력을 들였다고 할 수 있다. 교육기회의 확대와 함께 이미 1970년대에 들어 구동독 총 인구중 61%가 고등학교 졸업을, 15%이상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구동독 사회는 소위 엘리트 사회의 길을 걷게 되었다(Mayer & Trappe, 1995: 107).

시면 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 곳에서는 선생님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상관도 안하는 것 같다니까요. 수업시간에 서독애들의 주위가 산만해서 수업집중을 잘 못 할 때가 많아요. 학생들에게 이처럼 많은 자유를 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한다면 수업성취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티나, 18살, Vollbrecht, 1993: 78 재구성)

위의 진술은 주입식과 권위주의적인 DDR 교육의 전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DDR 교사들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능력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고, 권위는 다시 복종으로 이어져 현실에 순응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탈동독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일단 서독학교 생활을 시작하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며, 학업에도 원만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이 동기에는 서독학생들에 비해 자신들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소수자 콤플렉스도 있는 한편,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려는 위기극복의 심리도 깔려있다. 또한 이런 청소년들은 DDR에서 이주대기 기간 동안 이주에 대한 준비를 부모와 함께 같이 대처하고 극복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서독 정착 이후 대부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ratsch/Ronge, 1985a, 1985b; Vollbrecht 1993).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교과과정을 노동(Arbeit)으로 받아들여 그 의미를 도덕적 차원으로까지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서독학생들이 학교를 배움(Lernen)과 놀이(Spiel)의 장소로 이해했다면 탈동독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당위(Sollen)이자 의무(Müssen)였던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DDR의 권위주의적 교육에서 얻어진 점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탈동독 청소년들이 구동독 학교체제를 서독학교에 비해 권위주의적으로 평가하기는 하였지만 DDR 학교의 규범과 예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진로나 학업방향에 있어서도 그 지도가 서독보다 훨씬 더 확실했다고 진술하는 데에서도 나타났다. 더불어 이들은 서독학교제도와 서독학생들이 규율이 부족하고 학업성과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언급 역시 빼놓지 않았다. 한편 이들은 서독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매우 개방적이고 자율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

다. 지도와 권위적인 관계, 공동체적인 습성에 익숙해져 있던 이들에게 개인적 관심과 인격을 중요시하는 서독의 학업분위기는 이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을 것이다.

이 중에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탈동독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첫째, DDR 학교에서의 경험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서독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과 투정을 보여주었다. 둘째, 개인의 의무와 책임이 교사의 지도아래 모두 이루어졌던 DDR과는 달리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는 서독의 자율적인 학습방법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셋째, 동서독의 상이한 학업성취의 개념과도 연관되었다. 개인적 학업 성취 역시 집단적 성취와 관련 있었던 DDR의 경험은 서독사회의 집단 속에서 더 이상 인정되지 못하고 단지 개인의 일로 그치고 말게 되었다. 집단주의적이며, 집단 속에서 개인의 인정을 받던 공동체적인 사회에서 성장한 자아가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자아형성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동독에서 대기기간동안 또래집단간의 교류에 큰 문제가 있었던 청소년들이었다.

② 또래문화

또래집단에서의 활동은 청소년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라고 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의 경험'이다. 탈동독 청소년들은 서독에 정착한 이후 기존의 친구를 잃는 동시에 새로운 친구를 얻는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DDR에서 또래집단 문화가 소년단 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탈동독 청소년들에게 개인주의적이고 스스로 찾아야하는 서독식의 또래문화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DDR 시절에 비해 그 기회와 관계가 현저하게 줄어듦을 의미하였다.

> DDR에서 학교생활이나 단체생활이 여기 서독보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한 반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누가 어디에 사는지, 형제가 몇 명인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점이 여기 서독보다는 훨씬 정겨웠어요. 여기 서독에서는 한 반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 정도나 알까요? 그 외에는 도대체 아는 게 없어요. DDR에서 많은 학교모임과 소년단 모

임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했는데, 이곳에서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각자 흩어져 집으로 가니까요. 서독에서 친구 사귀는 것은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한나, 16살, Vollbrecht, 1993: 78 재구성)

탈동독 청소년들은 개인주의 사회인 서독에 있는 학교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익명성을 꼽는 반면, 공동체적 사회인 DDR에서는 학교가 나름대로 정형적인 체제를 갖추기는 했어도 비교적 작고 다 같이 참여하는 정다운 곳이었다는 평가를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DDR 사회에서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연결시켜 주었던 소년단이 청소년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의 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반면 개인주의적이고 다원화된 서독 청소년 문화에서는 학교라는 공적인 장소가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친구관계의 틀이 되는 것이다.[28] 탈동독 청소년들은 서독에서 "청소년 문화의 모순(Jugendkulturelles Paradox)"(Helsper, Bertram, & Stelmaszyk, 1991:280)을 경험하였다. 청소년 문화란 청소년이라는 연령적 특성에서 오는 것으로, 이 세대가 같이 즐기고 참여하며 소통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있는 것을 의미한다. DDR에서의 청소년 문화가 제도적 차원에서 조직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참여한다는 문화의 개념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독에서 청소년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정적 상황이나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문화적 구별은 계층적 차이로 이어지며 나아가 친구들 간의 관계를 단절하는 요소로서 모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DDR에서 여가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들도 엄청 다양했고요. 체육, 그림, 노래, 독서 등등 없

28) 독일어에서 친구를 가르키는 단어인 Freund와 같은 반 동료를 가르키는 Kamerade는 두 개의 상이한 개념이다. DDR에서 친구와 동료의 뉘앙스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DDR사회 자체가 그런 공식적인 외형을 갖춘 사회였기 때문에 두 단어 사이에 큰 차이를 두지는 않았던 반면 서독에서는 두 단어의 차이는 분명하다. 즉 Freund는 사적인 차원이고 Kamerade는 공적인 차원인 것이다.

는 활동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곳 서독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럼 경제적 상황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런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도 없게 되지요. DDR에서는 수많은 단체들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담당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피오니어집(Pioneerhäuser)라고 불러요. 방과 후 매일 우리는 그 곳으로 가서 하루하루 다른 활동들을 배우고 즐길 수 있었어요. 또 피오니어집에는 체육지도 선생님, 독서지도, 음악지도 등 많은 지도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기초학교 4학년까지 난 스포츠를 즐겨했답니다. 이후에는 합창반 활동도 하고, 바이올린도 배웠어요. 또 도자기 강습도 있어서 내가 직접 접시를 굽기도 했어요. 매일매일 할 수 있었던 취미활동들이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무엇을 배울까를 놓고 고민을 했다니까요. 물론 그 때마다 늘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셨어요. 중등학교에서는 배구를 시작했고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서독에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너무 그리워요. 방과 후 오후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티나, 18세, Vollbrecht, 1993: 79 재구성)

티나의 진술은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행위범위를 파악하면서 개인의 가능성을 인성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DDR특유의 -감시와 통제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연대적 집단사회의 장점을 잘 보여주었다. 티나가 DDR에서 보낸 청소년기를 통해서 우정에 대해 서독 청소년들과는 다른 개념을 갖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서독사회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고, 수용까지도 하지만 동시에 DDR의 친구들과 함께 했던 또래집단 활동을 그리워하며 서독친구들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만 보아도 동독 청소년들이 우정에 대해 서독 청소년들과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면에는 DDR의 “우리 구조(Wir-Konstruktion)” 청소년 문화, 나아가 전체 사회를 지배하던 집단주의적 연대문화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부모의 이주 신청 이후 대기기간 동안 또래집단과 청소년 문화와의 단절과 분열을 경험했던 많은 탈동독 청소년들이 경

험하는 또래집단과의 관계에 대해 론게와 프라치는 “분명히 제한된 사회적 관계(deutlich restringierten Sozialbeziehung)”(Pratsch/Ronge, 1985b:748)로 정의한 반면, 헬스퍼와 그의 동료들은 “사회적 단절의 경험(Erfahrung sozialer Isolation)”(Helsper et al., 1991)으로 명명하였다. 즉 탈동독 청소년들이 제도적인 차원인 서독학교 체제에는 별 다른 문제없이 잘 적응하고 있는 반면, 또래집단 문화의 부적응, 가까운 친구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문화적,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Helsper et al., 1991:280).

그러면 탈동독 청소년들은 서독 청소년 문화를 어떻게 보았을까? 우선 DDR에서 교육받고 사회화된 시각에서 볼 때 탈동독 청소년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청소년 문화에 대해 약물복용, 마약, 각종 범죄 등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은 다 함께 즐기는 청소년 문화로 각인된 DDR의 경험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즐기는 문화에는 돈이 든다는 자본주의 원리를 서독사회에서 파악하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독 청소년 또래집단과의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거리를 두게 되는 경향도 보였다.

> 서독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다 돈이라니까요.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영화관에 가는 것이나 한 잔하러 카페나 바에 가는 것 등 다 돈이 들어요. 만약 내가 서독사회에서 계속 살아와서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모르겠지만... 같이 보내는 시간에 왜 그렇게 돈이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서독친구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보통 난 전혀 관심이 안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독 친구들은 무슨 영화배우나 가수 같은 스타들에 푹 빠져있던데 그게 뭐 재밌나요? 난 아무개 스타가 다이어트를 해서 몇 킬로를 뺐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돈 낭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알무트, 18세 Vollbrecht, 1993: 82 재구성)

위의 진술처럼 탈동독 청소년들에게서 보이는 서독 청소년 또래집단 문화에 대해 낯설어 하는 현상은 첫째, 또래문화의 내용에 대한 거리두기와 둘

째, 그 문화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영화관 등 문화적 연결고리에 대한 거리 두기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탈동독 청소년들은 DDR에서 거주할 때 서독 TV나 라디오의 영향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서독 자본주의의 청소년 문화를 경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동독과 서독의 청소년 문화는 전혀 상이한 형태와 개념인 것이다. DDR에서 금지된 청소년 문화, 즉 은밀하고 사적인 문화는 "국가로부터 금지된 것을 서로 같이 경험하고 나누는 것"으로서 공적인 차원의 청소년 문화와는 달리 록큰롤이나 재즈와 같은 서구의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나 서독제 물건-대부분 청바지, 패션, 음악 등 대중잡지 같은 기호식품-을 같이 나누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DDR 사회에서 금지 된 이런 청소년 문화는 그나마도 DDR의 집단주의적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오락에 속했지만, 그 내용이나 범위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반면 서독 청소년 여가문화는 사적인 영역이자, 개인적 관심과 취향을 위주로 한 여가활동을 말한다. 즉 레저와 레크레이션의 의미로서 즐거움이 동반되는 창조적이며, 사적인 활동인 것이다. 친구들과의 교류, 스포츠, 음악, 여행, 사회참여 활동 등이 서독 청소년들이 즐기는 여가생활이고 청소년 개인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자유 시간인 것이다(Behnken, Krüger, Lindner, & Zinnecker, 1991). 이 여가생활의 패턴은 현대산업사회에서 성장하는 청소년 세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꼭 서독 청소년의 여가문화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런 상반된 체제적 특성에서 형성된 두 청소년 문화는 서로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탈동독 청소년은 또래집단문화에 대한 스트레스나 두려움까지도 갖게 된다(Helsper et al, 1991: 282). 서독 또래집단 문화에서의 부적응과 서독학교체제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사적인 차원과 제도적 차원 간의 불일치, 그리고 탈동독 학생들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의 모순적 현황을 잘 보여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서독사회의 경험

탈동독 청소년들이 서독에 정착하기 이전에 서독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는 대부분 서독 TV를 통해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서독 TV에 비친 서독사회의 모습이 전부였던 것이다. 그 외에 서독을 방문한 적이 있는

주변의 친지들로부터 들은 단편적인 여행담이나 서독친지로부터 받은, 대부분 커피나 초콜렛이 담긴 소포 등 긍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서독정착 이전에 머릿속에 그려왔던 서독의 이미지와 실제로 서독정착 이후 자신의 눈과 경험으로 확인한 서독의 현실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 무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 할 수 없지만 그 동안 DDR에서 제가 보아왔던 서독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달라요. 내가 보아왔던 것은 서독의 알록달록한 예쁜 집들, 세련된 옷들을 입고 다니는 서독사람들 정도가 다였으니까요. 막상 내가 이곳에서 백화점에라도 가면 곧장 드는 생각은 복잡한 이곳을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수많은 상품들을 보는 것도 눈이 아프고, 너무 휘황찬란해서 난 바닥만 보고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백화점 바로 앞에는 거지들이 줄을 지어 서있어요. 동전 한 개라도 달라고요. 기차역에 한 번 가보세요. 거기는 거지들과 집 없는 사람들의 집단거주지역이라니까요. DDR에서 보았던 서독 영화나 드라마, 광고에서는 그런 것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물론 DDR 학교에서 그런 서독사회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직접 보니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수잔나, 19세, Vollbrecht, 1993: 84 재구성).

상상과 실제의 '불일치 현상(Dissens-Muster)'은 탈동독 청소년에게는 일종의 문화적 충격으로까지 다가왔다. 탈동독 청소년들이 DDR의 간접 경험을 통해 형성했던 이상적인 서독의 이미지는 서독정착 이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서독사회의 양과 음의 모습을 두루 접하게 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물론 세련된 자동차와 복잡한 거리들, 깨끗한 도시환경 등과 같은 서독의 전형적인 이미지도 확인하였지만 부정적인 서독사회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강하게 각인되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극단적인 두 가지의 발견은 기존에 상상해왔던 서독사회에 대한 모순적 현실을 알게 하고 나아가 서독사회에 대해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게 만들었다. 많은 탈동독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서독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개방적이고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서독사람들의 소비문화, 즉 쇼핑은 그들의 일상적인 습관이자 태도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들은 서독주민들이 대인관계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특히 개인적 관계에서는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들을 자기 친구관계로 발전시키는데 매우 인색하다고 혹평하였다. “토착민과 이방인(Etablierten und Aussenseiter)”(Elias/Scotson, 1990) 간의 차이는 문화적 차이를 통해 두 집단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즉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토착민인 서독주민과 이방인으로서 서독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찾아야하는 탈동독자 간에 사회적 구분을 짓게 만드는 것이다. 서독식의 생활양식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것은 동서독 사회 간에 존재하는 가치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DDR에서의 생활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일종의 반항적 태도로써 자신들의 고향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자 노력하는 경향에도 기인하고 있다. 즉 서독 청소년들이 수영장, 영화관, 디스코텍, 카페 등을 출입하는데 용돈을 지출하는 것을 보고 탈동독 청소년은 ‘왜 그런 쓸 데 없는 곳에 돈을 쓰나?’하는 역반응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은 더 유용한 활동에 돈을 지출한다는 일종의 문화적 우월태도를 흔하게 보인다. 또는 서독에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등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데 비해서 DDR에서는 거의 무료로 더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훌륭한 지도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하는 유익한 곳이었으므로 동독에 비해 서독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지 않느냐고 되묻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태도들은 서독사회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으로써 소수자의 심리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④ 미래에 대한 태도

탈동독 청소년들은 새로운 서독사회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장차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직업적 포부, 결혼, 가족 등의 질문에 대한 탈동독 청소년들의 대답은 서독의 청소년들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무엇보다도 정착 이전과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직업선택에 대한 다양성과 자신이 직접 설계하는 미래의 삶에 대한 구상일

것이다. DDR은 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국가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정해주는 체제였다. 청소년들은 당으로부터 지정된 교육과 직장을 순순히 수용해야 했던 것이다. DDR과 달리 개인의 선택이 자유로워진 서독사회에서 이들이 DDR의 체제를 긍정적으로 재조명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안정된 구직과 평생직업의 보장이었다.

> 내 미래에 대한 설계는 서독에 와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DDR에서는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딱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말이죠. 당에서 내게 추천하는 몇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았을 것이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하고 어느 회사로 가야 하는지 제 앞길을 훤히 볼 수 있었어요. 저는 DDR에서 만약 운이 있었으면 아비투어(Abitur 대학입학 시험)를 보았을 테고,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당이 허락해주었겠죠. 그리고 전공에 맞는 직업을 가졌을 거예요. 일생동안 보장된 직업이었겠죠. DDR에서 해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누구나처럼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을 것이고, 당에서 주는 아파트에서 아이들 몇 명 낳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정년을 맞고... 이곳 서독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기는 해요. 당의 지시대로 내 일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의지에 달려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능성이라는 것이 너무 넓고 끝이 없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요. (수잔나, 19세, Vollbrecht, 1993: 88 재인용).

위의 인용된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탈동독 청소년들은 자본주의 원리에 따른 자유경쟁사회인 서독사회에서 자아실현의 기회와 선택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변화한 환경에 대해 당황하는 태도를 역력히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동독 청소년들은 서독사회에서 펼쳐질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환경과 직업환경은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경쟁과 성과라는 새로운 사회원리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도 주었지만 자아실현의 기회와 전공, 직업선택의 다양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도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학교에서의 성취욕과 직장에서의 성공이 탈동독 청소년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로 자리잡은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탈동독 청소년들이 남녀학생 구분없이 직장에 대한 의욕의 정도가 서독학생들보다 높고, 직장의 중요성과 물질적 안정을 인생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답하는 현상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Förster/Friedrich, 1996).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무슨 직업 교육이든지 수료 후에는 99%가 국가로부터 보장된 일자리를 받았던 DDR에서와 달리 서독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하는 현실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을 신성한 노동으로 간주해 학업의 의욕을 높였던 DDR 사회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사회에서 강조되었던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가 탈동독 청소년의 가치관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영향력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탈동독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대부분 DDR에서 직업을 가졌던 선례를 통해 직장의 당위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험을 했고, 서독사회에서 교육과 직장의 자유로운 선택은 기대감과 성취욕이라는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세대가 서독사회에 무난하게 정착한 것과도 중요한 연관이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방 통계청이나 연방 부담조정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동독 이주민의 80% 이상이 서독사회를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으며 물질적인 상황에도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가정의 생활환경, 즉 부모의 경제적인 요건, 생활수준의 안정 등이 청소년 세대의 서독사회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29]

29) 탈동독 성인세대의 만족스러운 경제상황과 개선된 생활환경은 이들의 서독사회 만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실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의 만족이나 심리적 현황과는 꼭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이영란, 2005년 참조).

5) 서독정부와 민간단체의 탈동독 청소년 지원정책

독일어권 민족의 이주와 탈동독이 긴 세월동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만큼 서독 정부의 지원정책 또한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 지원정책의 특징은 첫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연대 속에서 진행된 역할 분담, 둘째, 지방 공공단체와 자치단체(Kommune)의 독립적 조력기관의 활발한 활동, 셋째, 기독교기관, 장학재단, 사회단체 등의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의 역할 분담, 마지막으로 정착지원 같은 실질적 도움에서부터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의 제공을 들 수 있다. 정부기관으로는 각 연방, 지방주의 사회복지부, 노동부, 부담조정법 사무소(Bundes- und Landesausgleichsamt), 청소년부, 건강복지부 등 행정기관들을 들 수 있는데, 각 기관은 상호보완적인 업무연대로 탈동독 이주민의 정착지원을 다방면으로 도왔다. 지방 공공단체와 자치단체 역시 정착에서부터 심리적응(Psychosoziales Zentrum)에 이르기 까지 탈동독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대표적인 민간단체로는 신교 청소년기관(Evangelische Jugendaufbaudienst), 독일 신교 봉사기관(Diakonisches Werk der Evangelischen Kirche Deutschlands), 독일 카리타 연합(Deutscher Caritaverband), 동등한 복리연합(Der Paritätische Wohlfahrtsverband), 국제 사회복지 사업회(internationale Bund für Sozialarbeit), 청소년 사회사업회(Jugendsozialwerk), 카톨릭 청소년 사회복지 단체(katholische Arbeitsgemeinschaft fuer Jugendsozialarbeit) 등이 있다. 대형규모의 민간단체들 외에도 각 지방 공공단체와 자치단체에 있는 소규모 독립적인 사회·봉사단체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를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각 정부기관들이 탈동독자들의 입국수속 및 주거정착지원 등 제도적 차원의 행정을 담당했다면, 민간단체들은 이런 행정절차를 더욱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뿐 아니라 탈동독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정착을 돕는데 일조하였다. 이런 민간기관들의 탈동독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활동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지원을 위해 서독가족과의 자매

결연이나 서독 대부·대모 맺어주기(Pateneltern)

○ 개인적 적응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1:1 상담제공

○ 학교생활에 보다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한 개인가정교사 제공

○ 무료 진로상담

○ 서독의 가치관, 사회규범 등에 대한 세미나 강좌

○ 연극, 음악 등 취미클럽 회원 가입을 통해 서독학생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 유도

○ 엄마와 자녀, 아빠와 자녀 등 성별, 연령별 모임을 통한 가족유대 강화 프로그램

○ 일일 피크닉을 통한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 청소년을 위한 영화클럽, 스포츠, 댄스모임 주도

○ 지역 어르신들과 탈동독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일일 만남과 소풍

○ 주변 이웃들과 함께하는 파티주관

○ 다양한 지역 활동에 초대, 참여시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체성 확립에 도움주기

이 모든 활동들은 그 종류가 매우 구체적이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Brüsewitz-Zentrum, 1986). 이 프로그램들의 주요 목적은 탈동독 청소년들의 새로운 생활환경에의 적응, 서독사회 알기, 정체성 혼란의 예방을 돕는데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간단체들은 탈동독 청소년들에게 학교선택 및 직업교육 선택과 같은 진로상담, 학교생활 지도 등 서독에 도착한 후 당장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후 개인적인 상담이나 다양한 만남을 주관함으로써 도우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었다. 또한 친구, 여가활동, 스포츠, 생활 도우미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통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탈동독 청소년들이 서독사회에서 낙오되는 것을 예방하였다. 이런 민간단체들은 탈동독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이나 또래집단 관계에서의 부적응 등에 기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소외감이나 사회·문화적 충격, 상이한 정서로 인한 가치관의 충격 등 일상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

지 않았다. 그 외에도 각종 법률과 관계되는 실질적인 상담과 도움, 문화적 또는 심리적 적응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상담과 치료제공, 각종 단체의 회원들과 탈동독 청소년들 간의 개별적인 만남의 주선 등 도움과 업무의 영역은 무궁무진하였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 장학재단(Stieftung)을 통해 민간인의 기금으로 운영되며, 주정부와 각 시·도 부서와 적절한 연계 속에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렇다면 정부차원의 탈동독 청소년 지원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탈동독 청소년 복지후생을 위한 전담 사회복지사 상담지원
○ 민간지원 단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정부가 지원하는 탈동독 청소년의 서독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세미나 확대 및 전문 민간단체들에게 업무위탁
○ 전국 141개 청소년 연합기관(Jugendgemeinschaftswerken)의 탈동독 청소년 후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활동과 프로그램의 다양화(여가시간, 세미나 등 확대지원)
○ 탈동독 청소년의 학교와 직업, 사회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Garantiefonds zur schulischen, beruf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Eingliederung)
○ 학력인정과 기타 증명서 인정을 위한 별도의 기관설치 (Sonderveröffentlichung des Bundesinstituts für schulische- Berufsbildungen/ Entscheidungshilfe zur Anerkennung von Zeugnissen und Befähigungsnachweisen)
○ 탈동독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차원의 양적, 질적 수준 사전조치 위원회(Quantitative und qualitative Vorkehrung im Bildungsbereich) 설립
○ 농어촌 출신을 위한 특별 적응 프로그램(Eingliederung aus der Landwirtschaft stamender Jugendlichen) 제공
○ 부담 조정법을 통한 농어촌 정착 지원 프로그램 제공

이 외에도 연방정부가 관할하고 각 주정부에 지부를 둔 오토 베네크 재단

(Otto Bencke Stieftung)은 탈동독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를 총괄하였다. 구체적인 업무영역으로는 학교입학문제, 대학교 입학준비, 직업교육 문제 등 모든 진학문제를 관할하며, 입학서류와 절차, DDR의 학력인정 등 공식적 절차에서부터 개인적 학교생활 적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직업실습이나 직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 일반학교, 직업학교, 그 외 학교과정에 입학할 경우
○ 직업학교나 직업예비학교에 입학하거나 직업부가교육을 희망할 경우
○ DDR에서 받은 교육을 확장하거나 전공으로 심화시킬 경우
○ 전공분야를 바꿀 경우 등에 도움을 제공하였다(탈동독 주민을 위한 지침서, 서독연방정부 내무부 소책자).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서독으로 이주한 지 5년 미만인 청소년들이며, 이러한 도움들은 DDR에서 받은 모든 교육이나 학력, 직업경험이 서독에서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교육 권리를 근간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주적응 기간 동안 해당기관들의 도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차적인 위원회를 소집해서 새로운 도우미 기관이나 상담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보완되어 있었다. 이 모든 기관들은 각 연방주나 사별 행정들이 담당하여 각 도시에 정착한 탈동독 청소년들의 서독사회 적응을 극대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경우, DDR에서 했던 학업을 지속하려는 경우거나 전공을 바꾸려는 경우, 상급교육기관에서 숙련교육을 받으려는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적응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탈동독 청소년들의 학교문제와 관련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민간단체의 전문화된 실질적 지원은 서독사회의 전반적인 적응에서부터 심리적 적응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모든 도움의 목적은 단 한 가지, 탈동독 청소년을 서독사회에 한 명의 시민으로 수용하려는데 있었으며, 이들의 적응 역시 서독사회의 개방적인 태도를 통해 대부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6) 결론 및 시사점

통일 이전까지 동서독 간의 이주는 크게 불법적인 탈출과 합법적인 이주로 나눌 수 있었다. 전자가 1961년 베를린 장벽 건립 전후시기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 온 불법탈출의 이주유형이었다면, 후자는 1980년대 DDR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서독으로 넘어 온 합법적인 이주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1980년대 대부분 부모와 함께 서독사회에 정착한 탈동독 청소년들의 서독사회 적응요인을 DDR의 국가적 사회화 특성과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국가적 사회화 특성은 국가에 대한 부모세대의 반체제적 성향과 자녀세대의 국가교육기관을 통한 체제적 동화에 기인한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주를 결심한 부모들은 직·간접적으로 DDR 국가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을 경험했고 뚜렷한 이주동기를 갖고 있었던 반면, 청소년들은 DDR의 권위주의적, 전체주의적 교육체제를 통해 규격화된 규범이나 가치관, 집단적 사회화를 습득함으로써 국가 청소년으로서의 모습을 점점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있었다. 즉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는 가족 사회화와 국가 사회화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발전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가정과 제도권 사회화의 모순은 우선 이주신청 이후 대기기간 동안에서부터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이주 이전까지 자의든 타의든 공교육의 차단과 또래집단의 손실을 경험했고, 이러한 경험은 중요한 성장기 과정에 있던 청소년의 인성형성과 사회화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기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학교와 소년단으로부터 받았던 압력과 박해는 이들의 서독사회 심리적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Goldbeck, 1994: 127).

서독정착 이후 탈동독 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또래문화, 서독사회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태도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 주었다. 첫째, 서독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적극적인 태도로써 학업에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 그 이면에는 새로운 상

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소수자 콤플렉스와 위기극복의 심리가 깔려있었다. 둘째, 서독사회에서 탈동독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매우 단절된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 이유는 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독 청소년들의 또래집단이 DDR에서 경험했던 집단주의적인 또래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내용과 양상에서 매우 상이하였기 때문이었다. 개인주의적인 서독의 청소년 문화에서 탈동독 청소년은 일종의 구분 짓기를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서독청소년 문화 속으로 과도하게 스며드는 모순적인 상황도 보여주었다. 셋째, 이주 이전 긍정적인 이미지로 점철되어 있던 서독상은 정착 이후 서독사회의 양면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태도로 변화되었고, 더 나아가 이들은 DDR에서의 생활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일종의 반항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 넷째, 탈동독 청소년들은 자본주의 원리에 따른 자유경쟁사회인 서독사회에서 자아실현의 기회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간주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과 성과를 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들도 DDR의 안정된 직장과 평생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탈동독 청소년의 서독사회 적응실태를 통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재조명 해보자.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부적응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독일의 사례는 과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독주민과 북한주민들은 탈출 동기와 유형, 정착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보다는 상이점을 찾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서독 정부의 탈동독 정책의 핵심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다양한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서독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성인세대의 경우 DDR에서의 학력과 직장경력 인정, 이에 상응하는 직업재교육, 직업부가교육과 함께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국가나 단체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도 서독사회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탈동독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관·민 단체들의 상

호적 역할 분담은 학교와 일상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도 꾸준히 주었다. 그 도움의 예는 DDR에서 받았던 학교 교육의 인정, 전과의 경우 학력인정, 상급교육기관의 숙련교육과정,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한 학교적응의 문제해결, 각종 단체의 회원들과 탈동독 청소년들 간의 개별적인 만남의 주선 등을 들 수 있다.

> 독일연방정부는 새로운 연방시민에 대한 연대적인 지지를 통해 새로운 사회에 보다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정착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새로운 연방시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회적 상호협력의 연대감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모든 연방시민은 연대적인 의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연방정부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한다(독일연방 의회 문서, 1984:2-5).

위의 글은 탈동독이 증가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에 탈동독 주민을 새로운 연방시민으로 수용하는데 필요한 사회연대감을 호소하는 독일연방 의회의 기록이다. 이 글은 탈동독자를 탈출자나 이주자가 아닌 한 명의 연방시민으로 수용하는 서독사회의 개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사회주의적 가치관과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문화적 충격과 함께 한국사회의 차별과 무시, 편견과 냉대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서독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셈이다. 경제적 고통, 비일비재한 가족의 해체, 학교생활의 어려움이라는 삼중고를 안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제도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단체에 의한 실질적인 도움,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더불어 한 민족, 한 시민이라는 한국사회의 연대감과 사회적 개방성인 것이다. 과거 서독정부의 탈동독자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마디 문구가 의미심장하다.

"독일 연방 공화국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illkomm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Gärtner, 1990:65)

2. 미국 이주 청소년의 사회적응 사례

본 연구는 이민자 또는 난민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주한 청소년들의 미국 사회에서의 적응 양상과 적응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들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정부와 민간차원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의 이민자 또는 난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현상을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촉진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미국의 이민자 또는 난민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정리 요약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최근 이민자 또는 난민 청소년 현황에 관한 미국 정부 또는 연구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적응실태에 대한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한다.

1) 미국의 난민정책과 프로그램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자 유럽에서 250,000명의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1948년에 난민법의 효시가 되는 실향사민법(the Displaced Persons Act)을 제정하였다. 이후 400,000만 명의 유럽 난민들을 받아들였고, 냉전 체제가 구축되자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한국, 중국 등의 공산주의 정권을 피해 나온 피난민들을 수용하였다. 1960년대에는 쿠바 카스트로 정권을 피해 탈출한 쿠바 난민들이 대규모로 입국하였다. 이들 난민들은 미국 내 다양한 소수민족단체 및 종교단체들에 의해 지원을 받았고, 이런 전통은 미국 난민 지원정책과 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다.

1975년 4월 베트남이 함락되면서 수 만 명의 인도차이나 난민들이 발생하

자 미국 정부는 1980년에 난민법(the Refugee Act)을 제정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표준화하였다. 1975년 이후 미국은 240만 명의 난민들을 수용했고 이들 중 77%는 인도차이나 또는 구소련 출신들이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난민의 수는 매년 차이가 있으나 1980년 이후 연 평균 약 98,000명이 미국에서 난민의 신분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1) 난민정착지원체계[30]

미국의 난민정책은 정부와 민간 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 기관으로서 난민 정착 프로그램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이민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이다.

이민귀화국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지위의 자격을 갖췄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미국 입국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를 판정한다. 입국허가를 받은 난민은 12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부여된다.

국무부는 난민정착정책을 조정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난민의 입국, 문화적응교육, 미국으로의 교통편 제공 등의 업무를 관리하며, 신규 입국자들의 초기 수용 및 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활동 경비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는다. 앞서 설명했듯이 미국의 난민정착 프로그램은 정부-민간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며 민간단체들은 난민 정착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국무부는 민간단체들의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단체들이 수용 및 배치 프로그램(Reception and Placement Progra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들의 초기 정착 과정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난민정착 서비스를 관장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복건복지부

30) 미국의 난민정착지원체계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난민정착국(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홈페이지(http://www.acf.dhhs.gov/programs/orr/)에서 검색하였다(2006. 9. 16 검색). 미국 난민·이민자 위원회(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홈페이지(http://www.refugees.org)도 난민정착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의 산하기관인 난민정착국(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ORR)은 난민들에게 입국 즉시 현금 및 의료서비스와 같은 응급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입국 후 5년 동안은 취업준비와 취업알선, 직업훈련, 영어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미국 내의 민간단체들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 간에도 서로 협력하여 난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들 민간단체들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하기도 하고, 이들 중 일부는 교회집단과 지역공동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여 신규 난민들에게 의류와 가재도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민간단체들은 난민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조언자(mentor) 또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방과 후 학습 교사가 되기도 하며, 가족들에게 쇼핑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난민들로 구성된 자조단체인 상조협회(Mutual Assistance Association, MAAS)는 전국조직을 통해 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상조협회는 또한 명절이나 종교 의식을 통해 난민들이 동족 문화 및 미국 내 동족 구성원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2) 난민정착지원 프로그램

난민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국무부가 관장하는 단기 차원의 수용 및 배치 프로그램(R&P)과 보건복지부 산하 이민귀화국이 관장하는 중기 차원의 정착 및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용 및 배치 프로그램은 미국 입국 후 30일 동안 주택, 의복, 음식, 의료진료 등과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민간단체들은 이민귀화국의 재정지원으로 신규 난민들에게 과도기 현금원조(Transitional cash assistance), 의료 혜택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단체들의 주요 관심사는 직업훈련, 작업장 적응교육, 직업상담 등을 포함하는 취업관련 서비스이다.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서비스 기회도 확충하고자 노력한다. 이외에도 가족의 사회ㆍ정서적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가

족강화교육, 청소년 및 노인 서비스, 적응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과도기 현금원조는 가족 구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독신 성인과 무자녀 부부는 입국 후 8개월 동안 난민현금원조(Refugee Cash Assistance)를 받을 수 있다. 반면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은 2년 동안 실업가족을 지원하는 일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지급되는 현금원조액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며, 주(州)마다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의료혜택도 현금원조의 규칙을 따른다. 독신 성인과 무자녀 부부는 처음 8개월 동안만 난민의료원조(Refugee Medical Assistance)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은 미국 내 실업자와 저소득층 가족에게 제공되는 일반 의료서비스 프로그램(Medicaid)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입국 후 5년 동안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원프로그램은 가능하면 더 빠른 시일에 취업 및 자립을 성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하여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그리고 작업장 적응교육 등을 통해 난민들이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영어교육은 모든 난민들에게 제공되는 주요한 사회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특히 취학중인 청소년들은 이중(二重)언어 교육과 제 2언어로서의 영어(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교육을 받을 수 있다. ESL 교육은 정착초기 영어구사능력이 낮은 난민 및 이민자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교육에서 낙오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과도기적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 또는 장애인 난민들은 사회보장국(Social Service Administration)으로부터 미국 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최근 수년 동안 무연고 청소년 난민들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미국 정부는 무연고 청소년 프로그램(Unaccompanied Minors Program)통해 이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무연고 청소년들은 몇몇 주(州)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수양자녀 프로그램에 배치되어 일반적인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충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청소년들이 성인

기에 도달하면 독립적인 생활로의 전이와 진로선택의 지원을 받는다. 무연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주안점은 이들 청소년들을 가족 또는 친지들과 재결합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 한 가지의 특별 서비스 프로그램은 고문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센터와 프로그램이다. 난민귀화국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고문 피해자들에게 치료 및 재활, 사회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문 피해자를 돌보는 의료인력들을 대상으로 연구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이민귀화국은 미국 내 고문 피해자들을 위해 17개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미국에서의 난민 지원서비스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각 난민 사례의 추이를 추적하고 난민이 필요로 할 때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 주는 사례 책임자(case manager)의 활용이다. 사례 책임자 제도는 난민의 자립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이중언어, 이중문화 서비스의 제공이다. 이 제도는 난민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문화를 사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미국사회에 보다 수월하게 통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미국의 난민 및 이민자 적응양식

미국의 난민집단 중 인구 규모와 정치적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고 면밀하게 조사 연구된 집단은 베트남 난민들과 쿠바 난민들이다. 베트남 난민과 쿠바 난민의 수용 정책과 이들의 미국 사회 적응양식은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베트남 난민과 쿠바 난민은 미국 이주 시기별로 이주의 동기와 사회 계층적 특성이 확연하게 다르고 이러한 계층 배경은 미국에서의 사회적응의 속도와 형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사이공이 함락된 1975년 4월부터 1978년 사이에 미국으로 이주한 첫 번째 베트남 난민 집단은 베트남에서 정부 관료, 군인, 지식인, 상인 계층 등 비교적 부유하고 학력 수준이 높으며 대도시 출신이었다. 그러나 1978년 이후의 두 번째 난민 집단은 농촌 출신에 학력 수준도 낮은 하류층의 비율이 높았다. 두 집

단 간의 이러한 계층 차이는 미국 정착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중상류층 출신이 주를 이룬 첫 번째 난민 집단은 빠른 시기에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으나 하류층 출신이 주를 이룬 두 번째 집단은 빈곤률과 정부 보조 의존 경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Caplan, Whitmore, & Choy, 1989; Gold, 1992; Haines, 1981, 1997; Rumbaut, 1993; Wright, 1980). 이러한 사실은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계층이 다양화해 가는 시점에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양상이 계층 배경에 따라 상이할 것이며, 또한 적응시 당면하는 문제점 역시 상이할 것임을 시사한다.

1975년 베트남이 함락되면서 제1차 난민유입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미국정부는 18개의 부서들과 기관들로 구성된 '인도차이나난민기획단(Interagency Task Force for Indochinese Refugees, IATF)'을 통해 난민들의 탈출과 정착을 지원했다. 1978년 이후 제2차 난민유입이 시작되자 1980년 난민법(Refugee Act)을 제정하여 난민수용에 관한 절차를 확립하고 난민정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통일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에 난민정착국(ORR)이 신설되었다. IATF와 ORR의 기능은 정착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난민들의 행로를 기록하며 지원전략들을 조직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난민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민간자원기관(Voluntary Agencies, Volags)이라고 불리는 전국 규모를 가진 6개의 종교단체들의 연합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연합체 중에서도 가톨릭교와 유대교 종교단체의 역할이 컸다. 인도차이나와 쿠바 난민의 대부분이 가톨릭교인이라는 사실은 가톨릭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학살(Holocaust)의 경험으로 인해 난민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민간자원기관에 참가하게 된 동기였다. 이 연합체는 난민들에게 초기 정착에 필요한 기본적 지원(주거, 숙식 등), 적응교육, 상담 및 알선 서비스, 영어교육, 직업교육, 여성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다. 민간자원기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난민들에게 초기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담당할 후원자를 물색해서 배정하는 일이었다. 후원자는 개인이나 교회

가 맡았는데 마땅한 후원자가 나서지 않을 때는 민간자원기관이 그 역할을 맡았다. 이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자원기관이 주로 후원자역할을 맡게 되었다. 민간자원기관의 총괄조직인 미국자원기관평의회(American Council of Voluntary Agencies, ACVA)는 해외에 있는 난민임시수용소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개인 신상자료를 기초로 개인후원자나 민간자원기관 지역지부를 후원자로 선임하는 역할을 하였다. 난민들은 입국하면서 이 조직의 배정에 따라 친척이나 교회, 민간자원기관 지부를 찾아 지방으로 분산되었다. 1978년 제2차 대규모 난민유입이 있은 후(이 해만에도 50만 명 이상의 난민유입이 있었다.) 난민정착지원은 점차 개인 수준의 지원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인 조직과 지원망을 갖춘 제도적인 지원으로 변모하였다. 이와 동시에 난민정착의 후원자로서 난민 가족들과 민족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베트남 난민과 쿠바 난민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한 가지 점은 이들이 정착 초기 정부의 분산 수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점차로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 시나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의 가든그로브(Garden Grove)와 같은 소수민족 커뮤니티(ethnic community)로 2차 이동을 하여 재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분산 수용 정책은 난민 수용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지역적으로 분산하려는 목적과 난민이 분산해서 정착하면 현지사회로의 적응이 빠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난민들은 이러한 분산 수용 정책이 자신들의 사회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지 못하게 하는 병폐가 있음을 깨닫고 자신들끼리의 소수민족 커뮤니티로 재이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민족 커뮤니티에서 자신들만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적 신분 상승을 이루고 있다(Gold, 1994).

멕시코 이민자와 쿠바 난민을 비교 연구한 포르테스와 바크(Portes & Bach, 1985)는 마이애미 시에서 자신들의 민족경제(ethnic economy)를 이룩한 쿠바인들이 미국사회에서 노동자계층에 머물고 있는 멕시코 인들에 비해 높은 수입과 직업의 안정을 확보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베트남·쿠바 난민들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성공적인 민족 집단들은 백인 주류사회로의 무조건적인

동화보다는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지키고 서로간의 유대감과 단결력을 바탕으로 타민족 집단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춘 소위 '보호된 적소(protected niches)'를 개발함으로써 미국사회에서 신분 상승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Light, 1972; Jiobu, 1988; Yoon, 1997).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이 코리아타운에서 자영업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력을 신장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대한 최근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족성에 기초한 자조적이고 집합적인 적응양식은 미국사회에서 소수민족들이 주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다(윤인진, 2004a).

3) 이주·난민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이민과 문화변용이 이주자들에게 내재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주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도가 낮을 것이라 예상한다. 수아레즈-오로즈코(Suarez-Orozco & Suarez-Orozco, 2002)의 연구는 "사회적 반영"(social mirror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주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그들의 적응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샘 외(Sam, Berry, Phinney, & Vedder, 2006)의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이 연구는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과 같은 심리적인 변수와, 학교적응도, 일탈행위도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변수를 측정하였으나, 이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였으며, 자아 존중감에 있어서도 자국의 또래집단들과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에서 이주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수준은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학교적응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국의 또래 집단보다 이주 청소년의 경우가 조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이민이라는 삶의 변화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기대감, 호기심, 의욕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적응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주 청소년들에게 있어 적응은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나오는 산출물이라는 점에 유의하

여 적응도에 대한 평가는 건강 상태, 의사소통능력, 학업성취도, 스트레스 해소능력 등 심리, 인지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이주·난민 청소년의 사회적응 유형과 수준에 있어서의 인종 및 민족 집단별 차이이다[31]. 이러한 인종, 민족 집단별 차이에 관한 조사 연구는 출신 국가별 이주 청소년들의 적응 실태의 개괄적인 양상을 드러내준다. 각 국가에 따른 이주 청소년들의 적응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업성취도

일반적으로 중국계, 일본계, 한국계, 인도계 청소년들은 학업성취, 영어구사력, 취업 및 직업위세, 소득 등에서 미국의 주류집단인 백인 청소년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성취도를 보여 '모범 소수민족(model minority)'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 출신 청소년들은 가족, 학교, 사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학교를 중퇴하거나 노동시장에서 불완전 고용 및 실업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각 국가별 특성은 <표 Ⅳ-3>과 같다. 이렇게 특정문화권의 청소년들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은 그들이 속한 문화권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아(Lee-Beng Chua, 2002)는 중국의 유교사상과 공동체 의식과 같은 민족적인 배경이 중국계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에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e.g., Chua, 2002; Zhou, 1997) 중국 이민자들의 경우, 그들의 전통적인 가치가 높은 교육 성취와 연관되어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문화는 유교적인 믿음, 특히 인간의 순응성, 자아 변용성과 같은 특징이 있으며 이는 교육을 향한 노력과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

31) 인종 및 민족 집단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각 집단의 평균 지위를 비교하게 되면 결과 도출 및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표 Ⅳ-3> 인종 및 민족 집단별특성, 1990

인종	대학졸업률	빈곤률	인종집단	정부
Mexican	3.5%	29.7%	노동자, 밀집	적대적
Filipino	43.0%	5.9%	전문직, 분산	중립
Cuban	15.6%	14.7%	사업, 집중	우호-적대
Chinese	30.9%	15.7%	전문직, 집중	중립
Korean	34.4%	15.6%	사업, 집중	중립
Vietnamese	16.0%	25.5%	사업/노동자, 집중	우호
Dominican	7.5%	30.0%	노동자, 집중	중립
Jamaican	14.9%	12.1%	전문직/노동자, 분산	중립
Colombian	15.5%	15.3%	전문직/노동자, 분산	적대-중립
Haitian	11.8%	21.7%	노동자, 집중	적대
Laotian	5.1%	40.3%	빈곤, 집중	우호
Nicaraguan	14.6%	24.4%	전문직/노동자, 집중	적대
Cambodian	5.5%	38.4%	빈곤, 집중	우호

U.S. Bureau of the Census, *The Foreign-Born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1993 (Portes & Rumbaut (2001), p.50에서 재인용)

(2) 영어 구사력

미국과 같이 다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됨'의 의식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언어동화에 대한 압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어는 의사소통의 기능 이외에 같은 시민이라 연대감을 갖게 하는 상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주 청소년들의 영어구사력은 적응의 일차적인 도구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적응도를 드러내는 지표로 작용한다. 언어적응도는 심리적인 평온, 자존감, 삶의 만족도,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이주민의 적응도는 자국의 언어와 영어를 둘 다 능통하게 구

사할 수 있을 때 가장 높아진다고 한다(Sam et al., 2006). 특히 영어구사력을 갖추었으면서 모국어의 상실이 빨랐던 사람들은 적응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는데, 이들은 낮은 자존감을 보이며 부모의 문화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Portes & Rumbaut, 2001). <표 Ⅳ-4>는 이주 청소년들의 각 국가별 모국어 구사력과 영어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쿠바계 미국인은 마이애미에서 2개 국어를 사용하는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 여겨지고, 멕시코계 미국인은 좋은 직업을 구하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영어선호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연구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쿠바인들은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였기 때문에 영어선호도가 높고 그 2세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의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멕시코계 미국인은 외국에서 태어나고

<표 Ⅳ-4> 국가별 이주청소년들의 언어사용 및 선호도 비율

인종	모국어 구사	모국어 사용(학교)	모국어 사용(가정)	영어 선호도	2개 국어
Colombian	96.3%	67.0%	69.6%	90.1%	43%
Cuban	98.5%	65.%	59.4%	95%	61%
Mexican	97.8%	87.%	78.7%	72%	39%
Nicaraguan	98.9%	81.1%	86.1%	89%	47%
Cambodian	98.9%	73.0%	89.9%	86%	3%
Chines	84.4%	28.6%	51%	86%	10%
Filipino	81.9%	27.5%	13.4%	96%	9.8%
Hmong	100%	86.0%	96%	58%	8%
Laotian	99.3%	82.6%	92.4%	75%	0.7%
Vietnamese	98.7%	71.6%	88.7%	74.5%	6.1%
Haitian	95.5%	72.6%	50.4%	93%	14.8%
Jamaican	44.3%	25.4%	7.5%	95%	10.9%
European	60.4%	22.9%	17.7%	94.8%	12.2%

출처: Portes & Rumbaut (2001), p. 123

노동자계층 공동체에서 외부 차별에 많이 종속되어 살기 때문에 부모의 언어와 문화는 외부의 차별에 대항하는 민족 자부심의 상징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주 청소년들은 출신국 언어와 영어 둘 다 구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출신국가에 따라 모국어 또는 영어의 사용 및 구사능력에 있어서 그 정도가 판이함을 볼 수 있다. 샘 외(Sam et al.,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이민국의 언어에 더 능통하며 출신국가의 언어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민국의 언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높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구사능력에 있어서의 성별차이는 없었으며,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화이트칼라 업종일 경우 더 높은 언어구사능력을 확보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3) 자존감과 우울증

심리적 적응은 보편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적응도는 서로 다른 가치들을 가지고 있

<표 Ⅳ-5> 국가별 이주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

인종	높은 자존감	높은 우울증세
Cuban	58%	26.6%
Dominican	61%	34.2%
Mexican	42%	28%
Nicaraguan	55%	32%
Colombian	56%	33%
Haitian	49%	36%
Jamaican	59%	32%
Vietnamese	25%	34%
Laotian	25%	25%
Cambodian	25%	32%
Filipino	39%	32%
Chinese	47%	36%
European	57.4%	21.9%

출처: Portes & Rumbaut (2001), p. 208

는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도를 살펴보면, 거의 반 이상이 높은 자존감을 보이고 있으며, 1/3정도는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표 Ⅳ-5> 참조). 이러한 심리적 적응도 역시 국가별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높은 자존감을 보이는 집단들은 쿠바와 라틴 아메리카계(멕시코는 예외), 그리고 유럽인들이며, 우울증을 보이는 집단들은 주로 동남아시아의 난민 청소년들로, 베트남, 라오, 캄보디아 등지에서 온 이들이다.

4) 이주·난민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으로 이주 청소년들의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적응은 성인들보다 비교적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청소년들 역시 성인 못지않게 많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illock & Reyes, 1999; James, 1997). 이 연구들은 이주·난민 청소년들에게는 외상, 폭력, 범죄, 언어차이, 가정해체, 새로운 문화적응, 청소년기 과업을 성취해야하는 등 특별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어른보다 빠르게 적응할 것이라는 생각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주 청소년에 비해서 난민 청소년들은 전쟁이나 종교적 박해를 경험하였거나 위험상황에서의 도피, 극히 열악한 난민캠프에서의 체류 등 비극적이고 외상적인 경험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때론 죽음을 목격하기도 하였고 직접 고문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으며 가족구성원이 잔인하게 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또한 난민청소년들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을 비롯하여 그들과 친숙했던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는 일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부적적인 경험들이 그들의 새로운 정착지 적응에 많은 영향을 주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Fantino & Colak, 2001). 이들은 난민이 되는 과정에서 가족 해체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추위와 배고픔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길고 지루한 난민촌에 머무르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정착지에서는 불안해하는 어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난민촌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반사회적인 사람들에 대응하면서 살아

가야 하며, 가족 없이 난민촌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Looney, 1979, 전우택, 2000에서 재인용).

UNHCR에 의하면 난민 아동·청소년들은 전 세계적으로 매일 약 5,000명이 발생하며 이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난민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이주·난민 청소년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갖는 학교에서의 적응문제, 가정에서의 적응문제, 문화적인 적응문제, 거주지에서의 적응문제들이 개인적 배경이나 정착지의 사회문화, 이들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태도, 정착지에서의 정착지원 정책에 따라 이주·난민 청소년들의 적응에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새로운 정착지에서 이주·난민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에서의 요인

이주·난민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빨리 현지 문화에 동화되는 원인은 이들 연령이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예민하고 이에 대한 적응이 빠른 시기라는데 있다. 또한 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가 어른들의 직장보다 문화적 영향력이 크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주·난민 청소년들이 정착지에서 보이는 심리사회적인 문제와 문화변용에 대한 갈등도 학교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즉 이주·난민 청소년들이 가졌던 문화와 정착지 학교에서의 문화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할 때, 또래 및 교사들과의 문화가 다르고 그들이 소수자인 이주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그리고 현지 언어를 잘 모를 때, 이들은 우울과 혼란, 좌절을 경험하며 학교를 중단하게 된다(James, 1997). 또한 이들은 빈곤과 인종문제, 폭력 등을 포함하여 가난한 주거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수입이 낮은 지위에 머무르는 것 등에 따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학교탈락의 위험이 그만큼 높다(Gillock & Reyes, 1999). 이처럼 이주·난민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은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자신이 가진 대처능력 간의 차이, 그리고 낮은 수입을 비롯한 빈약한 사회적 자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 도시에 사는 멕시코계 미국인 고등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길록·레이예스(Gillock & Reyes, 1999)는 이들의 학교성취도가 낮은 수입 및 사회적 지지와 관계있다고 하면서, 빈약한 자원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정서적 지지를 비롯한 보호가 이들에게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2) 가정에서의 요인

언어와 교육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착지에 잘 적응하고 있는 이주 청소년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가족들 간에 일관성 있는 유대와 일체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Park, 1975). 이주 청소년들은 현지 적응에 필요한 많은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지망이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자신의 문제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체계적으로 준비된 학교의 상담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정도로 이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James, 1997). 그러나 많은 난민 청소년들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잔인하게 고문과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고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등 이들 대부분의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가족의 기능이 파괴되어 지지자의 역할로서의 역할에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기영(2000)의 이주·난민 가족연구에 따르면 난민 가정은 미국의 일반가정에 비하여 더 많은 정신건강문제를 가지며,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로 인해 자녀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일반아동보다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더 많이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난민자녀들이 정착지에 적응하는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정착지에서 부모보다 더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부모들의 권위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황, 또는 전통문화를 고수하려는 부모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자녀 간의 갈등 등으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부모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고생스럽게 일하는 보상을 자녀들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부모들은 대개 자녀들

을 과보호하거나 이전보다 더 많은 간섭을 하거나 엄격한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는 등 자녀들과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다. 게다가 정착지에서 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불가피하게 일하는 시간에 자녀들을 방치하게 되는데, 이처럼 물리적으로 자녀와 같이 있지 못하는 상태가 부모와 자식 간의 심리적 단절을 심화시킨다. 또한 부모들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울과 불안을 겪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 간의 심리적인 단절상태가 지속되면 아이들은 과반응 내재화아동(hyper-responsible internalized children)이 되기도 하고 우울을 경험하거나 혹은 갱과 같은 대안가족(alternative family)을 선택하기도 한다(전우택, 2000).

특히 가족이 없는 무연고 청소년들의 적응문제는 이주 난민을 받아들이는 여러 국가에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무의탁 청소년들은 스페인 출신의 불법 이민자 및 난민 신청자의 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착지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집단으로 지목되고 있어 정착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통일부, 2002).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정착지에서 적응문제에 심각한 위험성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고아들이나 부모들과 완전히 헤어져 동반자 없이 정착지로 온 청소년들, 일시적으로 부모들이 먼저 정착지로 오고 아이들은 고국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청소년들, 그리고 미국인 아버지와 인도차이나 어머니를 가진 혼혈아 등을 지적하고 있다.

(3) 문화적 요인과 정체감

앞서 이주·난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주·난민 청소년들은 이전 사회의 전통 문화와 정착지의 새로운 문화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할 때, 주변의 또래 및 교사들과 문화가 다르고 이주한 나라의 언어를 잘 모를 때 우울, 혼란, 좌절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Gillock & Reyes, 1999, James, 1997). 이주·난민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전통적 문화를 고수하는 분리 형태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빨리 현지에 동화되어 적응해간다. 즉 멕시코계 미국인 10대 미혼모에 대한 연구 사례

(Gillock & Reyes, 199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민 초기에 이주 청소년들은 전통가치에서 벗어나는 섹스행위를 자제하고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고자 하지만 점차 주류사회의 문화에 익숙해짐에 따라 학교교육을 중단하고 일찍 결혼하거나 임신을 반복하는 등 문화적으로 빠르게 변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스라엘 이주 청소년들의 연구에서는 이스라엘 이주 청소년들이 정착지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도 자신을 이스라엘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주 후 6년이 지난 경우,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자신을 코카시스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윤숙·윤인진, 2006). 따라서 이주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은 전통사회에서 새로운 국가로 이주하여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양 문화에 걸쳐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주거 정착지역과 주민들의 수용 태도

이주·난민 청소년들의 새로운 정착지에 대한 적응은 거주 지역사회와 이웃 등 주류 사회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이주·난민 청소년들은 주로 인종적으로 분리되고 갱들이 활동하는 저소득층 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질적으로 낮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거 환경은 이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들이 정착 사회로부터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무시를 받게 되며 부정적으로 인식될수록 이들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이는 주민들의 차별과 편견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고 한다(James, 1997; Park, 1975). 같은 맥락에서 남한사회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약 22.4%가 남한에 살면서 어려운 점이 바로 남한주민들의 편견과 무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있어서도 이들을 받아들이는 남한주민들의 태도가 문제시되고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서윤환, 2002; 윤인진, 2004b, 홍순혜·박윤숙·원미순, 2001).

(5) 새로운 정착지의 이주·난민 지원 정책

정착하는 국가의 이주민 지원정책이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예를 들면, 완전동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의 이민자들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편견이 있는 미국사회에 정착한 이민자보다 정신건강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이전 거주 국가와 현재 이주한 국가 간의 사회 경제적 차이가 크고 삶의 수준과 문화적 성격이 많이 다를 때 정신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며, 이전 국가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현 거주 국가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Park, 1975).

(6) 개인적 배경

개인적 배경은 환경적 요인과 함께 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이주·난민 청소년들은 개인적 배경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즉 이들의 적응 양상은 개인의 관점과, 교육배경, 가족유대, 언어시설, 경제문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족이 없고, 제한된 언어시설과 열악한 경제적 문제 등 사회적 자원이 부족할 때 이주청소년들의 정신건강으로 인한 입원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높은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는 그렇지 않은 이민자보다 정신질환을 적게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교육적 욕구가 정신질환을 야기하기도 하는 등 개인적 배경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도 있다(Park, 1975).

특히 많은 경우의 이주 청소년들이 언어와 교육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착지에서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 결과(Portes & Rumbaut, 2001, Rumbaut, 1994; Zhou, 1997)도 있다. 미국에 갓 이민 온 청소년들은 영어능력에서는 현지 청소년보다 떨어지지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오히려 본토 아이들보다 우수하며 매우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들의 순조로운 적응의 원인은 초기 이민 1세대 청소년들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는 긴장감과 부모들의 고생을 보상하려는 태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정착지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변화되는데 이주 청소년들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영어능력은 좋아지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나빠지고 학업성취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ortes & Rumbaut, 2001, Rumbaut, 1994; Zhou, 1997).

이와 같은 변화는 이민 1세대 청소년들은 긴장감으로 인해 많은 적응 노력을 하지만 2세대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로 인해 더 이상 적응에 대한 긴장감을 갖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민 가정이 일반 가정과 같은 수준의 경제사회적 위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이민 2세대에 대한 교육환경 및 지원이 여전히 일반 본토청소년들의 수준에 미치기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5) 시사점

(1) 강점 관점에서의 접근

앞서 살펴본 미국의 이주·난민 청소년의 사회적응의 양상을 종합해보면 비록 초기 정착과정에서는 언어, 건강, 교육, 소득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대체로 3년 이후에는 적응에 많은 진전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민족 집단별, 사회계층별로 사회적응의 수준과 속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그 수준과 속도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도차이나 난민들이 전쟁의 외상과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과 같은 배경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응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민족 집단의 내적 역량과 적응력에 따라 객관적으로 불리한 조건도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 대규모로 이민 온 신이민자들의 사회적응 양상은 종전의 난민·이민자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신이민자들은 20세기 초반에 이민 온 구이민자들(대부분 동부와 남부 유럽의 저학력의 농민, 노동자 출신)이 몇 세대를 거치면서 WASP 주류사회로 점차 동화하는 것과는 다른 사회

통합방식을 보이고 있다. 출신지역, 계층배경 등에서 내부적으로도 매우 이질적인 신이민자들은 거주국에서의 적응수준과 방식에서도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필리핀, 인도 출신의 이민자들과 같이 고학력의 중산층 이민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주류사회의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반면 멕시코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저학력과 하층배경의 이민자들은 정착사회의 밑바닥 계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적응양식을 관찰하면서 포르테스(Portes, 1996), 럼바우트(Rumbaut, 1994), 조(Zhou, 1997) 등의 학자들은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정착사회에서 적응하는 방식이 동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선적인 동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절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적응방식으로는 유럽계의 구이민자들의 경우에서처럼 점진적으로 주류사회와 문화로의 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신분상승을 통해 중류층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둘째는 주류사회의 기회구조체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밑바닥 계층(underclass)에 머물면서 실업, 빈곤, 일탈, 범죄 등의 사회문제로 고통 받고 이민 2세는 기성질서에 반항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주류사회로의 일방적인 동화를 지양하는 대신 자신들의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동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와 연결망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신분상승을 꾀하는 것이다. 이들 학자들은 베트남인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난민 자녀들이 언어장애, 생활난, 편견과 같은 악조건 하에서도 본토인들과 비교해서 학업성적과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수준이 높고 일탈 및 범죄율이 낮은 것은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부모의 기대에 충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주류사회로의 성급한 동화는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한다.

같은 시각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문제는 더 이상 결핍과 약점의 관점이 아니라 잠재력과 강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내 탈북 청소년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박윤숙·윤인진, 2006), 비록 상당수의 탈북 청소년들이 심리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남한의 제도권 학교나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아서

적응 수준과 유형에서 개인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제도권 학교나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도 적지 않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급의 또래보다 연령이 많고 북한에서 왔다고 특별하게 취급받는 것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계속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청소년들도 있으며, 중·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불과 몇 달 만에 끝내고 대학에 진학하여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무연고 청소년들도 있다. 또한 특례입학을 거부하고 남한 학생과 똑같은 평가를 거쳐 당당하게 대학에 입학하는 청소년들도 있으며, 자신의 전공을 살려 미래 사회와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부진 희망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도 있다.

탈북 청소년은 이전 북한에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오면서 빈곤한 환경에서 가정경제를 어른들과 나누어 부담지기도 하였으며, 가족이 해체되는 가슴 아픈 상황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고자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강한 기질이 잠재되어 있다. 또한 이들이 남한의 또래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삶의 역경 속에서 소중한 인생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진로가 계획된다면 강한 의지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적응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며, 동시에 자원체계가 열악하고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생활이나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호요인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와 정착지원의 과제는 이들의 부적응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적응요인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2000년을 넘어서면서 심리학계에서 우울감과 같은 병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던 부정적 심리학(negative psychology)의 관점에서 행복감과 같은 정상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긍정적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관점으로 변모하는 추세(이민규, 2006)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자조적, 집합적 적응양식의 도입

미국의 성공적인 이민자 집단들은 주류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을 소수민족 공동체 내에서 보호된 경제적 적소를 찾아내어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들은 여기서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민 2세들을 교육시켜 이들로 하여금 주류사회로 진출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신분상승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예를 취업을 원하는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적용한다면, 통상적인 직업훈련을 시키고 획일적으로 직업을 알선하여 한국사회로 직접 유입시키는 것보다는 최소한 초기 단계에 '보호된 경제적 적소'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 등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방안 중의 하나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활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윤인진, 2000b). 자활공동체는 제3섹터 또는 사회적 기업의 한 형태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빈민층, 장기실업자, 기타 사회약자 층이 수익성이 있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다(신동환, 2001). 북한이탈주민의 최초의 자활공동체는 2000년 9월 강원도 삼척에서 시작한 느릅냉면 제조업체 '대관령식품'이다. 이후 느릅분말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을 제조하는 유사 업체들이 생겨났다. 이들 중 몇 업체는 느릅냉면을 구매하는 협력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교회 및 봉사단체들의 단체 구입이 늘어나면서 수익분기점을 넘어 성장추세에 있다. 이렇듯 자활공동체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게 함으로써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들과 우리 사회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생산적 복지가 될 것이다.

자활공동체는 또한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소득의 증대라는 직접적인 이득을 줄 뿐 아니라, 이러한 소득의 증대를 바탕으로 이들의 자녀가 되는 1.5세대 및 2세대들에게도 간접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이주민 2세들의 신분상승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들을 위한 자활공동체는 단기적으로는 이곳에서 일하는 본인들의 취업 및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들 자녀

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북한이탈 주민들이 자활공동체를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경제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면, 그들의 자녀들은 보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이들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것을 끊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결국 북한이탈 주민들의 1.5세대 또는 2세대가 한국사회에 보다 쉽게 뿌리내리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난민 연구에서 중상류층 출신의 난민집단은 하류층 난민집단에 비해 보다 수월하게 미국사회에 적응하였다는 결과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3) 지원책으로서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미국의 난민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한마디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충과 같이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무연고 특별 수양자녀 프로그램과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제도, 고문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센터와 프로그램, 사례 책임자의 활동 등은 모두 난민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난민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주는 사례 책임자의 활용은 미국 난민 지원 서비스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은 북한이탈 주민들을 위한 지원제도에도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 및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 무연고 청소년, 외상경험이 있는 이들 등 북한이탈 주민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충을 하며, 이들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적응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도 조사: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분석틀
2. 연구대상
3. 측정도구
4.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5. 결과

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도 조사: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한국 내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들에 대한 선행연구와 외국사례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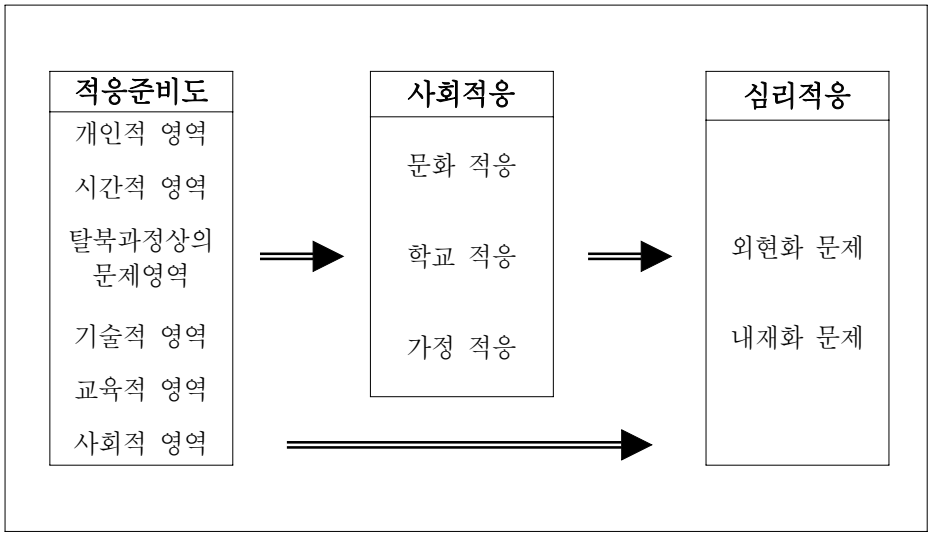
1.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여러 영역에서의 적응준비 정도에 따라 사회적응, 즉 문화, 학교, 가정 내에서의 적응수준이 다를 것이다.

2.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여러 영역에서의 적응준비 정도에 따라 심리적응 수준이 다를 것이다.

3. 사회적응 수준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 수준은 다를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 내에서 사회 및 심리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영역에서의 적응 준비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개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회적 영역, 기술적 영역, 시간적 영역, 교육적 영역, 개인적 영역, 탈북과정상의 문제영역과 같은 영역들에서 적응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영역: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및 건강상태, 종교
2. 시간적 영역: 남한 거주기간, 탈북시기 및 제 3국 거주기간



[그림 Ⅴ-1]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준비도와 사회 및 심리적응 간의 관계

3. 탈북과정상의 문제영역: 외상경험 및 죄책감의 정도
4. 기술적 영역: 의사소통의 정도,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획득의 정도
5. 교육적 영역: 하나원 및 하나둘학교에서의 교육여부, 남한에서의 정규교육 및 정규학교 이외의 교육여부
6. 사회적 영역: 가족의 유무, 남한친구의 유무, 북한에서 온 친구의 유무, 후원자의 유무

또한 사회적응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문화, 학교, 가정의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그중 문화적응은 남한문화 적응과 북한문화 적응으로 나누어[32] 보았다. 또한 심리적 부적응 현상은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심리적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32) 제 3장에서 언급했듯이 문화적응은 부적응과 부분적응, 완전적응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적응에 있어서 가정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완전적응은 남한문화와 북한문화 모두에서의 높은 적응수준을 의미한다(윤인진, 2000a).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수준을 남한문화 적응수준과 북한문화 적응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가설 및 적응 영역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Ⅴ-1]과 같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도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하나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8곳에 재학 중인 학생집단(120명)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 접촉이 가능한 북한이탈 청소년집단(80명)이었다. 조사 당시 이들의 연령범위는 만 11살에서부터 29살[33]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약 만 19세(231개월, 표준편차 = 35.73, 무응답자 8명 제외)였다. 또한 이들의 성별은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하고 남자가 99명, 여자가 95명이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 즉 적응준비도, 사회적응, 심리적응에 관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 적응준비도

적응준비도에 관한 설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적 영역(6문항), 시간적 영역(3문항), 탈북과정상의 문제영역(18문항), 기술적 영역(4문항), 교육적 영역(5문항), 사회적 영역(9문항)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33)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9~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24세 이상이라도 제 3국에서의 불안정한 생활 및 교육의 공백으로 인해 아직도 중·고등학교 학생의 신분인 경우 본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연구 분석틀에서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설문 문항들은, 탈북과정상의 문제영역 중 외상경험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주로 김형태(2004)와 박윤숙(2006)의 설문문항을 참고로 하여 제작되었다.

탈북과정상의 문제영역 중 외상경험에 관한 문항은 강성록(2000)이 제작한 외상경험 척도를 금명자 등(2004)이 그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강성록은 북한 내에서 겪을 수 있는 외상 경험에 대한 문항 25개와 탈북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외상경험에 대한 문항 19개, 총 44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중에서 금명자 등은 청소년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치체계에 대한 문항[34]을 제외하고 북한 내 경험에 대한 문항과 탈북과정상에서의 경험에 대한 문항 중 비슷한 문항을 합쳐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또 겹치는 문항들[35]을 합쳐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2) 사회적응

사회적응에 관한 설문은 크게 가정적응, 학교적응, 문화적응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부분에 대한 문항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적응에 대한 설문문항은 2개 문항을 한 쌍으로 하여 총 2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두 쌍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쌍을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와 가족외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경우로 나누어 질문하였기 때문이다. 설문내용은 응답대상자가 가족(또는 동거인들) 안에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와 가족 구성원들(또는 동거인들)이 서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학교적응에 관한 설문문항은 총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으로는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학교 내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

34) 정치체계와 관련된 문항은 '정치범수용소에 갇혔던 적이 있었다.', '자신의 정치적 과오로 인해 사상성을 의심받아 긴장한 적이 있었다.' 등의 문항이다.

35) 북한 내 경험과 탈북과정상의 경험에 대한 질문 중 겹치는 내용은 '식량 및 음료 부족의 경험', '가족 및 동료와의 예기치 않은 헤어짐에 대한 경험', '모욕, 배신, 성적 모욕의 경험'에 관한 문항이다.

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가정적응 및 학교적응에 관한 설문문항들은 김형태(2004)와 박윤숙(2006)의 설문문항을 참고로 하여 제작되었다.

셋째, 문화적응에 대한 설문문항은 금명자 등(2003)이 사용한 남북한 문화에 대한 문화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금명자 등이 사용한 척도는 원래 Ahn(1999, 금명자 등(2003)에서 재인용)이 사용한 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KMEI)를 번안하여 활용한 것이다. KMEI는 총 42문항이었으나 금명자 등은 내적 타당도 검사 및 요인분석을 통하여 신뢰도 및 eigen-value가 떨어지는 문항을 삭제하고 총 38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금명자 등이 연구에서 보고한 요인 부하량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요인 간 변별력이 약하면서 요인 부하량이 0.5미만인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26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금명자 등(2003)은 척도의 요인을 모두 2개로 보고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남한 선호 정체감'으로, 다른 하나는 '북한 선호 정체감'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 1요인과 2요인에 관련된 문항을 각각 13개씩 사용하였다.

3) 심리적응

심리적응에 관한 척도는 표준화 척도인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 중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에 속하는 내재화 문제 척도와 외현화 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K-YSR의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는 모두 119문항으로, 각 문항은 0점(전혀 없다), 1점(가끔 보이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 2점(자주 있거나 심한 경우)의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장점은 표준화된 척도라는데 있다. 즉 각 척도에 대한 백분위 점수 및 표준 점수가 제시되어 있어 설문응답자들이 규준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재화 문제 척도와 외현화 문제 척도는 각각 31문항과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재화 문제 척도는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신체적 증상 등 내재화 되고 과잉통제된 행동을 평가하는 척도(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62점이

다. 이 척도는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이라는 세 가지 하위 척도로 이루어졌다. 외현화 문제 척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 싸움, 비행 등 외현화되고 과소통제된 행동을 평가하는 척도(오경자 외 2001)”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60점이다. 이 척도는 비행과 공격성이라는 두 가지의 하위 척도로 이루어졌다.

4.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 달간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대안학교 8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개인적 접촉이 가능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자료수집은 대안학교 교사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즉 대안학교의 학생들의 자료는 대안학교의 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집하였으며, 개인적 접촉이 가능한 청소년들의 자료는 현재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 3명의 도움을 받아 수집하였다. 설문지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40분 정도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전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5. 결과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준비도와 이들의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틀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준비도는 크게 시간적 영역, 개인적 영역, 탈북과정상의 문제 영역, 교육적 영역, 기술적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적응의 영역은 크게 사회적응과 심리적응으로 나누어 보았다. 사회적응은 다시 문화적응, 학교적

응, 가정적응으로 나누었으며, 심리적응은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적응준비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 준비도의 수준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영역

개인적 영역에서의 적응 준비도는 연령, 성별, 건강상태, 신장 및 종교의 유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 설문에 응답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이들의 평균연령은 만 19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6~20세가 1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1~ 25세가 50명, 11~15세가 26명, 26~30세가 2명 순(무응답자 8명 제외)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하고 남자가 99명, 여자가 95명이었다. 연령과 성별의 총 무응답자 11명을 제외하고 그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Ⅴ-1>과 같다.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 응답률(무응답자 27명 제외)을 보면, '매우 좋다'또는'좋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109명(36.4%)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48명(27.7%), 그리고'나쁜 편' 또는'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모두 16명(9.3%)이었다(<표 Ⅴ-2>).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90%이상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적어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하여 탈북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0%라도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이들에 대한 주의 및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Ⅴ-1> 응답자의 연령대 및 성별

(단위: 명)

	11~15세	16~20세	21~25세	26~30세	합계
남자	6	59	31	1	97
여자	19	54	18	1	92
합계	25	113	49	2	189

<표 Ⅴ-2> 응답자의 건강상태 및 종교

(단위: 명)

건강상태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합계
46	63	48	14	2	173

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다	합계
125	6	1	4	50	186

북한 이탈 청소년 응답자들의 종교를 살펴보면(무응답자 14명 제외),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125명이 개신교라고 응답하여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표 Ⅴ-2>).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모두 50명(26.9%)이었으며 천주교, 불교, 기타가 각각 6명, 1명, 4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신장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는 166.78cm(표준편차=5.40), 여자의 경우는 155.36cm(표준편차 5.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령이 19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다소 키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시간적 영역

시간적 영역에서의 적응 준비도는 탈북시기 및 남한 입국시기, 제3국에서의 거주기간으로 나누어 보았다(<표 Ⅴ-3>). 우선 이들의 탈북시기 분포를

<표 Ⅴ-3> 응답자의 탈북, 입국 및 제 3국 거주 기간

(단위: 명)

기간	탈북 이후의 기간	입국 이후의 기간	제 3국 거주 기간
12개월 이전	5	24	64
13~60개월	85	153	92
61~108개월	89	20	36
109개월 이후	19	-	-
합계	198	197	192
평균(표준편차)	66.30(33.60)	32.31(18.67)	33.34(28.06)

<표 Ⅴ-4> 죄의식의 정도

항목	그렇다(%)	아니다(%)
나는 헤어진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50(25.3%)	148(74.7%)
내가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왔다는 사실로 인해 괴로울 때가 있다.	121(61.5%)	76(38.6%)

보면, 8개월 전에 탈북한 청소년에서부터 16년 전에 탈북한 청소년까지 있었으며, 이들의 평균 탈북기간은 약 66개월(약 6년 6개월, 표준편차 33.60)) 이었다. 탈북 후 제 3국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약 33개월(2년 9개월, 표준편차 28.06)이었으며 거주 기간의 범위는 0개월에서 99개월에 걸쳐 분포하였다. 마지막으로 입국시기를 보면, 1개월 전에 입국한 청소년에서부터 80개월 전에 입국한 청소년까지 있었으며 평균 입국시기는 32개월(2년 8개월, 표준편차 18.67)전이었다.

(3) 탈북과정상의 문제

탈북과정상의 문제는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겪었던 외상 경험의 정도와 탈북에 대한 죄의식의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Ⅴ-4>). 죄의식의 정도를 먼저 살펴보면, 죄의식의 총점 평균은 5.30(표준편차 1.46, 무응답자 5명 제외)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헤어진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약 75%이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약 25%로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괴로워하는 사람들(39%)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6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상경험의 총점 평균은 35.65점(표준편차 10.11, 무응답자 18명을 제외)이었으며 각 항목별 경험자의 비율은 <표 Ⅴ-5>와 같다. 외상 경험의 항목 중 “탈북과정에서 외국의 낯선 땅, 언어를 처음 대하고 몹시 두려웠다.” 라는 항목은 응답자의 약 72%가 경험한 것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Ⅴ-5> 외상 경험자의 비율

항목	비율(%)
1.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식량부족이나 심한 추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63.8
2.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고문당하거나 공개 처형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50.7
3.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가족이나 동료와 예상치 않게 강제로 이별을 당한 적이 있다.	44.7
4.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가족, 친지가 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자살하여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37.3
5.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식량을 구하러 나간 후 소식을 몰라 몹시 불안했던 적이 있다.	53.0
6. 북한에서 가족이나 친지가 정치과오로 인해 처벌을 받아 공포를 느낀 적이 있다.	31.0
7.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홍수나 가뭄, 산불 등 자연재해로 몹시 놀란 적이 있다.	44.7
8.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심한 모욕이나 욕설, 성적 모욕, 배신을 당한 적이 있다.	40.4
9.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나의 질병을 고치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고 심하게 놀란 적이 있다.	19.6
10.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어딘가로 끌려가서 심하게 맞거나 고문을 당한 적이 있다.	25.5
11. 탈북과정에서 외국의 낯선 땅, 언어를 처음 대하고 몹시 두려웠다.	71.5
12. 탈북 과정에서 북한이나 중국 경비병에게 검열을 받아 몹시 긴장한 적이 있다.	62.9
13. 탈북 준비나 과정 중에 발각될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다.	56.5
14. 탈북 과정에서 추격이나 사격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23.4
15. 탈북 과정에서 한국대사관 등에 망명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충격을 받았다.	17.3
16. 탈북과정에서 돈이나 식량 등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적이 있다.	34.2

그 외에도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식량부족이나 심한 추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63.8%).”,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고문당하거나 공개 처형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50.7%).”,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식량을 구하러 나간 후 소식을 몰라 몹시 불안했던 적이 있다(53%).”, “탈북 과정에서 북한이나 중국 경비병에게 검열을 받아 몹시 긴장한 적이 있다(62.9%).”, “탈북 준비나 과정 중에 발각될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다(56.5%).” 등의 항목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험했다고 응답한 항목들이다.

(4) 기술적 영역

기술적 영역에서의 적응 준비도는 의사소통의 정도와 정보획득의 정도로 나누어 보았다. 각 항목별 응답비율은 <표 Ⅴ-6>과 같다. 언어 소통에 문제를 느끼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기(51%)보다는 상대방이 본인의 말을 못 알아들어 답답한 경우(58%)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획득의 정도를 살펴보면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75%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또

<표 Ⅴ-6> 의사소통 및 정보획득의 정도

항목	그렇다(%)	아니다(%)
(남한에서 사용하는 말이 북한에서 사용하던 말과 달라)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답답할 때가 있다.	114(57.5%)	84(42.5%)
(남한에서 사용하는 말이 북한에서 사용하던 말과 달라) 내가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어 답답할 때가 있다.	100(50.5%)	98(49.5%)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 당황할 때가 있다.	144(75%)	48(25%)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칙이나, 제도 등을 잘 몰라 손해를 볼 때가 있다.	117(58.5%)	83(41.5%)

한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칙이나 제도를 잘 몰라 손해를 보았다는 응답도 과반 수 이상이었다.

(5) 교육적 영역

교육적 영역에서의 적응 준비도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류[36] 및 학교급, 하나원 교육의 만족 정도, 하나둘 학교의 만족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종류 및 학교급은 <표 Ⅴ-7>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약 36%(50명)가 정규학교에 다니며 약 54%(75명)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그러나 학교종류의 응답과 관련하여서는 이 조사가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모두 10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8%에 이르렀다.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하나원 교육 및 하나둘 학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약 70%이상은 각 항목에서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표 Ⅴ-8>). 즉 응답자 중 84%는 전반적인 하나원 생활에 만족하였고 약

<표 Ⅴ-7> 각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

(단위: 명)

	안다님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계
안다님	8	-	-	-	-	8
정규학교	-	1	16	14	19	50
대안학교	-	2	36	37	-	75
검정고시학원	-	1	2	3	-	6
기타	-	-	-	1	-	1
합계	8	4	54	55	19	140

36) 학교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즉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집단, 정규학교에 다니는 집단, 대안학교 및 검정고시학원 등 기타 교육기관에 다니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Ⅴ-8> 하나원 교육 및 하나둘 학교에 대한 만족도

항목	그렇다(%)	아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165(84.2%)	31(15.8%)
하나원에서 받은 교육은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131(66.9%)	65(33.2%)
하나둘 학교에서의 생활은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123(75.0%)	41(25.0%)
하나둘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학업준비에 도움이 되었다.	119(72.1%)	46(27.9%)

70%는 하나원 생활이 이후 남한사회 적응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하나둘 학교가 남한사회 적응 및 이후 학업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이들 역시 전체 응답자의 70%이상으로 나타났다.

(6) 사회적 영역

사회적 영역에서의 적응 준비도는 남한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형태[37] 및 크기, 북한에서 내려 온 친구들 및 남한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친구외의 사회적 지지원의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먼저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형태를 살펴보면 가족 모두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무응답자 5명 제외)의 약 46%(90명), 가족 중 일부만 남한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36%(71명), 그리고 가족 없이 혼자만 남한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17%(34명)로 나타났다. 가족의 크기를 살펴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함께 사는 가족의 평균수는 2.4명(표준편차 2.64)이었으며 외가쪽 가족까지 포함하여 최대 25명이 남한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들이 맺고 있는 남·북한 친구 및 사회적 지지원과의 관계를 파악하

37)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형태는 가족 전부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일부분만 거주하는지, 또는 혼자만 거주하는지로 나누어 보았다.

<표 Ⅴ-9> 교우 및 사회적 지지원과의 관계

항목	그렇다(%)	아니다(%)
북한에서 온 친구들 중에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만한 친구가 있다.	135(67.8%)	64(32.1%)
북한에서 온 친구들 중에는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는 친구가 있다.	136(68.3%)	63(31.7%)
남한 친구들 중에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만한 친구가 있다.	98(49.3%)	101(50.8%)
남한 친구들 중에는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는 친구가 있다.	96(48.8%)	103(51.3%)
내 주변에는 가족(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과 친구 이외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만한 사람이 있다.	141(71.3%)	56(28.3%)
내 주변에는 가족(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과 친구 이외에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146(74.1%)	51(25.9%)

기 위한 질문에 응답한 비율은 <표 Ⅴ-9>와 같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남한 친구들(약 49%)보다는 북한에서 온 친구들(약 68%)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과 친구 외의 사회적 지지원을 보면 70%가 넘는 응답자들은 비교적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지지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6~28%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사회적 지지원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적응 준비도에 있어서 각 영역별로 응답자들의 분포와 평균 등을 살펴보았다.

2) 사회적응

(1) 문화적응

여기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 준비도와 문화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적응준비도는 크게 6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문화적응은 남

한문화 적응과 북한문화 적응으로 나누어 보았다. 따라서 각 영역의 적응 준비도가 남한문화 적응수준과 북한문화 적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① 개인적 적응 준비도와 문화적응

개인적 적응 준비도, 즉 연령, 성별, 건강상태 및 종교의 유무에 따라 응답자들의 남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38]. 회귀분석을 위해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은 ±.00~.22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은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10>에 제시하였다. <표 Ⅴ-10>에 따르면, 성별만이 남한문화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남자 응답자들에

<표 Ⅴ-10> 남한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50)

변인	남한문화 적응 (DV)	1	2	3	4	*B*	β	ΔR^2
1. 연령	.051	--						
2. 성별	.217**	.166*	--			2.440**	.217	.047
3. 건강상태	-.047	.062	.000	--				
4. 종교유무	.010	-.051	-.015	.020	--			
						절편 = 37.627	R^2 = .047	
평균	41.28	229.67	1.50	2.23	1.73	교정된 R^2 = .041		
표준편차	5.65	35.76	.50	.96	.45	R = .217**		

* p < .05 ** p < .01

38) 연령은 월령으로 계산하였으며, 건강상태는 5점 척도로 하여 매우 건강하다는 1점,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는 5점으로 계산하였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1, 여자는 2로 표시하였으며 종교의 유무에서는 종교가 없으면 1, 종교가 있으면 2로 표시하였다. 또한 남한문화 적응척도는 모두 14문항으로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의 범위는 최소 14점에서 최대 56점까지 받을 수 있다.

비해 여자 응답자들이 남한 문화에 보다 잘 적응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의 성별이 남한문화 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 R^2값은 4%로 설명력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적 적응 준비도가 북한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39]. 그에 앞서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역시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11>에 제시하였다. <표 Ⅴ-11>에 따르면, 성별만이 북한문화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응답자들이 여자 응답자들에 비해 북한 문화를 더 고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이 가지는 북한문화 적응정도에 대한 설명력(R^2)은 5%정도로 나타났다.

② 시간적 적응 준비도와 문화적응

시간적 적응 준비도(북한이탈 기간, 남한 거주기간, 제 3국 거주기간)[40]가

<표 Ⅴ-11> 북한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55)

변인	북한문화 적응 (DV)	1	2	3	4	*B*	β	ΔR^2
1. 연령	.120	--						
2. 성별	-.229**	-.136*	--			-2.645**	-.229	.053
3. 건강상태	-.034	.070	.027	--				
4. 종교유무	.027	-.034	-.005	.003	--			
					절편 = 35.570	R^2 = .053		
평균	31.65	229.01	1.48	2.20	1.74	교정된 R^2 = .046		
표준편차	5.78	34.99	.50	.96	.44	R = .229**		

* p < .05 ** p < .01

39) 북한문화 적응척도는 모두 16문항(4점 척도)을 사용하여 점수의 범위는 최소 16점에서 최대 64점까지 받을 수 있다.

40) 탈북시기, 입국시기, 제 3국 거주기간은 모두 개월로 계산하였다.

<표 Ⅴ-12> 시간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76)

변인	1	2	3	4	평균	표준편차
1. **남한문화 적응**	--				41.66	6.12
2. 북한 이탈기간	-.090	--			65.02	33.78
3. 남한 거주기간	-.058	.548**	--		32.14	18.69
4. 제 3국 거주기간	-.106	.738**	.116	--	32.60	27.75

(*N*=183)

변인	1	2	3	4	평균	표준편차
1. **북한문화 적응**	--				32.33	6.09
2. 북한 이탈기간	.004	--			66.83	33.63
3. 남한 거주기간	-.021	.538**	--		32.41	18.78
4. 제 3국 거주기간	.057	.737**	.096	--	34.05	28.18

** p < .01

남한과 북한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각 알아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남북한 문화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2>는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간의 상관계수이다.

③ 탈북과정상의 문제와 문화적응

탈북과정상의 문제(외상경험, 죄책감)[41]가 남한과 북한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각 알아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남한문화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3>은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간의 상관계수이다.

한편 북한문화 적응에 있어서는 두 예언 변인 모두 북한 문화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죄책감이 클수록 북한문화를 고수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14>에 제시하였다. 북한문화 적응정도에 대한 각 변인들의

41) 외상 경험척도는 모두 16문항(4점 척도)을 사용하여 점수의 범위는 최소 16점에서 최대 64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죄책감 척도는 모두 2문항(4점 척도)으로 점수의 범위는 2~8점이다.

<표 Ⅴ-13> 탈북과정상의 문제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64)

변인	1	2	3	평균	표준편차
1. **남한문화 적응**	--			41.40	6.22
2. 외상경험	-.029	--		35.79	9.76
3. 죄책감	.024	.076	--	5.37	1.42

설명력(R^2)은 죄책감의 경우는 약 10%, 외상경험의 경우는 약 6%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인의 총 설명력은 약 15%정도이다.

④ 기술적 적응 준비도와 문화적응

기술적 적응 준비도(의사소통 및 정보획득 정도)[42]가 남한과 북한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각 알아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의사소통의 정도나 정보획득의 정도가 남한 문화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5>는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간의 상관계수이다.

<표 Ⅴ-14> 북한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탈북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70)

변인	북한문화 적응 (DV)	1	2	*B*	β	ΔR^2
1. 죄책감	.308**	--		1.162**	.279	.095
2. 외상경험	.272**	.119	--	.145**	.239	.056
				절편 = 20.984	R^2 = .151	
평균	32.39	36.24	5.30		교정된 R^2 = .141	
표준편차	6.09	10.04	1.46		R = .389**	

** p < .01

42) 의사소통 척도와 정보획득 척도는 각각 2문항(4점 척도)씩을 사용하여 점수의 범위는 2~8점이다.

<표 Ⅴ-15> 기술적 적응 준비도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73)

변인	1	2	3	평균	표준편차
1. **남한문화 적응**	--			41.36	6.15
2. 의사소통	.027	--		5.20	1.40
3. 정보획득	-.030	.416**	--	5.69	1.31

** p < .01

한편 북한문화 적응에 있어서는 정보획득의 정도가 북한 문화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획득이 어려워 손해를 보거나 당황한 적이 많을수록 북한문화를 고수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16>에 제시하였다. 북한문화 적응정도에 대한예언변인(정보획득의 정도)의 설명력(R^2)은 약 2%정도로 낮은 편이다.

⑤ 교육적 적응 준비도와 문화적응

교육적 적응 준비도(정규학교 재학여부, 학년, 하나원에 대한 만족도,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43]가 남한과 북한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

<표 Ⅴ-16> 북한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탈북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81)

변인	북한문화 적응 (DV)	1	2	*B*	β	ΔR^2
1. 의사소통	.132**	--				
2. 정보획득	.155**	.389**	--	.695*	.155	.024
				절편 = 28.204	R^2 = .024	
평균	32.19	5.18	5.74		교정된 R^2 = .019	
표준편차	6.04	1.43	1.35		R = .155*	

* p < .05 ** p < .01

43) 정규학교 재학여부는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면 1, 그렇지 않으면 2로 표시하였다. 학년은 중학교는 7~9학년, 고등학교는 10~12학년, 대학교는 13~16학년으로 표시하였다. 하나원 및 하나둘 만족도 척도는 각각 2문항(4점 척도)씩을 사용하여 점수의 범위는 2~8점이다.

<표 Ⅴ-17> 교육적 적응 준비도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84)

변인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1. **남한문화 적응**	--					40.70	6.31
2. 정규학교 재학여부	-.015	--				1.66	.48
3. 학년	.063	-.197*	--			9.93	2.06
4. 하나원 만족도	.166	-.332**	-.076	--		5.77	1.26
5. 하나둘학교 만족도	.090	-.071	-.025	.435**	--	5.56	1.34

(*N*=87)

변인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1. **북한문화 적응**	--					31.58	5.95
2. 정규학교 재학여부	.124	--				1.66	.48
3. 학년	-.106	-.166	--			9.84	2.18
4. 하나원 만족도	.129	-.386**	-.152	--		5.76	1.28
5. 하나둘학교 만족도	.011	-.121	-.023	.469**	--	5.51	1.37

* p < .05 ** p < .01

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각 알아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남북한 문화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7>은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간의 상관계수이다.

⑥ 사회적 적응 준비도와 문화적응

사회적 적응 준비도, 즉 남한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형태 및 크기, 북한에서 내려 온 친구들 및 남한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친구외의 사회적 지지원의 여부[44]가 남한문화 적응과 북한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우선 남한문화 적응과 관련하여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각

44)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 형태는 '없다(혼자 산다)'가 1, '일부분만 거주한다'가 2, '모두 거주한다'가 3으로 표시되었고 가족의 크기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수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 및 남한친구들과의 관계, 가족 및 친구외의 사회적 지지원과의 관계척도는 각각 2문항(4점 척도)씩을 사용하여 점수의 범위는 2~8점이다.

<표 Ⅴ-18> 남한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73)

변인	남한문화 적응(DV)	1	2	3	4	5	B	β	ΔR^2
1. 북한친구	.051	--							
2. 남한친구	.340**	.229**	--				1.216**	.340	.116
3. 지지원	-.007	.177**	.105	--					
4. 가족형태	-.020	-.056	-.136*	-.025	--				
5. 가족크기	-.007	.041	.106	.030	-.505**	--			
							절편 = 35.709	R^2 = .116	
평균	41.67	5.65	4.90	5.88	1.68	2.53	교정된 R^2 = .110		
표준편차	6.16	1.61	1.72	2.50	.73	2.72	R = .340**		

* p < .05 ** p < .01

변인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18>에 제시하였다. <표 Ⅴ-18>에 따르면, 남한친구들과의 관계가 남한문화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친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남한문화에 대한 적응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남한친구들과의 관계정도가 남한문화 적응정도에 대한 설명력(R^2)은 약 12%정도로 나타났다.

북한문화 적응과 관련하여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역시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표 Ⅴ-19>), 남한친구들 및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친구외의 사회적 지지원이 북한문화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남한친구들과의 관계는 소원할수록, 반대로 북한친구 및 사회적 지지원과의 관계는 긴밀할수록 북한문화를 더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문화 적응정도에 대한 각 변인들의 설명력(R^2)을 살펴보면, 북한친구와의 관계가 약

<표 Ⅴ-19> 북한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79)

변인	북한문화 적응(DV)	1	2	3	4	5	*B*	β	ΔR^2
1. 북한친구	.380**	--					1.443**	.386	.144
2. 남한친구	-.168**	.175**	--				-.911	-.253	.057
3. 지지원	.258**	.184**	.082	--			.442	.208	.042
4. 가족형태	-.053	-.106	-.113	-.080	--				
5. 가족크기	-.005	.056	.097	.079	-.525**	--			
					절편 = 25.971		R^2 = .242		
평균	32.28	5.60	4.84	5.96	1.71	2.49	교정된 R^2 = .229		
표준편차	6.10	1.63	1.69	2.86	.74	2.71	R = .492**		

* p < .05 ** p < .01

14%, 남한친구와의 관계가 약 6%, 사회적 지지원과의 관계가 약 4%정도로 이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약 24%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남한문화 적응에 유의하게 작용한 변인은 성별과 남한친구들과의 친밀정도였다. 한편 북한문화 고수에 유의하게 작용한 변인은 성별, 가족 및 북한을 떠나온 것에 대한 죄책감의 정도, 외상 경험의 정도, 남한생활에 필요한 정보획득의 수준, 남북한 친구 및 사회적 지지원과의 친밀정도로 나타났다.

(2) 학교적응

여기서는 응답자들의 각 영역별 적응 준비도와 이들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① 개인적 적응 준비도와 학교적응

개인적 적응 준비도(연령, 성별, 건강상태 및 종교의 유무)에 따라 응답자들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45].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은 ±.02~.18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변인들의 다

45) 학교적응 척도는 모두 3문항으로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4점에서 12점까지이다.

<표 Ⅴ-20>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42)

변인	학교적응 (DV)	1	2	3	4	*B*	β	ΔR^2
1. 연령	-.026	--						
2. 성별	.057	-.162*	--					
3. 건강상태	-.145*	.011	.078	--				
4. 종교유무	.177*	-.151*	.008	.024	--	.671*	.177	.031
					절편 = 7.929		R^2 = .031	
평균	9.11	229.63	1.49	2.24	1.75		교정된 R^2 = .024	
표준편차	1.64	36.13	.50	.95	.43		R = .177*	

* p < .05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20>에 제시하였다. <표 Ⅴ-20>에 따르면, 종교의 유무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종교의 유무가 학교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 R^2값은 3%로 설명력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시간적 적응 준비도와 학교적응

시간적 적응 준비도(북한이탈 기간, 남한 거주기간, 제 3국 거주기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1>은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간의 상관계수이다.

③ 탈북과정상의 문제와 학교적응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탈북과정상의 문제(외상경험, 죄책감)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2>는 각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간의 상관계수이다.

<표 Ⅴ-21> 시간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66)

변인	1	2	3	4	평균	표준편차
1. 학교적응	--				9.18	1.76
2. 북한 이탈기간	-.113	--			66.60	33.75
3. 남한 거주기간	-.115	.502**	--		32.52	19.07
4. 제 3국 거주기간	-.092	.712**	.023	--	33.46	28.32

** p < .01

④ 기술적 적응 준비도와 학교적응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술적 적응 준비도(의사소통 및 정보획득 정도)의 하위 변인 중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2>는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간의 상관계수이다.

<표 Ⅴ-22> 탈북 과정상의 문제 및 기술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54)

변인[1]	1	2	3	평균	표준편차
1. 학교적응	--			9.29	1.70
2. 외상경험	-.087	--		36.90	9.65
3. 죄책감	.018	.135*	--	5.33	1.47

(*N*=162)

변인[2]	1	2	3	평균	표준편차
1. 학교적응	--			9.20	1.68
2. 의사소통	.138*	--		5.18	1.42
3. 정보획득	.094	.387**	--	5.59	1.35

1. 탈북과정상의 문제
2. 기술적 적응 준비도

* p < .05 ** p < .01

⑤ 교육적 적응 준비도와 학교적응

교육적 적응 준비도(정규학교 재학여부, 학년, 하나원에 대한 만족도,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응답자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은 ±.01~.47로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2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하나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이후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나둘 학교의 생활 및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 R^2값은 8%로 나타났다.

⑥ 사회적 적응 준비도와 학교적응

사회적 적응 준비도, 즉 남한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형태 및 크기, 북한에서 내려 온 친구들 및 남한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친구외의 사회적 지지원의 여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우선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23>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교육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90)

변인	학교적응(DV)	1	2	3	4	B	β	ΔR^2
1. 정규학교 재학여부	.049	--						
2. 학년	.039	-.194*	--					
3. 하나원 만족도	.218**	-.338**	-.096	--				
4. 하나둘학교 만족도	.277**	-.088	.004	.465**	--	.338**	.277	.077
					절편 = 7.257	R^2 = .077		
평균	9.14	1.66	9.87	5.82	5.58	교정된 R^2 = .066		
표준편차	1.66	.48	2.19	1.29	1.36	R = .277**		

* p < .05 ** p < .01

<표 Ⅴ-24>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61)

변인	학교적응(DV)	1	2	3	4	5	*B*	β	ΔR^2
1. 북한친구	.200**	--					.212*	.200	.040
2. 남한친구	.141*	.220**	--						
3. 지지원	.155*	.270**	.246**	--					
4. 가족형태	-.080	-.127	-.060	-.111	--				
5. 가족크기	.021	.070	.082	.085	-.487**	--			
					절편 = 8.034		R^2 = .040		
평균	9.22	5.60	4.97	5.91	1.63	2.61	교정된 R^2 = .034		
표준편차	1.72	1.62	1.73	1.98	.71	2.79	R = .200*		

* p < .05 ** p < .01

<표 Ⅴ-24>에 제시하였다. <표 Ⅴ-24>에 따르면,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들과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들과의 관계정도가 학교적응 정도에 대한 설명력(R^2)은 약 4%정도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학교적응에 유의하게 작용한 변인은 종교,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들과의 친밀정도이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고,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북한친구들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적응

여기서는 응답자들의 각 영역별 적응 준비도와 이들의 가정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① 개인적 적응 준비도와 가정적응

개인적 적응 준비도(연령, 성별, 건강상태 및 종교의 유무)에 따라 응답자들의 가정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46].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

<표 Ⅴ-25> 가정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33)

변인	가정적응 (DV)	1	2	3	4	*B*	β	ΔR^2
1. 연령	-.049	--						
2. 성별	.157*	-.158*	--			.459*	.169	.029
3. 건강상태	-.172*	.014	.070	--		-.258*	-.183	.029
4. 종교유무	.122	-.122	.011	.029	--			
					절편 = 6.576	R^2 = .058		
평균	6.68	229.70	1.47	2.22	1.74	교정된 R^2 = .044		
표준편차	1.36	34.62	.50	.96	.44	R = .241*		

* p < .05

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은 ±.01~.18로 나타나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다는 가정 아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25>에 제시하였다. <표 Ⅴ-25>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상태와 성별이 가정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했을수록, 그리고 여자의 경우가 가정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강상태 및 성별이 가정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 R^2값은 각각 약 3%이며 총 설명력은 약 6%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시간적 적응 준비도와 가정적응

시간적 적응 준비도(북한이탈 기간, 남한 거주기간, 제 3국 거주기간)가 가정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각 알아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가정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6>은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간의 상관계수이다.

③ 탈북과정상의 문제와 가정적응

탈북과정상의 문제(외상경험, 죄책감)가 가정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

46) 가정적응 척도는 모두 2문항으로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4점에서 8점까지이다.

<표 Ⅴ-26> 시간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54)

변인	1	2	3	4	평균	표준편차
1. 가정적응	--				6.74	1.32
2. 북한 이탈기간	-.020	--			68.49	34.03
3. 남한 거주기간	-.097	.539**	--		34.31	19.20
4. 제 3국 거주기간	-.032	.763**	.078	--	34.08	28.63

** p < .01

석을 사용하여 각각 알아보았다.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은 ±.10~.32로 나타나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외상경험의 정도가 가정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가정적응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27>에 제시하였다. 가정적응 정도에 대한 외상경험 수준의 설명력(R^2)은 약 10%정도이다.

<표 Ⅴ-27> 가정적응에 영향을 주는 탈북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43)

변인	가정적응 (DV)	1	2	*B*	β	ΔR^2
1. 외상경험	-.314**	--		-.004**	-.314	.099
2. 죄책감	-.119	.125	--			
				절편 = 8.235	R^2 = .099	
평균	6.78	36.13	5.25		교정된 R^2 = .092	
표준편차	1.25	9.73	1.49		R = .314**	

** p < .01

<표 Ⅴ-28> 기술적 적응 준비도 및 교육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51)

변인[1]	1	2	3	평균	표준편차
1. 가정적응	--			6.74	1.32
2. 의사소통	-.016	--		5.06	1.46
3. 정보획득	-.063	.406**	--	5.60	1.35

(*N*=76)

변인[2]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1. 가정적응	--					6.72	1.39
2. 정규학교 재학여부	-.039	--				1.67	.47
3. 학년	.118	-.182	--			9.87	2.22
4. 하나원 만족도	.173	-.356**	-.116	--		5.82	1.39
5. 하나둘학교 만족도	.180	-.075	.009	.509	--	5.53	1.44

1. 기술적 적응 준비도 * p < .05 ** p < .01
2. 교육적 적응 준비도

④ 기술적 적응 준비도와 가정적응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술적 적응 준비도(의사소통 및 정보획득 정도)는 가정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8>은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간의 상관계수이다.

⑤ 교육적 적응 준비도와 가정적응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교육적 적응준비도(정규학교 재학여부, 학년, 하나원에 대한 만족도,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가정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가정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8>는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간의 상관계수이다.

⑥ 사회적 적응 준비도와 가정적응

사회적 적응 준비도(남한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형태 및 크기, 북한에서 내려 온 친구들 및 남한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친구외의 사회적 지지원의 여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우선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00~.27),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표 Ⅴ-29> 가정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역 적응 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54)

변인	가정적응 (DV)	1	2	3	4	5	B	β	ΔR^2
1. 북한친구	.138**	--							
2. 남한친구	.207**	.264**	--				.156**	.207	.043
3. 지지원	.060	.205**	.081	--					
4. 가족형태	-.167*	-.093	-.144*	-.031	--				
5. 가족크기	.003	.035	.112	.060	-.375**	--			
							절편 = 6.021	R^2 = .043	
평균	6.78	5.69	4.89	6.04	1.47	2.95	교정된 R^2 = .036		
표준편차	1.32	1.66	1.75	3.04	.55	2.70	R = .207**		

* p < .05 ** p < .01

(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29>에 제시하였다. <표 Ⅴ-29>에 따르면, 남한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정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가정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정적응 수준을 설명하는 정도(R^2)는 약 4%정도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가정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정적응에 유의하게 작용한 변인은 성별, 건강상태, 외상경험, 그리고 남한친구들과의 친밀정도이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인 경우, 건강상태는 좋으며 외상경험은 적을수록, 그리고 남한친구들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가정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심리적응

여기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 준비도 및 사회적응과 심리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적응 준비도는 크게 6가지 영역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사회적응은 크게 4가지-남한문화 적응과 북한문화 적응, 학교적응, 가정 적

응-로 나누어 보았다. 한편 심리적응은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로 나누어 보았다. 이렇게 세분화된 적응준비도 및 사회적응이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1) 외현화 문제

여기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준비도 및 사회적응과 그들이 보이는 외현화 문제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① 개인적 적응 준비도와 외현화 문제

개인적 적응 준비도(연령, 성별, 건강상태 및 종교의 유무)에 따라 응답자들의 외현화 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은 ±.00~.32로 나타나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다는 가정 아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30>에 제시하였다. <표 Ⅴ-30>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상태와 성별이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했을수록,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의 경우가 보다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를 보였다. 건강상태 및 성별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 R^2값은 각각 약 7%와 9%이며

<표 Ⅴ-30>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45)

변인	외현화 (DV)	1	2	3	4	B	β	ΔR^2
1. 연령	.000	--						
2. 성별	-.301**	-.175*	--			-4.434**	-.308	.091
3. 건강상태	.097	-.108	.020	--		1.975**	.259	.067
4. 종교유무	.250**	.044	.028	.064	--			
						절편 = 13.280	R^2 = .157	
평균	10.95	229.48	1.50	1.71	2.19	교정된 R^2 = .146		
표준편차	7.22	34.86	.50	.45	.95		R = .397**	

* p < .05 ** p < .01

<표 Ⅴ-31>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시간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76)

변인	외현화 (DV)	1	2	*B*	β	ΔR^2
1. 남한거주 기간	-.167*	--		-.112**	-.226	.028
2. 북한이탈 기간	.047	.526**	--	.004*	.187	.025
				절편 = 11.804	R^2 = .053	
평균	11.02	31.49	65.07	교정된 R^2 = .042		
표준편차	7.70	18.19	33.95	R = .231**		

* p < .05 ** p < .01

총 설명력은 약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시간적 적응 준비도와 외현화 문제

시간적 적응 준비도(북한이탈 기간, 남한 거주기간, 제 3국 거주기간)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각 알아보았다.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북한이탈 기간과 제 3국 거주기간 간의 상관이 .74로 두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의심이 되었다. 따라서 회귀분석에서 제 3국 거주기간을 제외하고 북한이탈 기간과 남한 거주기간만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31>에 제시하였다. <표 Ⅴ-31>에 따르면, 입국시기 및 탈북시기 모두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입국시기가 짧을수록 그리고 북한이탈 시기가 길수록 응답자들의 외현화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예언변인들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 R^2값은 각각 약 3%로 총 설명력은 약 5%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탈북과정상의 문제와 외현화 문제

탈북과정상의 문제(외상경험, 죄책감)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각 알아보았다.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10~.32)을 살펴본 결과,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표 Ⅴ-32>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탈북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62)

변인	외현화 (DV)	1	2	*B*	β	ΔR^2
1. 외상경험	.314**	--		.242**	.314	.099
2. 죄책감	.102	.102	--			
				절편 = 2.550	R^2 = .099	
평균	11.30	36.11	5.32		교정된 R^2 = .093	
표준편차	7.82	10.14	1.47		R = .314**	

** p < .01

(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외현화 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32>에 제시하였다. 외현화 문제 정도에 대한 외상경험 수준의 설명력(R^2)은 약 10%정도이다.

④ 기술적 적응 준비도와 외현화 문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술적 적응 준비도(의사소통 및 정보획득 정도)는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3>은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간의 상관계수이다.

⑤ 교육적 적응 준비도와 외현화 문제

교육적 적응 준비도(정규학교 재학여부, 학년, 하나원에 대한 만족도,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외현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

<표 Ⅴ-33> 기술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70)

변인	1	2	3	평균	표준편차
1. 외현화	--			11.16	7.79
2. 의사소통	.068	--		5.18	1.47
3. 정보획득	.022	.402**	--	5.74	1.38

* p < .05 ** p < .01

<표 Ⅴ-34>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교육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85)

변인	외현화 (DV)	1	2	3	4	*B*	β	ΔR^2
1. 정규학교 재학여부	.212	--						
2. 학년	-.344**	-.242*	--			-1.268**	-.349	.118
3. 하나원 만족도	-.149	-.282**	-.047	--				
4. 하나둘학교 만족도	-.294**	-.162	.690**	-.015	--	-1.819**	-.299	.089
				절편 = 34.454		R^2 = .208		
평균	11.62	1.68	9.99	5.77	5.59	교정된 R^2 = .118		
표준편차	7.77	.47	2.14	1.20	2.14	R = .456**		

** p < .01

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은 ±.04~.69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3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학년 및 하나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낮고 하나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수록 많은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및 하나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 R^2값은 각각 약 12%와 약 9%로, 두 변인의 총 설명력은 약 21%였다.

⑥ 사회적 적응 준비도와 외현화 문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적응 준비도(남한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형태 및 크기, 북한에서 내려 온 친구들 및 남한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친구외의 사회적 지지원의 여부)는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5>는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간의 상관계수이다.

⑦ 사회적응과 외현화 문제

사회적응의 정도(가정적응, 남한적응, 북한적응, 학교적응)가 외현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표 Ⅴ-35> 사회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71)

변인	1	2	3	4	5	6	평균	표준편차
1. 외현화	--						11.01	7.79
2. 북한친구	-.084	--					5.67	1.60
3. 남한친구	-.126*	.217**	--				4.85	1.70
4. 지지원	-.049*	.187**	.087	--			6.01	2.91
5. 가족형태	-.042	-.103	-.117	-.106	--		1.70	.73
6. 가족크기	.096	.115	.170*	.152*	-.601**	--	2.40	2.14

* p < .05 ** p < .01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은 ±.01~.47로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3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북한문화에 대한 적응의 정도가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문화를 고수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많은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문화 적응정도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 R^2값은 약 4%였다.

이상과 같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표 Ⅴ-36>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응 정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15)

변인	외현화 (DV)	1	2	3	4	*B*	β	ΔR^2
1. 가정적응	-.176*	--						
2. 남한적응	.043	.222**	--					
3. 북한적응	.203*	.017	.123	--		.267*	.203	.041
4. 학교적응	-.122	.470*	.165*	.117	--			
					절편 =	3.285	R^2 = .041	
평균	11.88	6.80	42.00	32.19	9.22		교정된 R^2 =.033	
표준편차	7.33	1.24	5.85	5.56	1.72		R = .203*	

** p < .01

외현화 문제에 유의하게 작용한 변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적응준비도의 변인을 살펴보면, 성별, 건강상태, 남한거주기간, 북한이탈 기간, 외상경험, 학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자보다는 남자인 경우, 건강상태는 좋지 않을수록, 남한거주기간은 짧고 북한이탈기간은 길수록,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년이 낮을수록 더 많은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응의 영역 중에는 북한문화 적응정도가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북한문화를 고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더 많은 외현화 문제를 보였다.

(2) 내재화 문제

여기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준비도 및 사회적응과 그들이 보이는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① 개인적 적응 준비도와 내재화 문제

개인적 적응 준비도(연령, 성별, 건강상태 및 종교의 유무)에 따라 응답자들의 내재화 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은 ±.02~.38로 나타나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다는 가정 아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37>에 제시하였다. <표 Ⅴ-37>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상태와 연령이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했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보였다. 건강상태 및 연령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 R^2값은 각각 약 14%와 3%이며 총 설명력은 약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시간적 적응 준비도와 내재화 문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간적 적응 준비도(북한이탈 기간, 남한거주기간, 제 3국 거주기간)는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8>은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간의 상관계수이다.

<표 Ⅴ-37>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55)

변인	내재화 (DV)	1	2	3	4	*B*	β	ΔR^2
1. 연령	.181*	--				.005*	.165	.027
2. 성별	-.094	-.150*	--					
3. 건강상태	.372**	.044	.022	--		4.056**	.365	.139
4. 종교유무	.035	-.087	-.103	.094	--			
						절편 = -3.430	R^2 = .166	
평균	16.59	229.61	1.50	2.17	1.83	교정된 R^2 = .155		
표준편차	10.53	35.61	.50	.95	.70	R = .407**		

* p < .05 ** p < .01

③ 탈북과정상의 문제와 내재화 문제

탈북과정상의 문제(외상경험, 죄책감)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각 알아보았다.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11~.38)을 살펴본 결과,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외상경험이 많고 죄책감이 클수록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39>에 제시하였다. 내재화 문제 정도에 대한 외상경험 및 죄책감의 설명력(R^2)은 각각 14%와 2%이며 이 두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약 16%정도이다.

<표 Ⅴ-38> 기술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81)

변인	1	2	3	4	평균	표준편차
1. 내재화	--				16.65	10.59
2. 남한거주 기간	-.006	--			32.37	18.63
3. 북한이탈 기간	.093	.530*	--		66.38	33.36
4. 제 3국 거주기간	.078	.079	.735**	--	33.22	27.66

* p < .05 ** p < .01

<표 Ⅴ-39>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탈북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70)

변인	내재화 (DV)	1	2	*B*	β	ΔR^2
1. 외상경험	.376**	--		.373**	.359	.141
2. 죄책감	.192**	.114	--	1.073*	.151	.023
				절편 = -1.936	R^2 = .164	
평균	17.14	35.91	5.30		교정된 R^2 = .154	
표준편차	10.41	10.02	1.48		R = .405**	

* p < .05 ** p < .01

④ 기술적 적응 준비도와 내재화 문제

기술적 적응 준비도(의사소통 및 정보획득 정도)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우선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은 ±.07~.37로 나타나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판단,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의사소통의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40>에 제시하였다. 내재화 문제 정도에 대한 의사소통 수준의 설명력(R^2)은 약 3%정도이다.

⑤ 교육적 적응 준비도와 내재화 문제

교육적 적응 준비도(정규학교 재학여부, 학년, 하나원에 대한 만족도, 하나

<표 Ⅴ-40>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탈북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79)

변인	내재화 (DV)	1	2	*B*	β	ΔR^2
1. 의사소통	.160*	--		1.191*	.160	.026
2. 정보획득	.074	.369**	--			
				절편 = 10.387	R^2 = .026	
평균	16.51	5.14	5.67		교정된 R^2 = .020	
표준편차	10.42	1.40	1.35		R = .160*	

* p < .05 ** p < .01

<표 Ⅴ-41>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교육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88)

변인	내재화 (DV)	1	2	3	4	*B*	*β*	⊿R^2
1. 정규학교 재학여부	.269**	--				5.072*	.237	.056
2. 학년	-.183*	-.331**	--					
3. 하나원 만족도	-.360**	-.094	.483**	--				
4. 하나둘학교 만족도	-.156	-.216*	-.077	.005	--	-2.556**	-.337	.129
						절편 = 22.095	R^2 = .185	
평균	16.31	1.67	9.96	5.77	5.58	교정된 R^2 = .166		
표준편차	10.12	.47	2.18	1.29	1.34	R = .430**		

* p < .05 ** p < .01

둘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은 ±.00~.49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4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정규학교 재학여부 및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응답자들이, 그리고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수록 더 많은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학교 재학여부 및 하나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 R^2값은 각각 약 13%와 약 6%로, 두 변인의 총 설명력은 약 19%정도였다.

⑥ 사회적 적응 준비도와 내재화 문제

사회적 적응 준비도(남한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형태 및 크기, 북한에서 내려 온 친구들 및 남한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친구외의 사회적 지지원의 여부)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우선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04~.52),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Ⅴ-42>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79)

변인	내재화 (DV)	1	2	3	4	5	B	β	ΔR^2
1. 북한친구	-.092	--							
2. 남한친구	-.158*	.183**	--				-1.065*	-.172	.025
3. 지지원	-.088	.179**	.083	--					
4. 가족형태	-.131*	-.072	-.077	.070	--				
5. 가족크기	.149*	.040	.084	.077	-.514**	--	.635*	.164	.027
					절편 = 20.081		R^2 = .051		
평균	16.42	5.67	4.93	6.00	1.70	2.50	교정된 R^2 = .041		
표준편차	10.49	1.61	1.69	2.85	.73	2.71	R = .227*		

* p < .05 ** p < .01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42>에 제시하였다. <표 Ⅴ-42>에 따르면, 남한친구들과의 관계 및 가족의 크기가 가정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할수록, 그리고 가족이 많을수록 내재화 문제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친구들과의 관계 및 가족의 크기가 가정적응 수준을 설명하는 정도(R^2)는 각각 약 3%씩이며 두 변인의 총 설명력은 약 5%로 나타났다.

⑦ 사회적응과 내재화 문제

사회적응의 정도(가정적응, 남한적응, 북한적응, 학교적응)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우선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은 ±.05~.51로 각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판단,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4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적응의 정도 및 남한문화에 대한 적응정도가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적응의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한문화에 대한 적응수준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적응 및 남한문화 적응정도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 R^2

<표 Ⅴ-43>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응 정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23)

변인	내재화 (DV)	1	2	3	4	B	β	ΔR^2
1. 가정적응	-.304**	--				-2.838**	-.349	.092
2. 학교적응	-.242**	.504**	--					
3. 남한적응	.118	.228**	.254**	--		.353*	.197	.037
4. 북한적응	.045	.135	.192*	.139	--			
						절편 = 22.708	R^2 = .129	
평균	18.37	6.71	9.07	41.64	31.85	교정된 R^2 = .115		
표준편차	10.66	1.31	1.85	5.96	5.75		R = .360**	

** p < .01

값은 각각 약 9%와 약 4%였으며 두 변인의 총 설명력은 약 13%였다.

이상과 같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내재화 문제에 유의하게 작용한 변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적응준비도의 변인을 살펴보면, 건강상태, 연령, 외상경험, 죄책감, 의사소통의 수준,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 정규학교 재학여부, 남한친구와의 관계, 가족의 크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연령이 높을수록, 외상경험의 정도가 많고 죄책감이 많을수록, 의사소통의 수준이 낮을수록,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남한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하며 함께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응의 영역 중에는 가정적응 및 남한문화 적응정도가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가정적응의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한문화에 대한 적응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4) 결론

개인의 남한사회 적응준비도가 사회적응 및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응이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인의 적응준비도 영역에 따른 사회적응 및 심리적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적 영역에서는 성별이 남한문화적응 및 북한문화 적응, 가정적응,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남한문화 및 가정에 더 잘 적응하는 반면 남자는 여자보다 북한문화를 더 고수하고 더 많은 외현화 문제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남한사회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의 건강상태는 가정적응 및 외현화·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의 건강이 나쁠수록 가정에 잘 적응하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이 사회 적응 및 심리적응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종교의 유무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응답자들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약 60%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이들이며, 이러한 대안학교의 대부분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결과가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깊은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령은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내재화 문제를 갖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연령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가 연령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보다 더 많은 심리 적응상의 문제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성별과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적응 문제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 및 심리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적 영역에서는 남한 거주 기간 및 북한이탈 기간이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에 거주했던 기간이 짧고 북한이탈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외현화 문제를 보였다. 외현화의 문제는 공격성이나 비행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방치될 경우 이후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문제

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이탈 기간은 긴 반면 남한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이들의 공격성 및 비행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탈북과정상의 문제영역에서는 탈북에 의해 생긴 죄책감이 북한문화 고수 및 내재화 문제와 정적인 관계가 있고 외상경험은 북한문화 고수 및 내재화 문제뿐 아니라 가정적응 및 외현화 문제와도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가지는 죄책감과 외상경험이 이들의 사회 및 심리적응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탈북기간이 길고 제 3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긴 북한이탈 청소년일수록 더 많은 외상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이탈 기간이 길고 제 3국에 체류한 기간이 긴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외상경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외상경험의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적극 개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적 영역을 살펴보면, 정보획득의 정도는 북한적응과 연관이 있으며, 의사소통의 적응은 내재화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생활에 필요한 정보획득이 부족할수록 북한문화를 더 고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낄수록 더 많은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남한생활에 필요한 정보획득과 의사소통의 문제가 남한사회 적응 및 심리적응에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 및 심리적응을 위해서는 그들이 남한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그들이 하루빨리 남한의 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고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하나둘학교에 만족할수록 사회적응 및 심리적응을 잘 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하나둘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평가를 통하여 하나둘학교가 북한이탈 후 남한정착지 이전까지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종류에 따른 비교에서는 정규학교에 다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비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등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대비책으로 대안학교의 학력인가 등 정규학교 이외도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규학교 이외의 학습의 장에 대한 관리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년이 낮을수록 외현화 문제를 많이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연령에 따라 학년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연령에 상관없이 학년이 낮은 것[47]이 문제인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가족의 크기가 내재화 문제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내재화 문제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가족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갈등은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친구 및 사회적 지지원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남한친구와의 관계는 소원할수록 북한문화를 고수하는 경향이 높으며 남한친구와의 친밀정도는 가정적응 및 내재화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친구와의 접촉기회 및 친밀 정도가 남한사회 적응 및 내재화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적응 및 심리적응을 위해서는 그들에

47)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특히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자신의 학업능력에 따라 낮은 학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게 북한친구 및 사회적 지지원과의 접촉과는 독립적으로 남한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친구와의 친밀도는 학교적응수준과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설문의 응답자들 중 많은 수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정도가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해 보면, 북한적응, 즉 북한문화의 고수 정도는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적응 및 남한문화 적응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문화를 고수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더 많은 외현화 문제를 보였으며, 가정적응의 수준이 낮고 남한문화에 대한 적응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첫째, 가정적응과 관련한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적응은 내재화 문제에 대한 설명력이 약 10%에 달하며 이는 문화적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였다. 따라서 가정적응은 다른 문화적응과 비교해 볼 때, 심리적응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문화적응이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Berry와 그의 동료들(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2002)의 주장에 비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은 이전 문화와 새로운 문화[48] 모두에서 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북한문화 적응이 더 많은 외현화 문제를 가져온다는 결과는 Berry 등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북한문화 적응이 남한문화 적응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49]을 암시한다 할 수 있겠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한문화 적응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내재화 문제를 보인다는 경향 역시 Berry 등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문화 적응이 북한문화 적응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50]을 암시한

48) 여기서 이전의 문화는 북한문화, 새로운 문화는 남한문화를 각각 의미한다.
49) 즉, 부분적응 중 분리형에 속하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50) 즉, 부분적응 중 동화형에 속하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북한문화의 우수한 면을 지켜는 동시에 남한문화의 우수한 면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북한문화에 대해 재조명해보는 기회 뿐 아니라 남한문화를 보다 깊이 있게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적응의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내재화 문제를 보인다는 경향은 가정적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남한으로 내려온 경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들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개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3. 향후 연구계획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연구 중 제 1차년도 연구로서, 특히 그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내용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의 고찰, 이주 청소년들에 대한 독일 및 미국의 사례연구,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북한이탈 후 남한으로 입국하는 청소년들은 현재에도 꾸준히 추세에 있으며 탈북과정에서의 그들의 생활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조사에 의하면, 북한을 이탈한 청소년들의 주된 동기는 '굶주림'이었고 제 3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남한에 입국한 이들 중 무연고 청소년은 약 23%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보다 효과적인 정책제언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둘째, 외국사례연구에 따르면, 먼저 독일의 경우, 통독 전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이들을 위한 서독정부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서독정부의 탈동독 청소년들을 포함한 탈동독 주민들을 위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이었다. 이들의 자립을 위한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 민·관 단체들의 상호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이루어진 학교와 일상생활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탈동독자를 탈출자나 이주자가 아닌 한 명의 연방시민으로 수용하는 서독사회의 개방성은 청소년을 포함한 탈동독 주민들의 서독사회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국의 경우 역시 이주 · 난민들을 위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 및 통합이다. 미국 정부 및 민간 지원단체들은 이주 · 난민들의 자립 및 통합을

위하여 취업관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이들의 사회·정서적 적응을 위한 각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 개인의 필요 및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기 위한 사례 책임자 제도는 이주·난민들의 미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여러 영역에서개인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적응준비 정도를 보였다. 개인적 영역인 성별, 연령, 건강상태나 종교 등과 같은 개인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 것은 물론, 탈북과정상의 문제영역인 북한이탈 과정에서 경험했던 외상이나 북한이탈에 따른 죄책감의 정도도 개인에 따라 달랐다. 또한 남한 거주기간, 탈북시기 및 제 3국 거주기간과 같은 시간적 영역, 남한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정도 및 정보획득의 정도와 같은 기술적 영역, 하나원 및 하나둘학교의 교육, 남한에서의 학교교육 등을 포함하는 교육적 영역에서도 모두 개인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남북한 친구, 사회적 지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영역에서도 개인차를 보였다. 이렇게 적응준비 정도에서 개인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넷째, 이렇게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른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준비 정도는 그들의 사회적응, 즉 문화, 학교, 가정 내에서의 적응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죄책감의 정도, 외상경험의 정도, 남한생활에 필요한 정보획득의 정도,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 및 남한친구 그리고 사회적 지지원와의 친밀정도였다. 또한 가정적응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건강상태, 외상경험의 정도, 남한친구와의 친밀정도로 나타났으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외상경험의 정도, 그리고 남한친구와의 친밀정도는 문화적응 및 가정적응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탈북과정상에서 경험하

는 외상의 정도와 남한친구와의 친밀 정도가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다섯째, 개인의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준비 정도는 또한 그들의 심리적응에서 비롯된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성별, 건강상태, 남한거주기간, 북한이탈기간, 외상경험의 정도,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 학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건강상태, 연령, 죄책감의 정도, 외상경험의 정도, 남한인과의 의사소통의 정도,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 정규학교에 다니는지의 여부, 남한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크기, 그리고 남한친구와의 친밀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외상경험의 정도 및 건강상태,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세 가지 요인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외상경험의 정도는 심리적응의 척도로 활용된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뿐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적응 중 가정적응과 문화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있어서 외상의 경험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보여 주었다.

여섯째, 개인에 따라 다른 사회적응 수준은 그들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문화적응, 좀 더 구체적으로 남한문화 적응수준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북한문화 적응수준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적응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정책 제언

앞에서 서술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1) 북한이탈 주민 대상의 포괄적 지원 정책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된 지원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의 개발 ·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은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만을 위한 정책지원이 수립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북한이탈이라는 상황에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져 적응과정에서 성인과는 다른 경향이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탈 주민 대상의 포괄적인 지원정책이 우선시 되어왔으며,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은 아직 부족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이들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프로그램이 개발 ·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이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일시적이고 '긴급구호'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독일의 사례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지원책이 긴급구호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보여준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긴급구호적인 성격의 지원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에 있어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역할은 서로 간에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지원은 그러한 역할분담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탈동독 청소년들의 원만한 서독 적응에는 민·관 단체들의 역할 분담에 따라 이루어진 정부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은 북한이탈 주민 관련 몇몇 전문가 및 관련 민간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예산확보 문제 및 인력 부족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단기적인 소규모 형태의 지원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여러 민간단체들 간의 협동 사업을 통하여 각 단체마다 실무를 통하여 축적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개인적 특성 또한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실태 및 특성 등 전반적인 경향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향후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정책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기초자료로써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자료수집은 남한에 거주하는 이들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제 3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 과정 및 제 3국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들의 심각한 부적응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제 3국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에 다양한 배경을 지닌 민간단체 및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은 북한이탈 주민 관련과 관련된 몇몇 전문가 및 관련 민간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련 단체 중 대다수는 바로 종교단체이며 그 안에서의 인력은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충원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개인적 배경도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응하여 보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민간단체 및 개인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에 따르면,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모가 없이 생활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남한 후원자의 역할은 이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남한 후원자 및 보호자 제도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후원자 및 보호자는 남한의 성인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배경의 민간단체 및 개인의 참여를 돕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써 사업 공모제를 통한 민간단체 예산지원의 확대, 교사 및 전문가의 관련사업 참여에 대한 각종 혜택 제공, 대학생 및 성인을 포함한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혜택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 및 개인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관련있는 성인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북한이탈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 심리치료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가정적응은 그들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

들의 우울, 불안 등의 내재적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이다.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기본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비롯되며 올바른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가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들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북한이탈 가족은 탈북과 남한정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남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상황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긴장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구성원들의 높은 긴장상태는 또한 가족 간의 불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높게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건강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상태를 한층 완화시킴으로써 가정 내의 불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치료나 외상 경험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적응의 문제를 가진 부모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는 부모 자신 뿐 아니라 자녀들의 적응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 가정의 부모를 위한 전문적인 부모교육 및 심리상담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이주 · 난민 아동 및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안정은 부모들 뿐 아니라 자녀의 미국사회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 주민 자활공동체의 설립지원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② 일선교사들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그들과 교류했던 교사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는 경우도 있으며, 교사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어떻게 교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의 긍정적인 교우관계가 일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교사와의 관계가 이들의 학교적응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교사의 학생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가 교우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따라서 적어도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비교적 자주 접촉하는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교사는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집단은 정규학교의 교사집단이며 다른 집단은 대안학교 교사집단이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열의와 정성은 결코 정규학교 교사의 그것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두 집단의 교사 모두에게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열의와 정성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들의 심리 및 전반적인 행동경향을 이해하고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기 위한 지식과 역량이다. 따라서 이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경험에 의한 시행착오보다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한 지식의 습득과 역량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그 속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교사들의 경험 및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규학교뿐 아니라 대안학교의 일선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③ 후원자 등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들 중에는 부모와 교사 외에도 함께 거주하거나 정기적인 만남 등을 통해 이들을 돌보아 주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이들 역시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장기적이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지식과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서로간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경험 및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만남의 장은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각 집단 안에서의 만남 뿐 아니라 집단과 집단 간의 만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시민의식함양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이면에는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과 차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이들과의 접촉이 적을수록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다양성의 인정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이질집단 간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은 우리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깊이 뿌리내리는 동시에 우리 사회 또한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질집단 간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수업이나 대중매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운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

(1)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 및 환경이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사회 적응에 필요한 여러 측면들에서의 개인적 차이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지원책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라 보다 다양한 지원책을 수립함으로써, 개인의 필요에 따라 지원정책을 선별하여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성별이나 연령, 외상경험, 가족의 특성, 적응단계 등에 따른 다양하고 특성화된 지원이 개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례 책임자의 활용은 이러한 맞춤형

지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본인의 판단 하에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며, 전문가나 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심각한 부적응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같이 개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책은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단계별 적응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초기 적응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초기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둘 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 적응 및 심리적응이 보다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 적응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나 체계 면에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정착지에서의 체계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서비스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 적응프로그램은 이후 정착지에서의 적응지원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지원정책의 목표가 이들의 자립인 것을 감안하여 홀로 설 수 있는 시점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정착지에서의 지원 프로그램은 각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 시설 및 복지관등을 중심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남한에 잘 적응하여 생활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정규학교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한 “중간단계”적 성격의 학교 또는 기관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학습공백이 있거나 남북한 간의 상이한 교육체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이들의 학업 및 남한사회 적응을 돕는 “중간단계”적 성격을 지닌 학교 또는 기관의 운영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간단계적 학교 또는 기관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정규학교에의 편입 및 그곳에서의 적응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④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지원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하여 곳곳에서 대안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정규학교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단계적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학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대안학교의 문제점은 그 영세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학력인정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데에서도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안학교의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에 필요한 기본시설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문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 시행되어야 한다.

① 외상을 경험한 이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탈북과정상에서 외상을 경험했거나 탈북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상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가정 및 남한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심리적응에도 영향을 미쳐 내재화 및 외현화의 문제를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

라서 외상경험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② 심리적인 문제를 보이는 이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는 공격성이나 폭력행위에 대한 일회적 처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정서순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경우는 외현화의 문제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를 때까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내재화 문제에 대한 대외적인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내재화 문제를 지닌 이들이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건강상태는 그들의 가정적응 및 심리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건강상태가 이후 사회 및 심리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포함하여 북한이탈 주민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써, 민간차원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단체 및 민간단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5) 언어교육 및 정보습득 등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기술적 측면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① 남한인들과의 의사소통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언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북한청소년들의 적응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언어의 문제이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나 북한 사투리의 사용은 북한이탈 청소년들로 하여금 또래의 놀림거리가 되게 하거나 스스로 위축되게 함으로써 남한의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들을 위한 언어교육은 절실하다 할 것이다.

②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제공에는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한 진로지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탈동독 청소년들을 위해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은 이들을 위한 진로지도가 이들의 적응에 중요한 요소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진로지도 및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진로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남한사회 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남북한 양 문화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남한 또래 및 남한 사람들과의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한친구와의 친밀정도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화 및 가정적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 또래들과의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남한 또래를 포함하여 남한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이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 이러한 만남이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청소년들이 장기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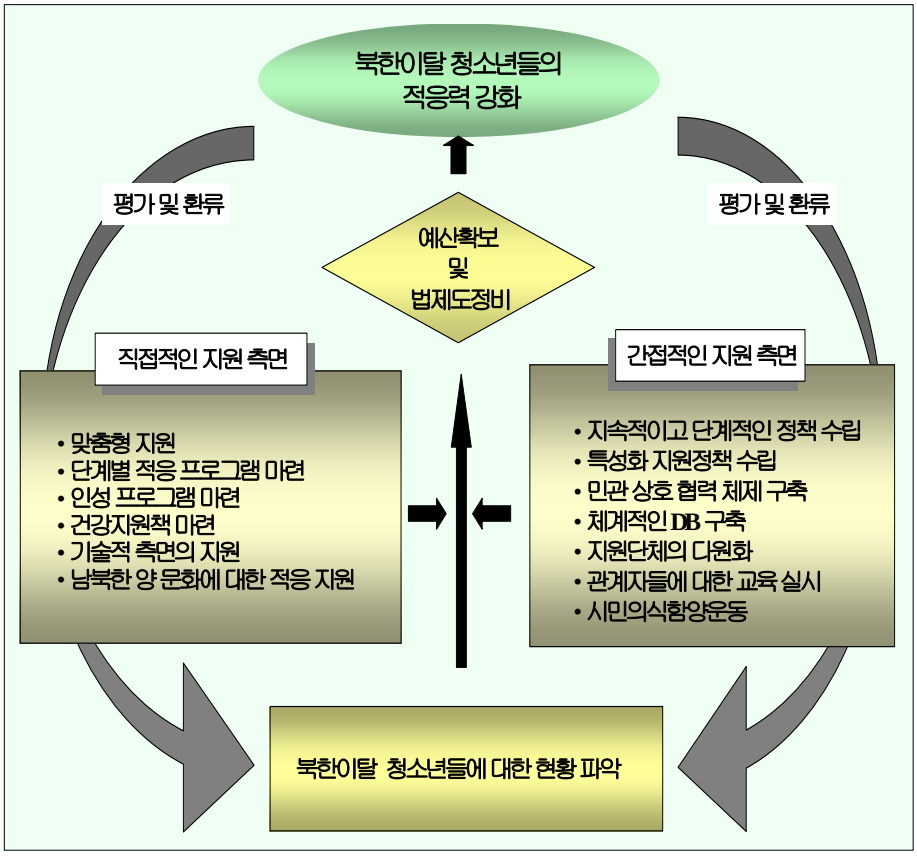
이후에도 언급되겠지만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남한 사람들 간의 지속적인 만남은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의 감소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이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모두가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양방향적인 문화적응이 이루어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② 같은 북한출신 청소년들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소수집단의 성숙한 문화적응은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 및 자신이 속한 소수집단에 대한 문화적응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달성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북한 문화에 대한 적응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남한 문화는 무조건 옳고 우수하며 북한문화는 무조건 틀리고 열등하다는 식의 자세로 일방적인 남한문화에의 적응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각 문화의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남한문화의 장점을 적극 수용함과 동시에 북한문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출신 친구들과 협동하여 북한문화 바로 알리기 등의 행사나 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북한출신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북한출신 또래들과의 만남이 남한적응과정에서 파생된 긴장을 완화시키고 서로 격려하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북한출신 또래들 간의 건전하고 정기적인 만남의 장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정책제언 활용을 위한 로드맵(road map)

앞서 서술한 정책제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Ⅵ-1]). 본 연구의 정책제언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응 및 심리적응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지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그림 Ⅵ-1]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력강화를 위한 로드맵

맞춤형 지원,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 마련, 인성 프로그램 마련, 건강지원책 마련, 의사소통 및 정보수집과 같은 기술적 측면의 지원, 남북한 양 문화에 대한 적응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간접적인 지원으로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수립, 특성화 지원정책 수립, 민·관 상호협력 체제 구축, 체계적인 DB 구축, 지원 단체의 다원화,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일반 시민의식 함양운동 등이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지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어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실행의 효과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이전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관련 기관들의 예산확보와 법·제도의 정비 및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현황파악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함께 그들에 대한 정책지원들의 실효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 지원책들이 지속적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환류(feedback)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향후 연구계획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을 위한 제 1차년도 연구로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남한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후 2~3차년도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남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특성 및 시각의 차이 등에 대한 질적 연구 및 양적 연구를 계획하였다. 이렇게 두 집단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인식 및 태도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에 대한 대책마

련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 이후 2년에 걸쳐 이루어질 연구결과는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위해 다각도에서 활용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성록(2003).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 연구. **육사논문집, 59(3),** 249-271.

강권찬(2005).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분석. **민족연구, 14,** 35-63.

곽금주·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곽해룡(2005).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 사례와 지원 방안.**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금명자·김동민·권해수·이소영·이희우(2003).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Ⅰ.**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희우(2004).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Ⅱ.**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길은배(2002). **사회문화 변동에 따른 북한청소년의 변화 전망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길은배·문성호(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김귀근(2002. 3. 14.). **중국내 탈북자 규모와 파장.** 조선일보.

김미숙(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수(2003).국내탈북동포들의 정착지원과정 및 살아가는 모습. **제5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자료집.** 북한인권시민연합·문화일보.

김윤영(2005). 남한학교 생활과 적응전략.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218-242).**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김형태(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독일연방의회문서(1984). **Deutscher Bundestag** 문서기록 NR. 10/2412. Bonn.

동승철(2005). **'새터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애(2002). **청소년의 신체상, 자존감 및 대인불안 간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명선(1996). 구동독지역 청소년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0(4)**, 873-906.

박선경(1998).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순영(2005). 성장발육-생물인류학적 연구.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243-259).**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박윤숙(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윤숙·윤인진(2006).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미발표논문.

(사) 남북문화통합교육원(2005). **새터민 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사) 남북문화통합교육원.

(사)북한인권정보센터(2005).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서울: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서윤환(20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망 크기 구축.** 국정원 사보.

선한승(1995). **북한 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적응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신동완(2001).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모색-제3섹터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신혜숙·백승남(2003). 정상체중과 과체중 여대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3(3),** 331-338.

심혜숙(1994).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 연변대학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연합뉴스(2000). **2000년 북한연감**.

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윤여상(1998a). 북한이탈주민 실태와 지원체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72쪽.

_____(1998b). **중국동북지역 탈북자 실태와 지원방안**(북한인권시민연합 학술토론회 발표문).

_____(2001).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방향: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의 지역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의회 심포지움 논문집,** pp.1-16.

_____(2002). **재중 탈북청소년 인권 실태와 대처방안.** 통일부 주최 제1회 북한인권 전문가 워크숍(비공개).

윤인진(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511-549.

_____(2000a).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

한연구, 3(2), 123-184.

_____(2000b). 탈북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모델-자영업 기반형성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3(2)**, 143-183.

_____(2004a).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_____(2004b). 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지원방안.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출판사. 제19장, pp.401-423.

윤창규(2001). **탈북이주자의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독정부의 구동독이주민관계 대책 및 지원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금순(1999).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이기영(2000). **하나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생 사회적응력 제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서울: 통일부

_____(2001).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에 관한 유형 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_____(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이민규(2006). **긍정의 심리학**. 서울: 원앤원북스.

이새롭(2003). **북한이탈 여성의 남한사회 조기정착 방안**.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자료.

이소래(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란(2004). 통일 이후 동독 대학생의 가치관 변화. **경제와 사회, 63,** 172-195.

_____(2005). 통일 이전 탈동독자의 서독사회 적응실태에 대한 연구: 1984년 서독에 정착한 탈동독자를 중심으로. **아세아 연구, 121,** 197-225.

이우영·이금순·서재진·전현준·최춘흠(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연구.** 통일연구원

이장호(1996). **북한출신주민(탈북자포함)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그램 개발**. 성곡논총, 28(4), 739-789.

이춘재·오가실·정옥분(1991). 사춘기 신체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89-101.

이희승(1994).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임민순(199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능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한국통**

일연구, 4, 149-168.
임원혁(1998). **북한경제의 몰락과 대북정책의 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임인숙(2004). 다이어트의 사회문화적 환경:여대생의 외모차별 경험과 대중매체의 몸 이미지 수용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8(2)**, 165-187.
장창호(2001).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5**, 203-235.
장혜경·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정병호·정진경·이향규(2005). 교육지원체제 수립방안.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365-398).**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정진경(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지: 일반, 21(2)**, 163-177.
정진경·정병호·양계민(2005). 탈불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263-282).**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정진웅(2005). 탈북 청소년의 적응교육의 의미와 한계.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283-297).**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전우택(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109-167.
_____(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전우택·유시은·조영아·엄진섭·서승원·홍창형(2005). 의식과 생활만족도.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440-466).**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조상호(2003).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정착센터 프로그램 개발.** 정부출연용역보고서.
조영아·전우택·유시은·엄진섭(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조한범·이우영·이금순·전효관(2003). **북한이탈청소년 및 귀국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통일연구원.
좋은벗들 엮음(1999).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서울: 정토출판.
최승주·전우택·정우진(2005). 종교성향과 우울정도.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568-584).**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통일연구원(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통일부(2002). **무연고 탈북 청소년 정착지원 업무지침**. 서울: 통일부

_____(2005). 통계자료(대북인도사업). http://www.unikorea.go.kr/index.jsp

_____(2005) http://www.unikorea.go.kr/index.jsp

_____(2006). **2006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홍순혜·박윤숙·원미순(2001).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통일부 용역 연구보고서.

홍순혜·정익중·박윤숙·원미순(2003).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연구.** 통일부 용역 연구.

http://www.refugees.org/world/articles/wrs02-easia2.cfm#northkorea

Agoma e.V.(1989). *Arbeitsgemeinschaft ost- und mitteldeutscher Aus- und Übersiedler*. Bonn

Agoma e.V.(1990) Umfrageergebnisse der Erhebung zur Situation vin Aus- und Übersiedlerkindern. Berlin. Hier nach Goldbeck, Lutz(1994). *Übersiedlerfamilie aus der DDR. Eine qualitative psychologische Untersuchung zu den Aspekten DDR-Sozialisation, Migration und Familiendynamik*. Ulm.

Atkinson, D. R., Morton, G., & Sue, D. W.(1998).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San Francisco, CA: McGraw-Hill.

Behnken, I./Krüger, H./Lindner, A./Zinnecker, H.(1991). *Shuelerstudie '90. Jugendliche im Prozess der Vereinigung*. Weinheim und Muenchen.

Berry, B.(1965). *Ethnic and race relations*. Boston: Houghton Mifflin.

_____(1970). Marginality, stress and identification in an acculturating aboriginal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 239-252.

_____(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Halsted.

_____(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pp. 9-25). Boulder, CO: Westview.

_____(1986). The acculturation process and refuge behavior. In C. L. Williams & J. Westermeyer, J.(Eds.). *Refugee mental health in resettlement countries* (pp. 25-37). Washington, D. C.: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_____(1987). Finding identity: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In L. Dreidger(Ed.). *Ethnic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opp Clark Pitman.

_____(1990). Cultural variations in cognitive style. In S. Wapner(Ed.),

Bio-psycho-social factors in cognitive style(pp.289-308). Hillsdale, NJ: Erlbaum.

_____(1991). Managing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for problem prevention. In *Mental health services for refuge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IMH.

_____(1994).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An overview. In A. M. Bouvy, F. J. R. vander Vijver, P. Boski, & P. Schmitz(Eds.), *Journey into cross-cultural psychology.* Amsterdam, Holland: Swets & Zeitlinger.

_____(1998). Acculturative stress. In P. Organista, K. Chun, & G. Martin (Eds.). *Readings in ethinic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Berry, J. W. & Kim, U.(1988). Acculturation and metal health. In P. Dasen, J. W. Berry, & N. Satorius (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pp.207-236).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2002). *Cross-cultural psychology(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irman, D. & Tyler, F. B. (1994).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of Soviet Jewish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0(1)*, 101-115.

Brüsewitz-Zentrum(1986), Dokumentation. Jugend im geteilten Deutschland. Bonn, Bundeshaus.

Bundesminister des Innern (Hg.). (1982, 1986). *Wegweiser fuer Fluechtlinge und Übersiedler aus der DDR.* Bonn

Bundesminister des Innern (Hg.). (1988). *Projekt VtK I* 4-933 900- 2/3.

Caplan, N., Whitmore, J. K., & Choy, M. H.(1989). *The boat people and achievement in America: a study of family life, hard work, and cultural valu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Cheng, R. C. & Kagawa-Singer, M.(1993).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6(5)*, 631-639.

Chua, L.(2002). *Psycho-social adaptation and the meaning of achievement for Chinese immigrants*. LFB Scholarly Publishing LLC.

Dumas, J. E. & Nilsen, W. J.(2003). Abnorm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임영식, 김혜원, 성인자, 조아미, 한상철 역(2005). **청소년 이상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Dürckheim, E.(1972). *Erziehung und Soyiologie.* Düsseldorf.(Original Paris 1922).

Elias, N/Scotson, J. L.(1990). *Etablierte und Außenseiter*. Frankfurt.

Esser, H.(1980). *Aspekte der Wanderungssoziologie. Assimilation und Integration von Wandern, ethnischen Gruppen und Minderheiten. Eine Handlungstheoretische Analyse.* Darmstadt Neuwied.

Fantino, A. M., & Colak, A.(2001). *Refugee children in Canada: searching for identity*.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Förster, P/Friedrich, W.(1996). *Jugendlich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rgebnisse einer empirischen Studie zum Wandel der Meinungen, Einstellungen und Werte von Jugendlichen in Sachsen 1990* bis 1994, in: *APUZ*. B19.

Gärtner, C.(1990). *Die anderen Deutschen. Zur Lebenssituation ehemaliger DDR-Bürger in der BRD.* Düsseldorf.

Geulen, D.(1998). *Politische Sozialisation in der DDR. Autobiographische Gruppengespräche mit Angehörigen der Intelligenz.* Leske und Budrich.

Gibson, M. A.(1997). Complicating the immigrant/involuntary minority typology.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28(3)*, 431-454.

_____(2001).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 19-23.

Gillock, K. L., & Reyes, O.(1999). Stress, support, and academic performance of urban, low-income, Mexican-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259-282.

Gold, S.(1992). *Refugee communities: a comparative field study*.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_____(1994). Chinese-Vietnamese entrepreneurs in California. in P. Ong, E. Bonacich, & L. Cheng.(Eds.). *The new Asian immigration in Los Angeles and global restructuring*(Chapter 7).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Goldbeck, L.(1994). *Übersiedlerfamilie aus der DDR. Eine qualitative psychologische Untersuchung zu den Aspekten DDR-Sozialisation, Migration und Familiendynamik*. Ulm.

Gorden, M. M.(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räf, D.(1987). *Ausreise aus der DDR. Übersiedlung i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inweise, Dokumente, Amhamg. Kierst Verlag, Meersbusch.

Gysi, J.(1990). Die Zukunft von Familie und Ehe, Familienpolitik und Familienforschung. in Burkart, G.(Hg.). *Sozilaisation im Sozialismus.* Weinheim. 30-41.

Haberland, J.(1983). Eingliederung von Aussiedlern und Zuwanderern. Sammlung von Texten, 3. Auflage, Leverkusen.Haines, D., Rutherford, D., & Thomas, P.(1981). Family and community among Vietnamese refuge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5(1)*, 310-319.

Haines, D.(1997). *Case studies in diversity: refugees in America in the 1990s*. Westport: Praeger.

Haines, D., Rutherford, D., & Thomas, P.(1981). "Family and community among Vietnamese refuge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5(1)*, 310-219.

Helsper, W./Bertram. M./Stelmaszyk, B.(1991). Jugendlicher Übersiedler zwischen vordergründiger Integration und Ausschlußerfahrung. in Büchner, P.(Hg.) *Aufwachsen hüben und drüben. deutsche-deutsche Kindheit und Jugend vor und nach der Vereinigung*. Opladen, 267-285.

Hermansson, A. C., Timpka, T. & Thyberg, M.(2002). The mental health of war-wounded refugees; an 8-year follow-up.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2)*, 374-380.

James, D. C.(1997). Psychosocial risks of immigrant students: knowing where they live is essential to alleviating them. *Education Digest* 63, 51-75.

Jiobu, R.(1988). Ethnic hegemony and the Japanese of Californi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353-367.

Koser, K.(1997). Social networks and the asylum cycle: The case of Iranians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2, 591-611.

Köhler, A/Ronge, V.(1984). Einmal BRD-einfach. Die DDR-Ausreisewelle im Frühjahr. in *Deutschland Archiv, 17.* pp. 1280-1286.

Lazarus, R. S.(1976). *Patterns of adjustment* (3rd ed.). New York: McGraw-Hill.

Lee, S. C.(1993).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Hmong refugee adul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Light, I. H.(1972). *Ethnic enterprises in America: business and welfare among Chinese, Japanese, and Black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inderberg, T.(2004). "구동독의 사회와 문화." 역사문제연구소 2004년 국제학술대회. <분단의 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과 구동독의 역사비교>

Looney, J. G.(1979). "Adolescents as refugees." *Adolescent Psychiatry,* 7, 199-208.

Marlene, B. S. & Kelly, D. B.(2004). Obesity and body image. *Body Image, 1(1)*, 43-56.

Mayer, A./Trappe, H.(1995) die ostdeutschen Beschäftigungssystems.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2, 242–260. Frankfurt.

Meredith, L. S., Wenger, N., Liu, H., & Harada, N.(2000). Development of a brief scale to measure acculturation among Japanese America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1), 103-113.

Mirsky, L.(1997).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immigrants from adolescents: culture-specific factors in the case of immigrant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 221-230.

Nguyen, S. D.(1982). The Psycho-social adjustment and the mental health needs of Southeast Asian refugees. *Psychiatric Journal of the University of Ottawa*, 7(1), 26-35.

Nwadiora, E. & McAdoo, H.(1996).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ican Refugee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Adolescence, 31,* 478-490.

Park, J. S.(1975). *A three generational study: traditional Korean value system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Unpublished PhD. thesis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ortes, A., & Rumbaut, R. G.(2001).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ortes, A.(1996). *The new second generation.*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Portes, A. & Bach, R. L.(1985). *Latin journey: Cuban and Mex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ratsch, K /Ronge, V. (1985a). *"*So einer wartet nicht auf das Arbeitsamt. *Die Integration der DDR-Uebersiedler in die westdeutsche Gesellschaft"* pp.159-169 in Deutschland Archiv, 18.

_____(1985b). *"Arbeit finden sie leichter als Freunde. DDR-Uebersiedler der 84er-Welle nach einem Jahr im Westen"* pp.716-725 in Deutschland Archiv, 18.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s, 37*, 149-152.

Rumbaut, R. G.(1993). A legacy of war: Americans from Vietnam, Laos, and Cambodia. in P. G. Min(Ed.). *Asi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Chapter. 9). Thousands Oaks, CA: Sage Publications.

_____(1994). The crucible within: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segmented assimil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8, 748-794.

Sam, D. L., Berry, J. W., Phinney, J. S., & Vedder, P.(2006). *Immigrant youth in cultural transi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Suarez-Orozco, C. & Suarez-Orozco, M. M.(2002). *Children of immigr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Vollbrecht, R.(1993). *Ost-westdeutsche Wiedersprüche. Ostdeutsche Jugendlichenach der Wende und Integrationserfahrungen jugendlicher* Übersiedlungen *im Wesren.* Leske und Budrich, Opladen.

Waters, M.(1996). The intersections of gender, race, and ethnicity in identity development of Caribbean American teens. In B. Leadbeater and N. Way(Eds.). *Urban girls: Resisting stereotypes, creating identities* (pp.65-81).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Wright, M. B.(1980). Indochinese. in S. Thernstrom(Ed.). *Harvard encyclopedia of ethnic groups(*pp. 222-234).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Yoon, I.(1997). *On my own: Korean businesse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Zhou, M.(1997). Segmented assimilation: issues, controversies, and recent research on the new second gene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975-1008.

http://www.acf.dhhs.gov/programs/orr/

http://www.refugees.org

부 록

1.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도 조사 설문지

부 록

*** 다음은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의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북한을 떠나온 시기는 _____년도 ____월이다.

2. 남한에 입국한 시기는 _____년도 ____월이다.

3. 북한을 떠나 남한에 오기 전까지 제 3국에서 생활한 기간은 총 ____년 ____개월이다.

4.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식량부족이나 심한 추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5.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고문당하거나 공개 처형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6.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가족이나 동료와 예상치 않게 강제로 이별을 당한 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7.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가족, 친지가 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자살하여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8.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식량을 구하러 나간 후 소식을 몰라 몹시 불안했던 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9. 북한에서 가족이나 친지가 정치과오로 인해 처벌을 받아 공포를 느낀 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0.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홍수나 가뭄, 산불 등 자연재해로 몹시 놀란 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1.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심한 모욕이나 욕설, 성적 모욕, 배신을 당한 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2.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나의 질병을 고치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고 심하게 놀란 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3.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어딘가로 끌려가서 심하게 맞거나 고문을 당한 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4. 탈북과정에서 외국의 낯선 땅, 언어를 처음 대하고 몹시 두려웠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5. 탈북 과정에서 북한이나 중국 경비병에게 검열을 받아 몹시 긴장한 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6. 탈북 준비나 과정 중에 발각될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7. 탈북 과정에서 추격이나 사격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8. 탈북 과정에서 한국대사관 등에 망명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충격을 받았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9. 탈북과정에서 돈이나 식량 등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다음은 나의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1) 우리 가족 모두(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아버지( ), 어머니( ), 형제자매 ____명, 기타 _____

   2) 가족 중 일부만(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아버지( ), 어머니( ), 형제자매 ____명, 기타 _____

   3) 나 혼자만

2.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1) 나를 제외한 우리 가족 모두(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아버지( ), 어머니( ), 형제자매 ____명, 기타 _____

   2) 가족 중 일부만(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아버지( ), 어머니( ), 형제자매 ____명, 기타 _____

   3) 아무도 없다

3. 현재 제3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현재 제3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1) 나를 제외한 우리 가족은 모두(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아버지( ), 어머니( ), 형제자매 ____명, 기타 _____

2) 가족 중 일부만(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아버지( ), 어머니( ), 형제자매 ____명, 기타 _____

3) 아무도 없다

*** 다음은 남한에서 <u>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에만</u> 응답해 주십시오. ***

4. 나는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지낸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5. 우리 가족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준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다음은 남한에서 가족과 떨어져 <u>가족 외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에만</u> 응답해 주십시오. ***

6. 나는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낸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7. 나와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준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다음은 남한에서의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은?
1) 없다 2) 정규학교 3) 대안학교 4) 검정고시학원 5) 기타 _____

1-2. **정규 및 대안학교에 다닌다면,** 현재 몇 학년에 재학 중입니까?
1)초등학교 __학년 2)중학교 __학년 3)고등학교 __학년 4)대학교 __학년

2. 나는 학교(교육기관)수업에 대해 만족한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3. 나는 학교(교육기관)에서의 친구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4. 나는 전반적인 학교(교육기관)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교육기관)에서 나의 평균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 다음은 전반적인 남한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2. 하나원에서 받은 교육은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3. 하나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4. 하나둘 학교의 교육을 받았다면,
   4-1. 하나둘 학교에서의 생활은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4-2. 하나둘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학업준비에 도움이 되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5.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 당황할 때가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6.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칙이나, 제도 등을 잘 몰라 손해를 볼 때가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7. 북한에서 온 친구들 중에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만한 친구가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8. 북한에서 온 친구들 중에는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는 친구가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9. 남한 친구들 중에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만한 친구가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0. 남한 친구들 중에는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는 친구가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1. 내 주변에는 가족(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과 친구 이외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2. 내 주변에는 가족(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과 친구 이외에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3. (남한에서 사용하는 말이 북한에서 사용하던 말과 달라)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답답할 때가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4. (남한에서 사용하는 말이 북한에서 사용하던 말과 달라) 내가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어 답답할 때가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5. 나는 헤어진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6. 내가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왔다는 사실로 인해 괴로울 때가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7. 나는 마음으로는 북한 사람에 가깝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8. 내 친한 친구들은 거의 북한 사람이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9. 나는 남한에서 사용하는 표준말을 하려고 한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20. 내가 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21. 나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재미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22. 나는 북한 사람들과 있는 것이 편하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23. 나는 북한의 전통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24. 나는 북한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25. 나는 남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26. 나는 정말 북한 사람답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27. 나는 남한 사람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28. 나는 북한 사람들과 쉽게 사귄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29. 나는 북한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한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30. 나는 남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31. 나는 북한 사람들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32. 나는 남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즐겁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33. 나는 남한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한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34. 내 가치와 신념은 대부분 북한 사람들과 비슷하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35. 나는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36. 나는 남한 문화가 좋다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37. 나는 남한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38. 나는 남한 문화의 좋은 면을 더 많이 찾으려고 한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39. 남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나에게는 멋진 일이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40. 나는 남한 사람이라고 자주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41. 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42. 나는 북한 출신이지만 남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다음은 나의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들은 남한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항들로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1년간 전반적인 나의 행동에 대해 있는 그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1. 말다툼을 자주 한다.					
2. 자랑을 많이 한다.					
3. 외롭다고 느낀다.					
4. 잘 운다.					
5. 남에게 못되게 군다.					
6. 고의로 자해행위를 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					
7. 관심을 끌려고 노력한다.					
8. 내 물건을 부순다.					
9.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10.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11.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12. 다른 사람에게 시샘을 잘한다.					
13.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14. 나는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5.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16. 남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가치가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18. 나는 싸움을 많이 한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19.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20.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21.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22.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23. 나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24. 어지럼증이 있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25. 나는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26. 매우 피곤하다고 느낀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27. 의학적으로 밝혀진 원인 없이 나타나는 신체적 문제가 있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1) 몸이 쑤시고 아프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2) 두통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3) 메스꺼움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4) 눈의 이상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5) 발진 혹은 기타 피부의 이상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6) 배앓이 혹은 복통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7) 구토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8) 기타(구체적 내용:)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28.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29. 내 또래보다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30.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31. 가출한다.
32. 고함을 많이 지른다.
33.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34. 나는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 한다.
35. 불을 지른다.
36. 으스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37. 수줍어한다.
38. 우리 집의 물건을 훔친다.
39. 우리 집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훔친다.
40. 고집이 세다.
41. 내 기분이나 감정은 갑자기 변하곤 한다.
42. 나는 의심이 많다.
43.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44.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45. 나는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46. 남을 잘 놀린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47. 나는 성미가 급하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48. 남들을 신체적으로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49.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하기도 한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50. 기운이 별로 없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51.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52. 다른 아이들보다 소란스럽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53. 술을 마시거나 치료목적으로 쓰는 것 이외의 약물을 사용한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54.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55. 나는 걱정이 많다.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런편이다 ----- 자주 그렇다

* 생년월일: **_____년 _____월**
* 성별: **남 / 여**
* 신장 **_____cm** 몸무게 **_____Kg**
* 종교: 1) 없다 2) 개신교 3) 천주교 4) 불교 5) 기타
* 건강상태:
  1) 매우 좋다 2) 좋은 편이다 3) 보통 4) 나쁜 편이다 5) 매우 나쁘다
*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만약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호흡기질환 ② 신장질환 ③ 심장질환 ④ 위장질환 ⑤ 간질환
⑥ 피부질환 ⑦ 청각질환 ⑧ 안과질환 ⑨ 치과질환 ⑩ 정신과적 질환
⑪ 부인과(여성관련 병) 질환 ⑫ 관절염 ⑬ 신체장애
⑭ 기타(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김성원 한꿈학교 · 교장

◈ 연구보조원 ◈

심경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 석사과정

연구보고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
- 남한사회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인 쇄 2006년 12월 3일
발 행 2006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02)2263-50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89-7816-617-2 93330